

博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姜 信 沆

濟州方言의 樣態와 相範疇 研究

—A Study on the Modality and Aspect
of the Che-ju Dialect—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洪 宗 林

博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姜 信 沆

濟州方言의 樣態와 相範疇 研究

—A Study on the Modality and Aspect
of the Che-ju Dialect—

위 論文을 文學博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1991年 3月 28日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洪 宗 林

이 論文을 洪宗林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1991年 6月 4日

審査委員長

金光鍾



審査委員

李康龍



審査委員

玄平李



審査委員

高永根



審査委員

姜信次



目 次

1. 序 論	1
2. 樣態範疇	8
2.1 ‘-으크’와 ‘-을 거’	10
2.2 ‘-느-’	33
2.3 ‘-더-’	53
2.4 ‘-과-’와 ‘-노/누-’	80
3. 相範疇	100
3.1 代表的인 相形態	101
3.2 相體系	131
4. 結 論	160

* 참고 논저 166

* abstract 170

1. 序 論

1.1 일상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文章은 狀況脈絡의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文章들은 그 어느것도 다른 것과 意味가 동일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상이한 要素, 상이한 構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要素와 構成이 동일한 文章에 있어서도 그것이 發話되는 狀況이 달라지면 그 意味內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우리는 狀況脈絡의 제약에서 벗어난 眞空狀態의 文章을 想定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要素와 동일한 構成으로 되어 있는 文章은 동일한 意味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狀況脈絡 依存的인 文章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具體的인 것이라면 狀況脈絡 獨立的인 文章은 우리의 思惟의 所産으로서 抽象的인 존재이다. 우리는 전자를 文脈文(text-sentence), 후자를 體系文(system-sentenc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體系文이란 潛在的 發話들에 내재하는 公認된 文法性을 설명하기 위하여 언어학자가 가정한 理論的 構造로서, 이것은 發話의 所産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文脈文은 發話의 下位類로서 文脈 또는 그 分節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體系文의 發話는 곧 어떤 狀況脈絡에서의 文脈文의 出現을 뜻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狀況脈絡의으로 적절한 韻律的 構造를 갖게 되지만) (Lyons 1981:196-7). 체계문은 言語體系의 文法的 規則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서 이 研究의 주된 관심의 對象이 된다. 앞으로 '文章' 하면 주로 이 體系文을 가리키게 된다.

1.2 文章은 實際的으로 狀況脈絡 속에서 그 機能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本質的으로 볼 때, 文章은 語彙的 要素와 文法的 要素들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그 意味는 이들 要素와 그 構成樣式에 의하여 결정된다. 올바른 文意 把握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要素들에 대한 진정한 理解와 그 構造의 精確한 把握이 전제되는데, 이러한 작업이 그리 수월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절실히 느끼는 터이다. 특히 文法分野에서 볼 때, 지난 一世紀에 걸친 文法家들의 사려깊은 研究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國語의 文法素들의 意味把握에 있어서 아직도 論議되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보아도, 그 作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정상적인 아이가 너덧 살이면 거의 터득해 버리는 母國語의 文法知識을 고도의 修鍊을 쌓은 유능한 文法學者들이 평생을 研究하여도 올바른 理解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아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認識(awareness)의 두 層位가 존재하고 있음에 想到하게 된다. 어렸을 때 이미 母國語의 文法을 모두 터득하고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認識의 層位와, 평생을 연구하여도 그러한 자기의 文法知識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認識의 層이 '나'라는 個體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기만 하다. 우리가 未知의 世界에 태어나서 한편으론 불안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알아 보려는 노력이 급기야는 오늘날의 自然科學을 낳았듯이, 외계에 대한 불안을 느끼거나 호기심을 갖는 自己自身은 또 어떤 存在이인가에 의심을 품고 알아 보려는 노력이 오늘날의 人文科學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國語文法을 연구한다는 사실이 곧 自己 內面世界를 캐내려는 자기자신의 意識的 努力이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 이 연구는 濟州方言의 相과 樣態 두 範疇의 形態들의 形態·統辭論的 分布와 그 意味를 고찰하고, 나아가서 그 範疇의 本性을 밝히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濟州方言의 다른 範疇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相과 樣態들에 있어서는 現代 中央語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사뭇 특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國語라는 한 언어의 테두리 안의 단순한 地域的 變異로만 보아넘기기가 어려운 것도 없지는 않지만, 方言을 國語變遷史의 空間的 投影으로 볼 때 中央에서 멀리 떨어진 落島 濟州의 方言에 古語的 要素가 많이 남아 있으리란 추측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方言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業績들은 이러한 추측을 사실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언에 나타나는 形態들이 아무리 異質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국어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폭넓은 시야도 갖게되고 올바른 國語史의 서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느 研究에서나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한 信賴性 確保가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濟州道에서 태어나서 30 여년 동안을 주로 城山邑 新陽里에서 살았다. 대학과 군복무 등 육지에서 지낸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新陽里는 300 여호의 半農 半漁의 마을로 8,90 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북쪽으로 2km 쯤 떨어진 古成里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日帝時代에는 古城里 二區이던 것이 해방이후에 행정구역상 新陽里로 분리 독립되었다. 우리 집도 先代부터 고성리에 살다가 해방을 전후하여 이리로 이사를 했다.

같은 濟州方言도 地域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조사보고가 없는 것 같다. 얼마간의 語彙의 차이나 몇 가지 音韻現象의 變異가 있어 보이나 文法上의 차이는 그리 두드러진 것 같지 않다. 이 研究의 대부분의 資料가 필자의 記憶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도 집에서는 고향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말의 상대는 역시 고향에서 자라난 필자의 처가 되어 준다. 필자는 4,5년 전에 新陽

를 중심으로 하여 古城·水山·吾熙·城山·溫平 등지에서 자연스런 對話를 採錄한 일이 있다.¹⁾ 이 資料는 그 이후의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p.7. 地圖 參照)

1.4 文法範疇을 意味的으로 관련된 文法形態素들의 集合이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文法範疇'라는 用語는 그 用法이 多樣하지만, 이를 '文法形態素'들의 '意味類'로 파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形態들을 相과 樣態로 範疇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相範疇

第一類: '-음'(名詞形), '-압/엄-', '-압시/엄시-'

第二類: '-안/언-', '-아시/어시-', '-데-'

樣態範疇

第一類: '-으크'(名詞形), '-을 거'(名詞), '-느-'

第二類: '-더-'('라-', '-아/어-', '-데-'), '-과-', '-노/누-'

이러한 範疇化 및 그 下位分類²⁾는 물론 이들 形態들에 대한 意味把握이 그 前提가 된다. 이것은 이 研究의 앞으로의 課題이므로 現段階로서는 하나의 假說이라 할 것이다.

- 1) 이 때에 城山지역만이 아니라 舊左, 涯月지역의 방언도 조사되었는데, 이 조사에는 당시 경희대 한의대생 洪尙勳 군과 한국외국어대 법대생 洪性道 군, 그리고 당시 涯月商高의 吳萬哲 선생님, 細花中學校의 吳亨奉 교감선생님 등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한다.
- 2) 相範疇의 第一類와 第二類는 形態素別 분류이고, 樣態範疇의 그것들은 形態素類別 분류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形式들 가운데 전자의 경우는 形態(morphs)로, 후자의 경우에는 形態素(morphemes)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더'와 '크'의 경우에 異形態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文法範疇 設定과 관련하여 期待하게 되는 부수적인 特徵이 지적된다(Bybee 1985:191). 첫째는, 同一範疇의 形態素들은 서로 결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말하자면, 그 出現이 서로 排他的인 것이라는 期待인데,³⁾ 위의 形態들의 構文을 검토해 보면, 相範疇의 形態들은 예외 없이 우리의 期待에 잘 副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樣態範疇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形態들에서 같은 現象을 발견할 수 있으나, 다만, 第二類의 '더'가 第一類의 '으크'에 後接하여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러한 例外를 어떻게 說明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意味的인 相衝이 없는 限, 共起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同一範疇의 形態素들의 相互 排他性에 대한 우리의 期待 自體가 문제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同一範疇의 形態素들의 '意味的 關聯性'의 特徵과 有關한 것으로, 이에 대한 論議는 本論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 (2.3.4.3 참조)

다음은 同一範疇의 形態들이 類似한 樣式(parallel fashion)으로 表現될 것이라는 기대다. 위의 相範疇의 形態들을 보면, 대부분이 先語末語尾인 데 반하여 '음'만이 名詞形語尾이다. '암/엄'과 '안/언'이 起源의으로는 역시 名詞形語尾였을 지도 모르나 共時的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음'의 경우와는 달리 이것들은 뒤에 繫辭가 올 수 없다. 樣態範疇의 形態들도 대부분 先語末語尾이나 '으크'와 '을 거'가 각각 名詞形語尾, 名詞이다. 이것들 뒤에는 繫辭가 올 수 있다.

하나의 文法範疇가 單一體系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 둘째 번 期待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할

3) Bybee(1985: 191)의 見解도 우리의 견해와 유사하나, 위의 '排他性'을 文法範疇의 定意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強力한 立場을 취하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은 時期에 共存하고 있듯이 言語世界에 있어서도 이러한 現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濟州方言의 相範疇에는 先語末語尾로 표현되는 거의 완전한 體系가 확립되어 있는데도 名詞形語尾 '음'이 있어서 例의 第一類 形態들과 같은 意味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人稱的 制約을 심하게 받고 있어서 第三人稱 主語의 경우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樣態範疇의 경우에 있어서도 事情이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 이 範疇는 완전한 單一體系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 속에 先語末語尾만이 아닌 名詞形 내지 名詞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通時的으로 복잡한 事情이 얹혀 있을 것이나, 지금의 우리의 처지로서는 일종의 補充法으로 처리해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위에 제시된 形態들의 範疇化에 있어서 어떤 外形的 特性의 지지를 전면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동일한 範疇의 형태들이 갖는 결합상의 排他性은,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文法形態素들의 範疇化는 그 정의가 말해주듯이 어디까지나 그들의 意味的 特性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語幹과 終結語尾 사이에 介在되는 일련의 先語末語尾들(일부는 名詞 내지 名詞形語尾에 繫辭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지만)의 의미와 그 문법적 특성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文法範疇化를 피하는 동시에, 同一範疇의 형태들의 상호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그 體系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樣態 範疇

2.0 위에서는 '-으크', '-을 거', '-느-'들과 '-더-'(''-라-'·'-아/어-'·'-데-'), '-과-', '-노/누-'들의 형태가 樣態範疇의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의 중심 과제가 된다. 종래에는 이 形態들이 時制 내지는 數法의 형태로 파악되었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주로 남에게 情報을 제공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자 자신이 우선 그 情報의 所有者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화자가 情報을 어떻게 獲得하느냐가 문제되는데, 그러한 화자의 情報獲得 樣相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 특히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표현될 때에 樣態範疇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때에는 그 정보의 종류에 따라 획득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정보는 대체로 脈絡的인 것과 超脈絡的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특정의 시간과 특정의 공간에 구현된 정보이고, 후자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에 속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전자의 정보는 주로 우리의 知覺에 의하여 획득되며, 후자의 정보는 주로 우리의 思惟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이다. 脈絡的인 情報은 '-더-', '-과-', '-노/누-'들에 의하여 표현되고, 超脈絡的인 情報은 '-으

1) 이에 대한 中央語의 연구는 張京姬(1985)에서 이루어졌다.

크', '-을 거', '-느-'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 序論에서는 후자의 형태들을 第一類, 그리고 전자의 형태들을 第二類라 하여 구분하였다.

超脈絡的 情報을 나타내는 '-으크', '-을 거', '-느-' 등은 話者의 判斷 樣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脈絡的 情報을 나타내는 '-더-'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 '-라-', '-아/어-', '-데-'로 실현됨), '-과-', '-노/누-' 등의 의미는 話者의 意識의 樣式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 -과-'와 '-노/누-'는 意識의 時刻에 따라 또 하위구분된다. 따라서 이 범주의 형태들은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形態素들이라고 할 수 있다. 樣態範疇의 第一類와 第二類는 각각 형태소들의 집합인 것이다. 이 점이 相範疇의 第一, 第二類와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相範疇의 第一, 第二類는 그 자체가 形態素이다. 그러므로, 各類에 속해 있는 형태들은 그 형태소의 이형태인 것이다.

이제, 이 형태소들이 어떠한 意味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형태소들의 文法的 特性은 무엇인지,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2.1에서는 제일류의 '-으크', '-을 거', 그리고 2.2에서는 '-느-'가 논의된다. 이 세 형태소는 의미상 類似點과 相異點이 있는데, 그 相異의 정도는 비슷하다 할 것이다. '-으크'와 '-을 거'를 같이 다룬 것은 논의상의 편이를 위해서이다. 2.3에서는 제이류의 '-더-', 그리고 2.4에서 '-과-'와 '-노/누-'가 논의된다. 물론 이들도 의미상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데, 특히 '-과-'와 '-노/누-'는 유사점이 많다. 이것이 이것들을 함께 다룬 이유이다.

2.1 ‘-으크’와 ‘-을 거’

2.1.1.1 위의 形態들에 대하여 本格的인 考察이 시도된 일은, 필자의 寡聞의 탓인지는 모르나, 아직 없는 것 같다. 玄平孝(1974: 95-104)에서 敍法形態로 파악된 일이 있으나 部分的인 論議에 머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方言에서 ‘-겠-’과 ‘-을 것’에 대한 論議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두 形態는 濟州方言의 ‘-으크’ 및 ‘-을 거’와 각각 意味的인 類似性を 보여 주고 있다.²⁾ 따라서, 이 두 方言에서 이 形態들에 대한 研究는 相互間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서울 方言에서의 研究가 아직도 論議水準에 머물고 있으나, 本稿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2.1.1.2 玄平孝(1974)에서는 ‘-으크’가 意圖와 推測의 形態로 파악되었다.³⁾ 사실 다음과 같은 例文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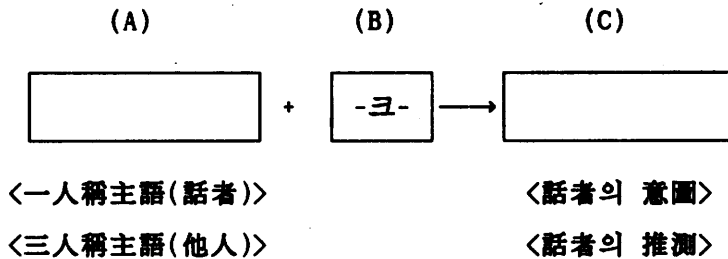
- 1) 나 집의 가키여. (나 집에 가겠다.)
- 2) 가이도 집의 가키여. (그 애도 집에 가겠다.)

(1)에는 話者의 어떤 意圖가 들어 있는 것 같고, (2)에는 ‘가이’ 즉 他人의 行動에 대한 話者의 推測이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例文(1)의 ‘-으크’

-
- 2) ‘크’는 名詞形 分揀語尾라는 점에서 ‘겠’과 다르다.
 - 3) 다소 名稱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 方言에서 ‘겠’의 意味를 意圖와 推測으로 보는 見解는, 최현배(1937) 이후 서정수(1968)에 이르기까지 學界를 거의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意圖를, 그리고, 例文(2)의 '-으크'가 推測을 意味한다고 보는 데에는 無理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위의 두 文의 意味差異가 主語의 交替에 基因되고 있다는 사실이 無視된 見解이기 때문이다. 위의 例文은 다음과 같은 圖式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例文들에서는 主語가 可變項, '-으크'가 未知項이라고 수 있는데,



〈圖式 1〉

〈圖式 1〉에서 (A)에 一人稱主語가 투입되면 (C)는 話者の 意圖가 되고, (A)에 三人稱主語가 투입되면 (C)는 話者の 推測이 된다. 이 때에 '-으크'의 意味는 主語의 意味資質과 結合되어 (C)의 意味(話者の 意圖나 推測)를 形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意味를 分揀하고 있지는 않다. 말하자면, 形態 '-으크'는 意圖와 推測의 意味를 지니고 있는 多義語的인 形態가 아니라, 이 두 意味에 共通되는 어떤 意味를 지닌 單義語的인 形態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

2.1.2.1 우리는 例文(1)(2)의 考察에서, 話者の 意圖와 推測이 形態 '-으크'에 의하여 區分되는 것이 아니라, 主語의 人稱에 의하여 區分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本島民의 대부분의 發話 속에서 이 見

4) 서울 방언에서 이러한 관점은 신창순(1972)에서 찾아볼 수 있다.

解가 어느 정도 妥當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난 야이영 놀키여. (나는 야랑 놀겠다.)
- 4) 느도 공부 잘 하키여. (너도 공부 잘 하겠다.)
- 5) 야이도 공부 잘 하키여. (애도 공부 잘 하겠다.)
- 6) 난 혼자 살키여. (나는 혼자 살겠다.)
- 7) 느도 부지런하난 밥은 먹영 살키여. (너도 부지런하니까 밥은 먹고 살겠다.)
- 8) 가네 편이 이기키여. (그 애들 편이 이기겠다.)

이상의 例文에서 보면, (3)(6)이 話者의 意圖를, 그리고, (4)(5)와 (7)(8)이 話者의 推測을 나타낸다. 이러한 判斷은 그 主語만 보아도 가능하다. (3)(6)만이 一人稱 主語이고, 나머지 (4)(5)(7)(8)은 전부 二\三人稱을 主語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例文을 보면, 이러한 判斷이 얼마나 소박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9) 나도 영 추운 디 잇당 강기 걸리키여. (나도 이렇게 추운 데 있다가 감기 걸리겠다.)
- 10) 나 영 콧콧 혼 디 가당 푸더지키여. (나 이렇게 캄캄한 데 가다가 넘어지겠다.)

이들 例文은 主語가 다 一人稱인데도 話者의 推測만을 나타내고 있다.

2.1.2.2 그러면, 話者의 意圖와 推測을 分揀해 주는 要素는 무엇인가? 具體的인 發話狀況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철수는 삼촌덕에 놀러 갔다가, 삼촌과 바둑을 두게 되었다. 첫 판에는 삼촌이 이겼다. 둘째 판을 시작하면서 철수가,

11) 이 판은 나가 꼭 이기쿠다. (이 판은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번에는 삼촌이,

12) 모름대로 댜카? (마음대로 될까?)

라고 응수하였다. 이긴다는 것은 自意的인 것이 아닌데도 철수는 自意的인 것처럼 말하자, 삼촌이 그것은 自意的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응수를 한 것이다. 이 때 (11)에는 철수의 意圖가 들어 있다.

바둑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황은 철수에게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 때에 철수와 삼촌의 대화가 차례로 이어진다.

13) 이 판은 나가 이기쿠다. (이 판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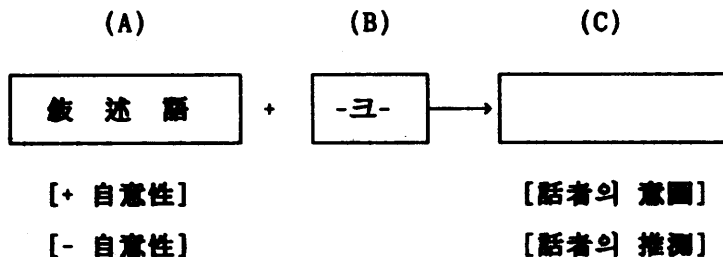
14) 괴영 흙직하다. (그럴 것 같다.)

(13)의 “이기다”는 바둑이 전개되어 가는 상황으로 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촌도 (14)에서 그럴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例文 (13)의 “이기다”에는 철수의 自意가 들어 있지 않다. 이 때에 (13)은 화자인 철수의 推測을 나타내고 있다.

15) 난 죽으키여. (나는 죽겠다.)

이 말은 模糊性을 지니고 있다. 話者의 意圖를 나타내기도 하고 推測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前者일 경우에는, 自殺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에는 重患者나 어떤 危機에 처한 사람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 重患者나 危機에 처한 사람이라도, 自殺을 기도하는 경우라면 前者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죽다”에 話者의 自意가 들어 있으면 前者가 되고, 들어 있지 않으면 後者가 된다. 예문 (3-8)에서 (3)과 (6)이 話者의 意圖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主語가 一人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敘述動詞에 話者의 自意가 들어 있기 때문이고, (4)(5)와 (7)(8)이 推測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主語가 二\三人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敘述動詞가 他人의 行動이어서 거기에 話者의 自意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文의 敘述語에 話者의 自意가 들어 있는 경우를 “敘述語[+自意性]”으로, 그리고, 들어 있지 않은 경우를 “敘述語[-自意性]”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제 우리는 <圖式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圖式 2>

2.1.2.3 <圖式 2>에서 (A)의 敘述語가 [+自意性]을 취하느냐, 또는 [-自意性]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B)項 ‘-크’의 意味와 결합되어 意圖를 나타내기도 하고, 推測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敘述語

가 어떤 경우에 [+自意性]을 취하고, 또 어떤 경우에 [-自意性]을 취하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敘述語가 名詞나 狀態動詞⁵⁾일 때에는, 主語의 人稱에 관계없이 [-自意性]밖에 취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話者는 어떤 事實이나 狀態(外的인 狀態든, 內的인 心理狀態든)를 陳述할 뿐, 그 事實이나 狀態에 어떤 作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敘述語에 話者의 自意가 개입될 수 없는 것이다.

- 16) 나 몇 살이크니? 알아맞추어 보라. (나 몇 살이겠니? 알아맞혀 보아라.)
- 17) 이번 시험엔 누가 일등이커. (이번 시험엔 내가 일등이겠다.)
- 18) 이번인 아들이크냐, 딸이크냐? (이번엔 아들이겠니, 딸이겠니?)
- 19) 나도 집의 가시민 좋으쿠다. (저도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 20) 오래망간이 아방이 와시난 느도 지쁘커. (오래간 만에 아버지가 오셨으니 너도 기쁘겠다.)
- 21) 이 옷 입으민 돗으커. (이 옷 입으면 몸이 따뜻하겠다.)

위의 例文에서 (16-18)은 敘述語가 名詞이고, (19-21)은 敘述語가 狀態動詞인데, 이것들은 모두 話者의 推測만을 나타낸다.

둘째, 敘述語가 動作動詞일 때에는, 主語가 二人稱이나 三人稱이면 [-自意性]을 취한다 (단, 主語가 二人稱인 疑問文에서는 [+自意性]을 취할 수도 있다. 後述). 이 경우에 敘述語는 主語의 自意的인 行動

5) 本稿에서는 動詞·形容詞의 區分을 止揚하고, 動作動詞·狀態動詞로 區分하려고 한다. 拙稿(1976) 참조.

일 수도 있으나, 主語의 自意에 관계 없이, 어떤 주어진 狀況의 推移에 따라 또는 그 拘束下에서 이루어지는 行動일 수도 있다. 그러나, 後者は 물론 前者에 있어서도 話者의 自意가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 22) 느네도 영 학당 싸우켜여. (너희도 이렇게 하다가 싸우겠다.)
- 23) 느도 이번 시험엔 꼭 붙으켜여. (너도 이번 시험에는 꼭 붙겠다.)
- 24) 느도 그 때 그냥 흑게 덩겨시민, 이제쯤 나와시켜여. (너도 그 때 그냥 학교 다녔으면, 이제쯤 나왔겠다.)
- 25) 누게네 편이 이기크니? (누구네 편이 이기겠니?)
- 26) 철수네 편이 이기쿠다. (철수네 편이 이기겠습니다.)
- 27) 자이도 아방안티 욱들으켜여. (저 애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겠다.)

이들 例文에서 (22-24)는 主語가 二人稱이고, (25-27)은 主語가 三人稱인데, 모두가 話者의 推測만을 나타낸다.

세제, 敘述語가 動作動詞이고 主語가 一人稱일 때에, 그 敘述語가 어떤 주어진 狀況에 관계 없이 主語(話者)의 自意로 이루어지는 行動일 수도 있고, 반대로, 話者의 意思에 관계 없이 어떤 주어진 狀況의 推移에 따라 또는 그 拘束下에서 이루어지는 行動일 수도 있는데, 前者의 경우에는 그 文이 話者의 意圖를 나타내게 되고, 後者일 경우에는 話者의 推測을 나타내게 된다.

- 28) 비가 와도 집이 가루다. (비가 와도 집에 가겠습니다.)
- 29) 난 죽어도 이디 살켜여. (나는 죽어도 여기 살겠다.)
- 30) 느가 멀려도 난 싸우켜여. (내가 말려도 나는 싸우겠다.)

- 31) 빨리 집이 가지 아니하면, 우린 다 비 마지키여. (빨리 집에 가지 아니하면, 우린 다 비 맞겠다.)
- 32) 나도 이디 이시민, 느네 아방안티 욱 들으키여. (나도 여기 있으면, 너희 아버지한테 야단 맞겠다.)
- 33) 이추록 궁꿍흔 디 가당은 나 곱은 사름은 푸더지키여. (이렇게 캄캄한 데 가다가는 나 같은 사람은 넘어지겠다.)

예문 (28-30)은 話者의 意圖를 나타내고 있으며, (31-33)은 話者의 推測을 나타내고 있다.

네제, 叙述語가 動作動詞이고 主語가 二人稱인 疑問文일 때에, 위에서와 같이 主語(聽者)의 自意로 이루어지는 行動일 수도 있고, 어떤 주어진 狀況의 推移에 따라 또는 그 拘束下에서 이루어지는 行動일 수도 있는데, 聽者의 意思를 물어 볼 때에는 그 文은 意圖를 나타내고, 그의 行動에 대한 狀況(또는 形便)을 물어 볼 때에는 推測이 된다.

이 경우, 形態 '-으크'가 敬語法에 따라, 다른 形態로 交替되는 일이 있는데, 흡서體와 ㅎ여體에서는 意圖나 推測에 관계 없이 '-으크'이나, ㅎ라體에서는 意圖일 때 'ㄷ'ㄴ', 推測일 때 '-으크'이다.

- 34) a. 삼춘 몬저 가쿠과? (삼춘 먼저 가시겠습니까?)
b. 기여, 나 몬저 가키여. (그래, 나 먼저 가겠다.)
- 35) a. 삼춘은 이제 가민, 다시 어느제 오게 되쿠과? (삼춘께서는 이제 가시면, 다시 언제 오시게 되겠습니까?)
b. 애명 해여도 네년 봄이나 돼여사 오게 돼키여. (아무래도

-
- 6) 文(38a)의 '좁잘티'는 疑問法 語尾가 '디'로 보인다. 따라서, '좁자-ㄷ-디'로 分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拙稿(1975)에서는 'ㄱ-티'로 분석한 일이 있었다.

내년 봄이나 되어야 오게 되겠다.)

36) a. 진 누계영 가크라? (자넨 누구랑 가겠는가?)

b. 난 혼자 가쿠다. (전 혼자 가겠습니다.)

37) a. 지도 어떻 서울에 살게 되크라? (자네도 어떻게 서울에 살
게 되겠는가?)

b. 예, 끄영저영 그디서 살게 돼쿠다. (예, 그럭저럭 거기서
살게 되겠습니다.)

이 例文에서 (34)(35)의 (a)는 ㅁ서體의 예이고, (36)(37)의 (a)는 ㅎ
어體의 예이다. 그리고, (34)(36)의 (a)는 聽者(第二의 話者)의 自意
를 물어 보는 말이고, (35)(37)의 (a)는 聽者(第二의 話者)의 形便을
물어 보는 말이다. 이 때에 前者의 (b)는 第二의 話者의 意圖를 나타
내고 있으며, 後者의 (b)는 그의 推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例에서는 聽者의 意思를 물어 보든, 또는 그 形便을 물어 보
든, 전부 形態 '-으크'로 일관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다르
다.

38) a. 는 누계영 줌잘티? (너는 누구랑 잠자겠니?)

b. 난 성이영 자쿠다. (전 형이랑 자겠습니다.)

39) a. 는 울리 안으로 장계나 가게 돼크냐? (너는 올해 안으로
장가나 가게 되겠니?)

b. 아직은 모르쿠다. 행편 돼어 가는 거 보양 ㅎ쿠다. (아직
은 모르겠습니다. 형편 되어 가는 것을 보고서 하겠습니
다.)

(38a)는 聽者(第二의 話者)의 意思를 물어 보는 말이고, (39a)는 그

의 形便을 물어 보는 말인데, 後者의 경우에는 '-으크'로 나타나나, 前者의 경우에는 'ㄷ'로 交替된다.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이,

40) *는 누계영 줍자크디(줍자크니)?

41) *는 올리 안으로 장게나 가게 땔티?

로 바꾼다면, 둘다 非文이 되고 만다.

2.1.3.1 우리는 위에서, '-으크'를 포함하는 文이 話者의 意圖를 나타내느냐 그의 推測을 나타내느냐가 主語의 人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敘述語에 話者의 自意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이제 우리는 <圖式 2>의 未知項 '-으크'에 대하여 考察할 차례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으크'와 意味的인 類似性을 보이는 '-을거'에 대하여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예쁜 꽃을 보고,

42) 비 완쎌. (비 오고 있다.)

43) 이 고장 춤 곱다. (이 꽃 참 곱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話者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陳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記憶에 의하여 過去에 經驗한 事實도 陳述할 수 있다.

44) 나 어제 가이 봤저. (나 어제 그 에 봤다.)

45) 가이 어제 갖저. (그 에 어제 갔다.)

‘뵈저’와 ‘갓저’에는 ‘見’과 ‘去’라는 行動의 結果의 現存性도 含意되어 있긴 하나, 그 行動 自體는 過去에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經驗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思考나 想像을 통하여 어떤 陳述을 할 수 있다.

46) 가이 어제 가실 거여. (그 애 어제 갔을 것이다.)

47) 가이 밥 먹었실 거여. (그 애 밥 먹고 있을 것이다.)

48) 가인 내일 갈 거우다. (그 애는 내일 갈 것입니다.)

(46)은 過去 事實에 대한 蓋然的 陳述이고, (47)은 現在의 事實, 그리고, (48)은 未來의 事實에 대한 蓋然的 陳述이다. 話者는 時間的 空間的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이 사실을 직접 確認하진 못했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經驗한 바에 의하여 이 사실들에 대한 蓋然的인 判斷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事實들은 話者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실을 話者가 모르고 있다면, 그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判斷도 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실을 화자가 經驗하여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判斷은 實然的 判斷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同一한 事實에 대하여 同一한 狀況 속에서 蓋然的 判斷과 實然的 判斷이 다 가능할 수도 있다.

49) 내일도 헐 볼 거여.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50) 내일도 헐 뜬다. (내일도 해는 뜬다.)

7) 화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蓋然的 判斷의 形式을 借用할 수 있다. 특히 어른 앞이나 어려운 자리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일종의 文體的 價値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 두 發話가 다 가능한데, 例文 (49)는 내일이 되어 해가 뜨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蓋然判斷이 가능한 것이고, (50)은 그 때까지의 話者의 經驗으로 봐서 그 確實性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實然的判斷이 가능한 것이다.

2.1.3.2 이상의 論議는 觀點을 달리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책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다 하자, 이를 본 두 사람이 각각,

51) 자인 흑게 감쳐. (저 애는 학교 가고 있다.)

52) 자인 흑게 안 감쳐. (저 애는 학교 안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文(51)은 肯定判斷이고, (52)는 否定判斷이 되는데, (51)에는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 있지 않으며, (52)에는 '간다'는 생각이 들어 있지 않다. 즉, (51)은 否定判斷의 可能性이 zero가 되고, (52)는 肯定判斷의 可能性이 zero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에, 가는 경우를 [+가다], 안 가는 경우를 [-가다] 라고 한다면, 判斷前의 狀況은 [$\pm$ 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저 아이는 학교 — $\pm$ 가다

[-가다] = <zero> → (肯定判斷)

[+가다] = <zero> → (否定判斷)

<圖式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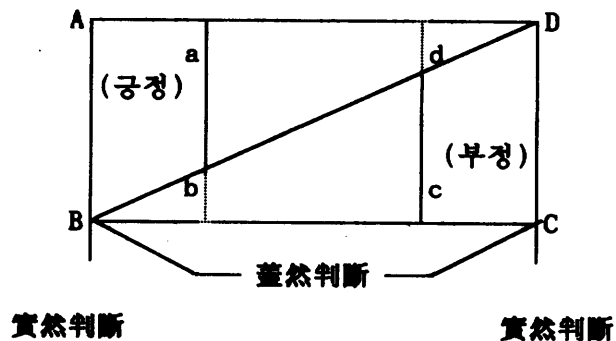
이러한 圖式을 염두에 두고, 다음 말을 觀察하기로 하자.

- 53) 저 아인 흑게 감실 거여. (저 이는 학교 가고 있을 것이다.)
 54) 저 아인 흑게 안 감실 거여. (저 이는 학교 안 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53)은 肯定判斷이면서도 그 否定의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고 있으며, (54)는 否定判斷이면서도 그 肯定의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고 있다. 즉, (53)은 [+가다]를 주장하면서도 [-가다]를 zero化하지 못하고 있고, (54)는 [-가다]를 주장하면서도 [+가다]를 zero化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肯定判斷 — (矛盾的 對立關係) — 否定判斷



< 그림 1>

이 그림에서 (AB)는 判斷의 質로 보면 肯定判斷이고, 그 樣相으로 보면 實然判斷이 되며, (CD)는 質로 보면 否定判斷, 그리고, 樣相으로 보면 實然判斷이 된다. 이 때에 肯定判斷과 否定判斷은 서로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고, 肯定的 實然判斷과 否定的 實然判斷 사이에 蓋然判斷의 영역이 있다. 肯定的 蓋然判斷 (ab)에는 否定的 생각(또는 否定判斷의 可能性)이 zero化 (排除)되지 않고 있으며, 否定的 蓋然判斷 (cd)에는 肯定的 생각 (또는 肯定判斷의 可能性)이 zero化 (排除)되지 않고 있다. 肯定的 蓋然判斷 (ab)가 (AB)와 合致될 때에는 肯定的 實然判斷이 되는데, 이 때는 그 否定的 생각이 zero化(排除)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否定的 蓋然判斷 (cd)가 (CD)에 合致될 때에는 否定的 實然判斷이 되며, 이 때에는 그 肯定的 생각이 zero化(排除)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蓋然的 判斷 (肯定的 判斷 또는 否定的 判斷)에 있어서, 그와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判斷 (否定的 判斷 또는 肯定的 判斷)의 可能性이 排除될 때, 그 蓋然判斷이 “實然化된다”고 말하기로 한다.

그러나, 어떤 判斷이 蓋然的인 채로 남아 있는 한에 있어서는, 肯定일 경우에도 그 否定的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否定일 경우에도 그 肯定的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올 거’의 意味라도 생각한다.

2.1.3.3 ‘-으크’는 話者가 經驗을 통하여 確實히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그러한 發話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으크’는 ‘올 거’와 마찬가지로, 話者의 과거나 현재의 經驗을 토대로 한 어떤 思考나 또는 어떤 想像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世界의 陳述과 관계된다.

이를 테면, 흘러가는 물을 보고 그것을 確認한 話者는,

55) 넷물이 흘렀져. (넷물이 흐르고 있다.)

라고는 말하지만, 이 때에,

56) 넷물이 흘를 거여. (넷물이 흐를 것이다.)

57) 넷물이 흘럼시킴여. (넷물이 흐르고 있겠다.)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로 떠나는 아버지를 전송하고 돌아온 두 남매의 다음과 같은 發話는 가능하다.

58) 아방은 이제쯤 서울에 다 감실 거여. (아버지는 지금쯤 서울에 다 가고 계실 것이다.)

59) 아방은 이제쯤 서울에 다 감시킴여. (아버지는 지금쯤 서울에 다 가고 계시겠다.)

60) 아방은 이제도 서울에 느리지 못헤여실 거여. (아버지는 지금도 서울에 내리지 못하셨을 것이다.)

61) 아방은 이제도 서울에 느리지 못헤여시킴여. (아버지는 지금도 서울에 내리지 못하셨겠다.)

예문 (58-61)은 話者의 어떤 思考나 想像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世界의 陳述이다. 이 세계는 不確實性을 그 本質로 하고 있다. 인지 아닌지가 不確實한 세계이다. 말하자면, 肯定的인 陳述을 하더라도 그 否定的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고, 否定的인 陳述을 하더라도 그 肯定的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는 그런 世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蓋然的인 狀況을 前提로 한다는 점에서, '-크-'를 포함하는 陳述은 어떤 實然的인 判斷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을 거-'를 갖는 陳述과 類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크-'를 포함하는 陳述은 蓋然的 陳述과 同一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發話狀況을 생각해 보자.

(A) 갑자기 태풍이 몰아 닥쳤다. 온 동네가 수심에 싸였다. 어부 몇 사람이 바다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 갔다. 바다 한가운데서 조그마한 배 한 척이 거센 파도에 시달리면서 기를 쓰고 들어오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B) 그러나,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배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몇 번 곤두박질하더니 그만 뒤집히고 말았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간간이 바람결에 들려 왔다. 그들을 구하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마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감돌았다.

(C) 이 때에 창수가,

62) 나가 가루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갯가로 달려갔다. 배를 타고 나가려는 것이다. 창수도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었다. 즉, 蓋然的 狀況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自己 行動에 疑心을 품지 않았다. 그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간다는 것이다. '간다'는 自己 行動에 確信이 서 있다. (62)에는 '안 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가다]를 排除하는 確信이 있다. 말하자면, '간다'는 자기의 自意的 行動을 '實然化하는' 話者의 確信이 들어 있는 것이다.

(D) 만일 (B)의 狀況에서 마을 사람들이 창수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고 하자.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아직 젊고 용기가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너에게나 기대한다'는 눈치인 것이다. 이 때에 창수가,

63) 난 안 가쿠다.

라고 하였다면, 이 말에는 '안 간다'는 자기의 自意의 行動을 '實然化하는' 창수의 確信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C)의 光景을 멀리서 客觀的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을 老人 甲과 乙이 있었다. (A)의 狀況에서 이들은,

64) 저 사람덜 잘 들어올 거우다.(저 사람들 잘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 어부들이 과거 경험으로 봐서 그만한 파도는 이겨낼 것이라는 판단일 수도 있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일 수도 있다.

그러나, 事態가 (B)의 狀況으로 접어들자, 그들은,

65) 으으, 저 사람덜 죽으키여.(어어, 저 사람들 죽겠어.)

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 내지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파도는 더욱 거칠어지고, 배가 뒤집혀지자, 그들은 이제 죽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노인들은 이제 그 어부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65)에는 어부들이 '죽는다[-自意性]'는 事實을 '實然化하는' 話者の 確信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陳述(肯定的 또는 否定的)에는, 그와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陳述(否定的 또는 肯定的)의 可能性을 排除함으로써, 그 陳述을 '實然化하는' 話者の 確信이 들어 있는데, 그 陳述을 '實然化하는' 話者の 確信이 바로 形態 '-크-'의 意

味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陳述의 可能性의 排除(zero 化)한 點에서 보면 '-크-'를 포함하고 있는 陳述은 實然的 判斷과 類似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後者가 經驗을 통하여 確認된 어떤 事實의 陳述이라면, 前者는 아직 經驗하지 못한 어떤 事實에 대한 話者의 確信을 나타낸다는 點이 다르다 할 것이다. 文 (65)의 상황에서도,

66) 이젠 저 사람덜 죽었저.(이젠 저 사람들 죽었다.)

와 같은 實然的 陳述이 가능한데, 이것은 바로 그 意味的 類似性에 基因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文 (58-61)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으크'가 蓋然的인 狀況을 전제로 하는 陳述에 나타난다는 點에서 '-을 거'와 類似한 面을 보인다. 그러나, '實然化'의 確信을 나타낸다는 點에서, '-을 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話者의 支持度로 보면, 前者가 後者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입학시험을 치르고 나서 불안해하는 학생에게, 그의 시험지를 검토하고 난 담임 선생이,

67) 걱정하지 말라. 불을 거여.

라고 했을 때에, 그 학생은 별로 안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68) 걱정하지 말라. 불으켜. (걱장하지 말아라. 불겠다.)

라고 했다면, 그 학생은 얼마간 마음이 놓일 것이다. 이것은 前者보다 後者が 話者の 支持度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으크’(갯)과 ‘-을 거’(ㄹ것)의 意味 區別에 主觀性和 客觀性的 개념이 연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도 같다. 이것은 이 두 形態의 區別이 話者の 確信의 有無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判斷의 根據가 主觀的이나 客觀的이나에 따라, 이 두 形態가 區別된다고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前者의 경우에도 客觀的 根據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文(68)도 그 한 例라고 볼 수 있다.

蓋然的 狀況에서 話者에게 어떤 判斷의 確信이 서면 ‘-으크’가 實現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確信이 서기까지에는 복잡한 心理가 作用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蓋然的 狀況 속에서 적어도 어떠한 확실한 心證(또는 根據)가 잡혀야만 이러한 確信은 설 것 같다.⁸⁾ 蓋然的 狀況이 그대로 存續되는 한에서는 蓋然的 判斷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根據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된다. 文(58-61)은 서울로 가는 아버지를 전송하고 돌아온 두 男妹의 발화이다. (58)(60)은 오빠의 發話이고, (59)(61)은 누이동생의 發話라 하자. 이 두 남매는, 제주 공항에서 40분이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빠의 말에 ‘-을 거’가, 동생의 말에 ‘-으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동생은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고, 오빠는 시계를 안 보고 말했다고 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오빠는 시계를 보면서 그런 발화를 못 한다 할 것인가? 동생은 시계를 안 보고서 그런 발화를 못 할 것인가?

8) 성기철(1979)에서는 ‘갯’의 발생 조건으로 경험의 ‘현재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具體的인 狀況에서 두 形態의 出現이 다 허용된다
고 해서 두 形態의 意味 特性이 中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1.3.4 우리는 <圖式 2>에서 [+自意性]의 敘述語가 '-크-'의
意味와 결합되어 話者의 意圖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기에 '-크-'의
意味를 代入하면, '話者의 意圖'란 말은 "話者의 自意가 들어 있는
어떤 敘述語의 意味를 '實然化 하는' 話者의 確信"이라고 定義될 것
이다. 마찬가지로, <圖式 2>에서 [-自意性]의 敘述語가 '-크-'의 意
味와 결합되어 '話者의 推測'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話者의 推
測'이란 말은, "話者의 自意가 없는 敘述語의 意味를 '實然化하는' 話
者의 確信"이라고 定義될 것이다.

예를 들면, 話者의 意圖를 나타내는 例文 (30)은, '싸운다'는 話者
의 自意的 行動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그가 '틀림 없이'⁹⁾ 싸
운다는 그의 確信이 있다. 이 말에는 안 싸운다는 생각을 排除하는
話者의 確信이 들어 있는 것이다. 싸운다는 話者의 自意的 行動에 대
한 '實然化'의 確信, 이것을 '話者의 意圖'란 말로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話者의 推測을 나타내는 例文 (22)는 話者의 自意가 들어있지
않은 '싸운다'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느네'(너희)가 '틀림
없이' 싸운다는 話者의 確信, 곧 '느네'가 안 싸운다는 생각은 排除
하는 話者의 確信이 들어있다. 話者의 自意가 없는 行動에 대하여 話
者가 갖는 '實然化'의 確信, 이것을 '話者의 推測'이란 말로 表現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9) "'틀림 없이' 싸운다"는 안 싸운다는 생각을 排除하는 意味이
다. '틀림 없이'란 語彙를 사용하면, '크'의 規定은 한결 용이
할 것이나, 이 말이 지니는 模糊性 때문에 기피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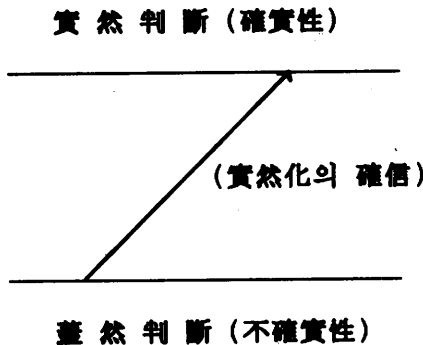
2.1.4 이상에서 우리는 濟州方言의 樣態要素 '-으크'와 '-을 거'의 그 用法과 意味를 고찰하였다.

1. 서울方言의 '-겠-'과 마찬가지로 '-크-'도 意圖와 推測의 形態로 파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意味는 形態 '-으크'가 나타나는 敘述語에 話者의 自意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分揀되는 것이며, '-으크'는 單義語의 形態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 時間的·空間的 또는 기타의 이유로 話者가 確認하지 못한 不確實한 世界의 陳述에 '-을 거'는 나타난다. 여기서 '不確實하다'는 말은, 어떤 判斷(肯定的 또는 否定的)이 그와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判斷(否定的 또는 肯定的)의 可能性을 zero化(排除)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蓋然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을 거'는 이러한 蓋然性을 意味한다고 보았다.

3. 話者가 確認하지 못한 不確實한 世界의 陳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으크'는 '-을 거'와 類似한 面이 있다. 그러나, '-으크'는 이러한 不確實한 狀況, 즉, 어떤 判斷(肯定的 또는 否定的)이 그와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判斷(否定的 또는 肯定的)의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는 그런 蓋然的 狀況을 前提로 하면서도, 그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判斷의 可能性을 排除함으로써 그 判斷을 '實然化 하는' 話者의 確信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어떤 判斷 또는 陳述을 '實然化 하는' 話者의 確信, 이것을 '-으크'의 意味로 파악하였다.

4. 따라서, '-으크'를 포함하는 陳述은, 그 陳述前 狀況은 蓋然的이나 陳述後의 價値는 實然判斷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實然判斷과 다른 것은, 後者가 經驗을 통하여 確認된 어떤 事實의 陳述이라면, 前者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실에 대한 話者의 確信을 나타낸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5.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話者の 意圖’란 말은 “話者の 自意가 들어있는 어떤 敘述語의 意味(實概念)를 ‘實然化하는’ 話者の 確信”이라고 定義될 수 있었고, ‘話者の 推測’이란 말은 “話者の 自意가 없는 어떤 敘述語의 意味(實概念)를 實然化하는 話者の 確信”이라고 定義될 수 있었다.

6. 이 方言의 ‘-으크’와 ‘-을 거’는 서울方言의 ‘-겠-’, ‘-을 것’과 각각 意味的으로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각 例文들의 翻譯文을 中心으로 論議한다면, 이 논의는 곧 서울方言의 ‘-겠-’과 ‘-을 것’에 대한 考察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注

- 10) ‘-으크’가 中央語 ‘-겠-’과 그 用法과 意味面에서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起源的으로 同一根源의 地域的 變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形態素는 蒙古語의 -qu와 同系가 아인가 한다 (拙稿, 1976: 526. 참조). Ramstedt(1939: 92-94)는 接尾辭 -qu, -qui를 Nomen futuri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規定은 그대로 ‘-으크’에 適用될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形態는 名詞形 語尾가 분명하며, 종래에는 未來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小倉進平, 1931: 52-54).

만일 ‘-으크’와 -qu가 同系의 形態라 할 때에, 이것이 借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근원적으로, 알타이 共通祖語의 殘影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蒙古와의 거의 百年에 가까운 交涉은 상당한 言語借用을 예상케 하며, 實質的으로 많은 蒙古語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긴 하나, 語彙의 借用이 아니라,

目되는 事實이 있다. 濟州 方言의 ‘-으크’는 모두 ‘-갇-’으로 翻譯이 가능한 것 같으나, 그 逆이 不可能한 경우가 나타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말을 濟州方言으로 번역할 경우,

69) 머리도 좋겠다, 돈도 있겠다, 건강도 하겠다, 그 애한테 무슨 걱정이 있겠니?

69') 머리도 좋겠다, 돈도 하겠다, 건강도 허겠다, 가이신디 무슨 걱정이 이시크니?

와 같이 나타난다. (69)에는 ‘-갇-’이 4개인데, (69')에는 ‘-갇-’이 3개, ‘-으크’가 1개임이 주목된다. 後者에 있어서, ‘-갇-’과 ‘-으크’를 相互 交替할 경우 非文이 되고 만다. 말하자면, ‘-갇-’의 자리에 ‘-으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으크’의 자리에 ‘-갇-’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갇-’과 ‘-으크’의 意味가 서로 다름을 證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方言의 경우도, (69)에서 確認되는 바와 같이, ‘-갇-’에 對應되는 ‘-갇-’과, ‘-으크’에 對應되는 ‘-갇-’, 두 개의 相異한 意味를 가진 ‘-갇-’이 있음을 보게 된다.

文法形態素의 借用이라는 데에서 그 可能性은 십사리 首肯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後者の 可能性은 어떠한가? Ramstedt(1939: 94)에서는 -qui를 韓國語의 名詞形態尾 ‘-가’(-ki<-kwi<-kui)에 對應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未來의 意味가 缺如되어 있고, 또 ‘-으크’와 用法과 意味가 유사한 ‘-갇-’을 名詞形態尾로 볼 수도 없는 일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鄉歌 安民歌의 “알고다”(知古如)와 祭亡錄歌의 “기다리고다”(待是古如)의 ‘고’가 이 ‘-으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이다(金完鎮, 1980: 73). 만일 陸地에서는 이미 이 語形이 消失되고, 이 方言에서만 存續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形態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資料라 할 것이다.

2.2 ‘-느-’

2.2.1.1 現代 中央語에서, ‘먹는다, 간다’ 등의 ‘-는-. -ㄴ-’을 現在形 語尾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濟州方言에서도, 이와 비슷한 形態로 ‘먹느냐, 먹나, 간다’ 등의 ‘-느-. -ㄴ-’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例에서,

- 1) 창수도 흑계 멍긴다. (창수도 학교 다닌다.)
- 2) 민수넨 부산 산다.
- 3) 이젠 가이도 나말 잘 듣나. (이젠 그 애도 내 말 잘 듣는다.)

우리는 ‘멍긴다, 산다’의 ‘-ㄴ-’과 ‘다닌다, 산다’의 ‘-ㄴ-’이 같음을 보게 된다. (3)의 ‘듣나’와 ‘듣는다’에서 다소 形態的인 相異를 보이나, 두 方言 사이에 意味上 별다른 差異點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

2.2.1.2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例文만을 가지고 意味의 同一性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中央語에 있어서 그 形態들이 時制範疇로 파악된다 하더라도, 이 方言의 形態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本稿의 論議過程에서, 이 方言의 ‘-느-. -ㄴ-’들은 中央語의 그것들과 形態뿐만 아니라 意味上에서도 상당한 差異가 있음을 發見하게 될 것이다. 中央語의 ‘-는-. -ㄴ-’과 비슷하면서도 同一하다고 할 수 없는 이 ‘-느-. -ㄴ-’의 正體는 과연 무엇인지, 이를

究明해 보려는 것이 이 研究의 課題다.

2.2.2.1 이 方言의 敘述語 '먹느냐, 산다, 먹나,' 등의 形態素 分析을 해 보면, '-느-'와 '-ㄴ-'이 同一形態素의 異形態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形態의 基本形이 '-느-'라는 것도 드러날 것이다.

- 4) a. 가인 어딜 잘 가느니? (그 애는 어딜 잘 가니?)
b. 가인 바닷에 잘 간다. (그 애는 바다에 잘 간다.)
- 5) a. 자인 어디 감시니? (저 앤 어디 가고 있니?)
b. 자인 바닷이 감쳐. (저 앤 바다에 가고 있다.)

이 例에서 (4a) (5a)의 '가느니'와 '감시니'는 각각 '가-느-니'와 '가-암시-니'로 分析된다. 그리고, (4b)(5b)의 '간다'와 '감쳐'는 각각 '가-ㄴ-다', '가-암스-저'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느-'와 '-암시-'는 '-니' 앞에, 그리고, '-ㄴ-'과 '-암스-'은 '-다'와 '-저' 앞에 각각 나타남을 보게 된다. 이것은 매우 注目되는 사실이다. 혹시 '간다'를 '가-ㄴ-다'로 分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狀態動詞의 경우를 살펴보자.

- 6) a. 이 신은 느안틴 크느냐? (이 신은 너한테는 크--ㄴ?)

-
- 1) 疑問法의 한 形態. '-니'가 說明疑問의 形態인 데 반하여, '-냐'는 判定疑問의 形態임.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拙稿 (1975 : 169-183) 참조.
 - 2) 여기 '-암시-'와 '-암스-'는 相範疇의 形態로 파악됨. (후술)
 - 3) 알맞은 번역이 없다. '크니'가 가장 가까운 듯하나, 그러면

b. ㅇ, 나안틴 크다. (응, 나한테는 크--.)

7) a. 이 신은 느안틴 크냐? (이 신은 너한테는 크냐?)

b. ㅇ, 나안틴 크다. (응, 나한테는 크다.)

(6a)와 (7a)의 '크느냐'와 '크냐'를 對照해 보면, 前者가 '크-느-냐'로 분석됨을 알 수 있고, (6b)(7b)의 '큰다'와 '크다'의 對照에서는 '큰다'가 '크-ㄴ-다'로 分析할 수 있음이 確認된다.

그러나, 이 形態素의 分析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8) a. 자인 무시걸 잘 먹느니? (저 앤 무얼 잘 먹니?)

b. 자인 과저 잘 먹나. (저 앤 과자 잘 먹는다.)

9) a. 자인 무시거 먹엄시니? (저 앤 무어 먹고 있니?)

b. 자인 과저 먹엄찌. (저 앤 과자 먹고 있다.)

문 (4,5)의 경우는 그 敘述語의 語幹이 '가-'였는데, 문 (8,9)에서는 그 語幹을 '먹-'으로 交替해 본 것이다. (8a)(9a) 對照에서, '먹느니'가 '먹-느-니'로 分析됨은 위의 '가느니'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8b)의 '먹나'가 어떻게 分析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도, (4b)의 '간다'가 '가-ㄴ-다'로 分析되는 것과 平行해서 '먹-ㄴ-다'를 期待했으나,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간다'를 語幹과 語尾로 區分할 때에 '가-ㄴ다'로 나누듯이, '먹나'를 '먹-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ㄴ다'에 對應는 '-나'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對應은 '-나'가 '-ㄴ-아'로 分析될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狀態動詞의 경우도, 위의 예(6,7)에서 (6b)의 '큰다'는 '크-ㄴ-다'

(7)의 경우와 같아지고 만다.

로 分析되었다. 그런데, 다음 例들은 어떠한가?

- 10) a. 이 신은 느안틴 죽느냐? (이 신은 너한테는 작--?)
b. 으, 나한틴 죽나. (응, 나한텐 작--.)
11) a. 이 신은 느안틴 죽으냐? (이 신은 너한테는 작니?)
b. 으, 나한틴 죽다. (응, 나한테는 작다.)

이 例文들은 앞의 예문 (6,7)의 語幹 '크-'(大)를 '죽-'(小,少)으로 代置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10a)에서 '-느냐'를 期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b)에 '-나'를 期待한다. 더구나 그 語幹이 狀態動詞이기 때문에 終結語尾로 '-다'가 올 可能性이 많을 것 같기도 보인다. 그러나, 動作動詞의 경우와 같이 '-나'로 나타났다. 우리는 여기서도 '-나'에 對應하는 '-나'를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對應을 土臺로 하여, '-나'를 '-ㄴ-'과 '-아'로 分析할 수 있다는 假說을 세운다면, 이 假說을 立證하기 위해서는, 終結語尾 '-다'와 '-아'의 對應關係를 合理的으로 說明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2.2.2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이상의 分析에서, 우리는 終結語尾 '-냐, -니' 앞에는 '-느-'가, 그리고, '-다' 앞에는 '-ㄴ-'이 나타나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냐, -니' 앞에는 '-암시/엄시-'가 나타나고, '-저' 앞에는 '-암스 / 엄스 -'이 나타나는 것과도 같은 現象이라 할 것이다. 한편, 문(4)(6)과 (8)(9)등의 a,b는 각각 한 쌍의 質問과 對答인데, 正常的인 對話의 問答에는 時相이나 體態 등, 敘法 이외의 文法範疇가 그대로 維持된다는 事實을 前提로 하면, 이들 두 形態가 한 形態素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2.2.2 여기서 제기되는 疑問은, 이 두 形態 '-느-'와 '-ㄴ-'이 어떠한 條件에서 交替되느냐 하는 것이다.⁴⁾ 우리는 위에서 '-느-'는 '-니, -냐' 앞에 나타나고, '-ㄴ-'은 '-다' 앞에 나타남을 보았다. 그런데, 終結語尾 '-니, -냐'는 '죽으니, 죽으냐'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母音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다'는 '죽다'에서와 같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이다. 뒤에 母音系 語尾가 오느냐, 子音系 語尾가 오느냐가 '-느-'와 '-ㄴ-'의 交替條件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相形態 '-암시/엄시-'와 '-암ㅅ/엄ㅅ-'의 交替⁵⁾도 역시 같은 條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中央語에 있어서도, 中世語에서는 '-느-'의 前身인 '-느-'가 뒤에 오는 語尾의 이러한 性質에 따라 變異되지 않지만 ('흐느냐, 흐느다'), 現代의 '-느-'는 그러한 變異를 보인다. 우리는 間接引用文에서 '가느냐, 간다'와 같은 語形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圖式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A) 가+느+으냐 → 가+느+냐 → 가느냐
- (B) 가+느+다 → 가+ ㄴ+다 → 간다

(A)에는 '-느-'가 維持되어 있는데, (B)에서는 그 末母音 '으'가 脱落된다. (A)에서, 母音으로 끝난 '-느-' 다음에 '-으냐'의 '으'가 脱落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現象이므로, 이 圖式에는 瑕疵가 없다

- 4) 여기서 주로 基本形態의 決定과 異形態들 間의 交替條件이 考察된다. 이러한 論議가 可能했던 것은 金完鎮(1975)의 示唆의 德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適用上에 惹起되는 過誤나, 用語의 差異 또는 資料의 相異에서 오는 責任은 오로지 筆者에게 돌아와 마땅하다.
- 5) 이 相形態의 交替는 語幹 形態素 '이시-. 시-'와 '잇-. ㅅ-'의 交替에 그 根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論議는 金完鎮(1975) 참조.

할 것이다.

中世國語에서 現在形 語尾로 파악되는 '-느-'는, 뒤에 연결되는 語尾가 子音系이든 母音系이든 관계없이 제 모습을 유지했지만, 現代語에 이르러서는, 形態도 '-느-'로 變化했을 뿐만 아니라, 性質도 달라져서, 특히 뒤에 오는 語尾가 子音系이면 그 末母音이 脫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濟州方言의 '-느-'는 中央語의 그것과 同軌를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先行하는 語幹形態素가 母音으로 끝날 경우에는 '-느-'가 두 方言에서 동일한 形態로 實現되지만 그 語幹 形態素의 末音이 子音일 때에는 樣相이 달라진다 (文 8,10 참조). 물론 이 경우에도, '-느-'에 後行하는 語尾가 母音系이면, 圖式(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느-' 그 대로나, 後行하는 語尾가 子音系이면, 狀況이 심상치 않게 전개된다.

(C) 먹+느+으나 → 먹+느+나 → 먹느나

(D) 먹+느+다 → 먹+느+다 → *먹 ㄴ 다

(D)에서 보는 바와같이 母音間에 세 子音이 介在되는 아주 難處한 結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中央語에서는 形態素 重加에 의하여 이러한 難點을 解決하지만 (金完鎮, 1975: 11), 이 方言에서는 그러한 解決策을 취하지 않고, 세 子音 中에서 마지막 'ㄷ'을 脫落시킴으로써 難點을 克服했다고 보는 것이 筆者의 所見이다. 이 두 方言이 難點을 克服하는 戰略을 圖式으로 나타내 보면,

(E) 먹+느+다 → 먹+느느+다 → 먹+느+다 → 먹는다

(F) 먹+느+다 → 먹+ ㄴ +다 → 먹+ ㄴ + 아 → 먹나

와 같이 對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事實은, (E)에서는 “破綻을 豫防하기 위하여” 미리 ‘느’를 重加시킴으로써 解決策을 講究한 반면, (F)에서는 일단 그 破綻을 거쳐서 活路를 찾았다는 것이다. 國語의 特質上 母音間 세 子音의 介在가 許容되지 않으므로,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子音을 脫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慣例이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한 形態素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겠고, 그렇다고 첫번째의 ‘ㄱ’을 脫落시키자니, ‘食’의 意味가 사라져 버리는 結果가 될 테니, 子音을 脫落시켰어도 그 形態素의 痕迹이 남아 있을 ‘-다’를 擇하여 ‘ㄷ’을 脫落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ㄷ’ 脫落에 대해서는 다른 說明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濟州方言의 경우도, 母音間의 세 子音 介在라는 破綻을 거치기 전에, 미리 그것을 豫防하기 위하여, 終結語尾 ‘-다’의 ‘ㄷ’을 脫落시켰다고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G) 먹+느+다 → 먹+느+아(?) → 먹나

와 같은 圖式이 豫想되는데, (G)의 둘째 段階에서 보면, 그 ‘ㄷ’이 脫落될 만한 要因이 전혀 發生되지 않는다. 形態素 ‘-느-’의 重加가 形態論的 解決法이라면, ‘ㄷ’音의 脫落은 音韻論的 解決法이라 할 것이다. 音韻變化 現象이 音韻 規則에 의하여 說明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므로, 여기서도 (G)와 같은 解決方案을 採擇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形態素 ‘-느-’는 後行하는 語尾가 母音系냐 子音系냐에 따라 ‘-느-’ 또는 ‘-ㄴ-’으로 交替된다. 그리고, 後者の 경우 先行하는 語幹의 末音이 子音이면, 두 母音間에 세 子音

이 介在하게 됨으로, 이러한 難點을 克服하기 위하여 後行 語尾의 첫
子音을 脫落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濟州方言의 形態素 '-느-'와 中央
語의 '-느-'가 形態面에 있어서 似而不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2.2.2.3 이상에서 우리는 ㅎ라體의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形態素
'-느-'의 異形態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ㅎ서體에서도 이 '-느-'
의 異形態는 發見된다.

- 12) a. 가인 어디 잘 멩기느니? (그 애는 어디 잘 다니니?)
b. 가이 바당의 잘 멩깁네다. (그 애 바다에 잘 다닙니다.)
c. 가인 바당의 잘 멩긴다. (그 애는 바다에 잘 다닌다.)
- 13) a. 가인 악 잘 먹읍네까? (그 애는 악 잘 먹습니까?)
b. 예, 잘 먹읍네다. (예, 잘 먹습니다.)
c. ㄴ, 잘 먹나. (응, 잘 먹는다.)
- 14) a. ㅎ겐 이디서 ㅼ답네까? (학교는 여기서 가깝습니까?)
b. 예, 이디선 ㅼ답네다. (예, 여기서 가깝습니다.)
c. ㄴ, 이디선 ㅼ딘다. (그래, 여기서 가깝다.)

이 例에서, (12)(13)은 敘述語가 動作動詞이고, (14)는 敘述語가 狀
態動詞이다. (12)의 問答에서, (b)의 '멩깁네다'는 '멩기-ㅅ-네-다'
로, 그리고 (13)의 경우, '먹읍네까?'는 '먹-읍-네-까'로, 또 '먹읍네
다'는 '먹-읍-네-다'로 分析되며, (14)의 (a)(b)에서도 우리는 'ㅼ디-
ㅅ-네-까'와 'ㅼ디-ㅅ-네-다'를 分析해낼 수 있다. '-읍-'은 ㅎ서체
의 형태다. 여기서 形態素 '-느-'가 '-네'로 實現되었음을 보게 되는
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分析方式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奇異한 現象이
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네-'는 '-내-'로도 나타난다. 日常談話에서는 '-내-'가 一般的이고, 사람에 따라서 '-내-'로 발음되기도 하나, 그 音價가 그리 분명하지 않지 않다. 그러나, 巫歌에서는 이 音이 분명하게 들린다. 이 形態는 '읍--다'(또는 '-까')의 環境에서 나타난다. 그렇다고 '비'와 같은 '母音間 세 子音 介'入이라는 音韻論的 難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母音 '에'가 補充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이 形態의 根源을 中世國語의 '-느이-'로 溯及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느-'는 現在形 語尾로 지적되는 것으로서 '-느-'의 古形이며, '-이-'는 恭遜法 語尾이다. 우리는 그 變化 過程을 <느이⇒느이⇒니⇒내⇒네>로 잡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내-' 또는 '-네-'는 두 形態素의 結合體임을 알 수 있다. E. A. Nida가 말하는 simultaneous occurrence이다. 이의 記述은 '-내-'·'-네-', '-에-'·'-에-'가 될 것이다.

2.2.3.1 지금까지 우리는 형태소 '-느-'의 異形態 '-느--느--'·'-내-'들을 確認하고, 그 交替條件을 주로 音韻論的 觀點에서 더듬어 보았다. 여기서는, 이 形態素가 다른 形態素들과 어떻게 結合되는가를 形態·統辭論的인 面에서 檢討하여 봄으로써, 좀더 그 本性에 接近하고자 한다. 다음 예를 보면,

- 15) a. 그 사람 매날 일만 허느냐? (그 사람 매일 일만 하니?)
b. 으, 그 사람은 매날 일만 한다.
- 16) a. 가인 요새 용심만 뉘네까? (그 앤 요새 화만 뉘니까?)
b. 예, 어명한 일산디 용심만 뉘네다. (예, 웬일인지 화만 뉘니다.)
- 17) 느도 잘못허민 매맛나. (너도 잘 못하면 매맞는다.)

- 18) 느도 살았시먼 살아진다. (너도 살고 있노라면 살게 된다.)
- 19) 난 이추록 일허멍 산다. (난 이렇게 일하면서 산다.)
- 20) 우린 맥주보다 소줄 잘 먹나. (우리는 맥주보다 소주를 잘 먹는다.)

이 예들은 그 敘述語가 모두 動作動詞이다. 形態論的인 面에서 보면, '-느-'에 後行하는 語尾는 平敘法이나 疑問法에 국한된다. 다만 (15)의 '-네-'는 發生的으로 '-이-'가 後行되었다. 이 '-느-'에 先行하는 形態素는, '-네-'의 경우 '-음-'이 나타나는 것을 除外하면, 모두 語幹 形態素들뿐이다. '-느-'는, 相의 形態素 '-았시-, -아시-'들(拙稿, 1987)이 呼應하는 命令法이나 請誘法의 語尾들과 呼應되지 않는다는 點에서, 樣態範疇의 '-르 거-, -크-'(2.1 참조)들과 같으나, '-르 거-', '-크-'가 自由롭게 呼應하는 '-았시-, -아시-'들을 꺼려한다는 點에서 이들과 다른 特性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例에서 (14)(15)는 主語가 三人稱이고, (16)(17)은 二人稱, (18)(19)는 一人稱이다. 이 形態素는 人稱의 制約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形態素는 狀態動詞나 名詞(물론 繫辭가 결합된 것이지만)와 같은 語幹들과도 結合된다. 이것은 매우 注目할 만한 事實로 여겨진다. 狀態動詞의 경우는 위에서도 접한 적이 있지만(文 6, 10), 그 例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것이다.

- 20) 이 구들은 참 돏나. (이 방은 참 따뜻하--.)
- 21) 죽은 고치가 땀나. (작은 고추가 땀--.)
- 22) 내일도 날씨 좋나. (내일 날씨 좋--.)
- 23) 드스게 입으라. 배께띠 나가민 언다. (따스게 입어라. 바깥

에 나가면 춤--.)

24) a. 이 세계더텐 무신 곡석이 대중이느니? (이 지방으론 무슨 곡석이 대중이--?)

b. 이텐 감저가 대중인다. (이 쪽으론 고구마가 대중이--.)

25) a. 이텐 문딱 자갈밭입네까? (이 쪽으론 모두 자갈밭입--?)

b. ㅇ, 이텐 문딱 자갈밭인다. (응, 이 쪽으론 모두 자갈밭입--.)

이들 예에서 (20-23)은 叙述語가 狀態動詞이고, (24)(25)는 名詞이다. 後者의 경우는 疑問文의 예도 보였다. 形態素 '-느-'가 나타내는 環境은, 위의 動作動詞의 경우와 같이, 語幹 形態素를 선행시키고, 平飯法과 疑問法의 語尾들을 後行시킨다.

2.2.3.2 그런데 지금까지의 論議를 進行해 오는 동안, 우리의 腦裡를 떠나지 않은 한 가지 疑念은, 이 形態素가 ㅎ여體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살핀 바 있는 ㅎ서體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ㅎ여體에 있어서도 이 形態素를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語末語尾로 보이는 形態 '-느니'와 '-느냐', '-네까'등의 '느, 네'(標題의 形態素 '-느-'와 區別 하기 위하여 이 후로는 「느」, 「느냐」등으로 나타냄)와 形態분만 아니라, 그 分布에 있어서도 類似한 점이 많아서 分揀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26) a. 난 누계영 가시느니?⁶⁾

6) 例 (26-28)의 (ab) 問答을 翻譯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6) a. 난 누구랑 가 있을까? b. 이 애랑 가 게세요.

(27) a. 나 먼저 가고 있을까? b. 예, 먼저 가고 게세요.

(28) a. 저 먼저 먹고 있을까요? b. 그래, 먼저 먹고 있어라.

b. 아이영 가십서.

27) a. 나 먼저 감시느냐?

b. 예, 먼저 감십서.

28) a. 나 먼저 먹엄십네까?

b. 기여, 먼저 먹엄시라.

이들 예의 (a)는 모두 疑問文인데, 그 語尾 「-느니, -느냐, -네까」의 「느, 네」는 文 (12a)(15a)(16a)의 語尾 「-느니, -느냐, -네까」의 「-느--네-」와 外形上 어떤 差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語尾들이 相形態인 「-아시-, -암시-」들과 結合이 가능하다는 點이 後者의 語尾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形態素 「-느-」는 語幹 形態素에 直接 連結되므로, 이 두 形態素 사이에는 어떠한 要素도 介입될 수 없다.

29) a. 사흘 굼영 도둑질 아니 헐 사름 잇느냐?

b. 물 타민 구중 생각 난다.(고재환, 1986:99) (말 타민 구중 생각 난다.)

c. 평병에긴 나민 고망부터 좇나.(고재환, 1986:111) (평 세킨 나민 구멍부터 찾는다.)

하라體의 例文인데, 俗談으로 흔히 들어 볼 수 있는 말이다. 여기서 形態素 「-느-」의 異形態 「-느--ㄴ-」을 찾아가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예문을 하여體와 ㅁ서體로 고치면 다음과 같다.

와 같은 試圖를 해보나, 意味에 많은 差異가 있다. 가령, (26)의 「가 있을까」, 「가 계세요」는 차라리 「강 이시카」, 「강 이십서」에 더 가까운 翻譯이다.

- 30) a. 사흘 굶영 도둑질 아니 헐 사름 잇는가?
 b. 몰 타민 구중 생각 나느니.
 c. 평방애긴 나민 고망부터 좇느니.
- 31) a. 사흘 굶영 도둑질 아니 헐 사름 이십네까?
 b. 몰 타민 구중 생각 납네다.
 c. 평방애긴 나민 고망부터 좇읍네다.

(30)이 하어체, (31)이 흡서체의 文章인데, 우리는 前者에서 '-느-', 그리고, 後者에서 '-네-'를 分析해 낼 수 있다. 만일 이 例文을 相形態의 構文으로 고친다면, 모두 非文이 되고 만다. 「느」 등의 例文과 類似한 것을 골라서 고쳐보면,

29a') *사흘 굶영 도둑질 아니 헐 사름 이섬시느냐?

31a') *사흘 굶영 도둑질 아니 헐 사름 이섬십네까?

원래 形態素 '-느-'의 構文은 일반적인 原理를 나타내는 것이 제격이고, '-암시-'는 具體的 狀況이 그 本領이므로, 이 두 形態素는 本質的으로 結合이 不可能하다 할 것이다 ('-느-'의 意味에 대한 論議는 後述). 따라서, 이 相形態들과 結合이 可能한 「느」 등은 '-느-'와는 다른 要素로 보아야 할 것이다.

文 (30)에서, 하어체에 나타나는 '-느-'의 異形態를 찾아내는 데에 疑問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다음 例와 比較檢討해 보면,

32) 저사름도 밥 먹언가? (자네도 밥 먹었는가?)

7) 어미 「-느냐, -네까」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그 사람도 밥 먹어니. (그 사람도 밥 먹었네.)

(32)의 '먹언가'가 '먹-어-ㄴ가'로 分析이 가능하듯이, 文(30a)의 '잇는가'는 '잇-느-ㄴ가'로 分析될 수 있을 것이다. 文(30bc)의 경우도, (33)의 '먹어니'가 '먹-어-니'로 分析되는 것과 比較하면 쉽게 '-느-'를 分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形態素 '-느-'의 異形態로, ㅎ라體에 '-느---ㄴ-'가, 그리고, ㅎ어體에 '-느-', ㅎ서體에 '-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形態素 '-느-'의 異形態는 '-느---ㄴ---네-'이다.

2.2.4.1 한 形態素의 確認이 窮極적으로 그 意味의 確認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形態素 '-느-'의 異形態를 分析해내고 그 分布의 特性을 調査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도, 그 異形態들 간에 意味의 同一性を 確認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成果는 하나의 假說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2.4.2 發話의 時點은 언제나 現在이다. 話者의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움직이는 모습, 즉 動相이나, 정지되어 있는 狀態, 즉 靜相에 대한 知覺內容을 敘述한다면 그 時制도 現在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다음 例의 時制도 現在라 할 수 있다.

34) 자인 밥 먹었어. (저 애는 밥 먹고 있다.)

35) 자인 7싸 왔어. (저 애는 아까 왔다.)

話者의 눈 앞에서 '저 애'가 '밥 먹는' 動作이 이루어지고 있다. (34)의 發話瞬間에도 그 動作은 持續되고 있다. (35)도 '저 애'가 '지

금 여기 있다'는 말이다. 다만, '왓-'의 意味 속에는 지금 狀態 以前의 '온다'는 動作이 含意되어 있음이 다를 뿐이다. '온다'는 動作의 結果로 벌어진 現在 狀態에 대한 陳述이다.

例文 (34)(35)는 話者의 눈 앞에 나타난 動相과 靜相에 대한 知覺作用과 동시에 이루어진 發話다. 그러나, 知覺作用과 그 陳述이 時差를 두고 實現될 때에는 發話樣相이 달라진다.

36) 가인 밥 먹엄서라. (그 애는 밥 먹고 있더라.)

37) 가인 흑게 가서라. (그 애는 학교에 가 있더라.)

(36)의 '먹엄서라'는 '먹+엄시+어+라'로, 그리고, (37)의 '가서라'는 '가+아시+어+라'로 일단 分析해 본다. 이 方言에서는 이른바 回想法의 '-더-'는 '-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의 發話時點은 現在이다. 그러나, 話者가 '그 애의 밥 먹는 狀況을 知覺한 것은 그 이전이다. 마찬가지로 話者가 '그 애'를 學校에서 知覺(發見)한 것도 그 이전의 일이다.

例文 (34-37)의 發話는, 그것이 話者의 知覺作用과 同時에 일어났든 또는 時差를 두고 일어났든 간에, 自己의 知覺內容의 陳述이란 점에서는 同一하다. 그러나, 形態素 '-느-'는 경우가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다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發話를 했다.

38) 비 완쎸. 혼적 가게. (비가 오고 있다. 빨리 가자.)

39) 비 온다. 혼적 가게.

(38)의 狀況은 비가 오고 있다. 知覺과 동시에 일어난 發話이다. '빨리 가자'는 뜻은 비를 덜 맞자는 것이다. (39)의 경우는, 아직 비가 오고 있지는 않다. '빨리 가자'는 것은 비를 맞지 말자는 뜻이다. 知覺內容의 陳述이 아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知覺作用은 不可能하다. 이러한 점에서는, 다음 發話도 마찬가지이다.

- 40) ㅎ셀 이시민 비 겐 거여. (조금 있으면 비 겐 거야.)
- 41) ㅎ셀 이시민 비 개키여. (조금 있으면 비 개겠다.)
- 42) ㅎ셀 이시민 비 겐다.

이들 세 例文의 狀況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다. 話者는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얼마 없으면 비가 개리라는 判斷을 한다. 그런데, (40)은 話者 自身이 '비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어 버리지 못한 發話이고, (41)의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自己의 確信으로 떨어 버린 發話인 것이다(2.1.3.3 참조). (42)는 '비가 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發話라 할 것이다. '비가 겐다'는 생각에 대한 話者의 支持度로 보면, '겐 거여'가 가장 낮고, '겐다'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經驗에 의한 判斷의 陳述은 '-르 거-', '-크-', '-느-' 등의 形態素에 따라 그 樣相이 달라진다. 이 중에서는 '-느-'의 경우가 가장 確實性이 큰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다음 例들에서도 確認될 것이다.

- 43) 내일도 ㄴ 풀 거여. (내일도 ㄴ는 풀 것이다.)
- 44) 내일도 ㄴ 트키여.
- 45) 내일도 ㄴ 른다.

이 例文 중에서 (43)(44)가 좀 어색한 느낌이다. '내일 해가 뜬다'는 사실은 確實性이 매우 큰 것인데도, (43)(44)는 오히려 '해가 안 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44)는 確實한 事實, 當然한 事實에 대하여 話者 自身の 確信까지 보였으니, 더욱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떤 判斷에 대한 確信이란, 그 判斷의 可能性이 일반적으로 稀薄하다고 생각되는 狀況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다.

例 (45)가 가장 자연스럽다.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은 確實한 事實로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事實의 陳述에 '뜬다'가 잘 어울리는 것은 形態素 '-느-'가 그만큼 支持度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일의 일이므로 確認된 것은 아니지만, 話者는 自己의 經驗에 의하여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은 실제로 目前에 展開되는 事實과 同一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判斷의 樣相으로 보면 實然判斷이다. 이것이 形態素 '-느-'의 意味라고 생각한다.

2.2.4.3 지금까지 우리는 敘述語를 動作動詞에 限定시켜 '-느-'의 意味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狀態動詞의 경우는 어떠한가?

46) A: 이 구들은 참 뚫다. (이 방은 참 따뜻하다.)

B: 이 구들은 뚫나.

(A)와 (B) 두 사람의 對話이다. 그들은 방에 앉아 있다. 우리는 이 對話만으로, 누가 主人이고, 누가 客인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 (A)의 發話는 '이 방'이 그 發話時點에 '따뜻한' 狀態임을 말하는 것이다. 一種의 知覺作用에 의한 判斷이다. 그러나, 發話(B)는 '이 방'의 發話時의 狀態라기보다, 그 방의 일반적인 性質을 말한다. 話者는

'이 방'이 따뜻하다는 것을 전부터 經驗하여 왔다. 지금 그 방이 따뜻하다는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話者의 經驗에 의한 判斷이다. (A)는 客이고, (B)는 主人이다. 만일 (A)가 主人이고, (B)가 客이었다면 이 發話는 實現 不可能한 것이 되고 만다.

狀態動詞를 敘述語로 한 다음과 같은 例文에서도, 이러한 事實은 確認된다.

47) A: 누계 지레가 크느니? (누구 키가 크-.)

B: 야이 지레가 클 거우다. (이 애 키가 클 겁니다.)

C: 아니우다. 야이 지레가 큼네다.

48) B: 끄영허민, 우리 맞추어 보카? (그러면, 우리 맞춰 볼까?)

C: 게, 맞추어 보자. (그래, 맞춰 보자.)

49) B: 이거 보라. 느 지레가 크지, 이? (이것 봐. 내 키가 크지, 웅?)

C: 참, 나 지레가 크다, 웅? (참, 내 키가 크다. 웅?)

(47)에서, (A)는 누구의 키가 큰지에 대하여 (B)와 (C)의 實然的인 判斷을 要求한다. 여기서, (B)는 (C)의 키가 클 것이라는 蓋然判斷을 하고, (C)는 (B)의 키가 크다는 實然判斷을 한다. (48)에서, (B)와 (C)는 자기들의 키를 맞추어 보기로 한다. 그 결과 (49)에서, (B)가 (C)의 키가 크다는 것을 지각하고 이를 (C)에게 確認시킨다. 이것이 (B)의 '크지'에 담겨 있는 의미다. (C)의 '크다'는 自己의 知覺判斷에 의하여 이를 認定하고 있다.

'크다'는 發話時 現狀態에 대한 知覺判斷이다. 그러나, 키를 서로 대어 보기 전에는, (B)는 (C)의 키가 크리라는 蓋然判斷을 하고 있었고, (C)는 (B)의 키가 자기보다 크다는 實然判斷을 하고 있었다. 이러

한 判斷은, 日常生活의 經驗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知識에 根據하고 있을 것이다. 그 知識에 대한 信賴의 程度에 따라서, 蓋然判斷도 나오고, 實然判斷도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敍述語가 名詞인 경우에도 같은 說明이 가능하다.

50) A: 이딘 자갈밭이우다, 예? (여긴 자갈밭이군요.)

B: 이 세겐 문딱 자갈밭이다. (이 지방은 모두 자갈밭이--)

(A)는 發話時의 現狀態에 대한 知覺判斷의 陳述이다. 그러나, (B)는 '이 세계'에 대한 화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진술이다. 화자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실연판단을 한 것이다.

2.2.5 濟州方言의 形態素 '-느-'에 대한 일련의 考察을 試圖하였다. 이 形態素는 中央語의 形態素 '-느-'와 根源적으로 同一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形態와 分布, 그리고 意味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를 보여 준다.

1. 이 形態素의 異形態는 '-느--ㄴ--네-'로 分析되었다. 母音系 語尾 앞에서는 '-느-', 子音系 語尾 앞에서는 '-ㄴ-'으로 實現된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 末音이 子音인 語幹 形態素가 앞에 오면, 母音間에 세 子音이 나타나는 難處한 狀況에 놓이게 된다. 이 難點은, 後行하는 語尾 '-다'의 'ㄷ'을 脫落시킴으로써, 克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異形態 '-네-'는 合서體에 나타나는데, 中世國語의 소위 現在形 語尾 '-느-'와 恭遜法 語尾 '-이-'의 發展的 形態로 보았다. E. A. Nida에 따라 '-네-'와 '-에-'로 분석하였다(고영근, 1965:18-19).

2. 이 形態素는 語幹 形態素와 敘法語尾 사이에서 나타난다. 語幹 形態素는 動作動詞, 狀態動詞, 그리고 名詞에 두루 걸쳐 있다. 그러나, 敘法語尾는 平敘法과 疑問法에 국한된다.

3. 이 形態素는 話者의 經驗에 의한 判斷을 敘述하는 構文에 나타난다. 이 점에서는, 話者의 知覺判斷의 敘述인 '먹었찌, 먹었저찌, 먹었서라, 먹어서라' 등과 다르며, '먹을 거여, 먹으키여'의 '-르거-, -크-'들과 同軌에 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느-'가 實然判斷이란 점에서 後者들과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話者의 經驗이나 知識에 의한 實然判斷, 이것이 이 形態素의 意味라고 생각된다.

4. 이 形態素는 中央語의 '-느-'와 비슷하면서도, 同一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에 대한 比較研究는 重要하면서도 興味로운 作業이 되리라 믿는다.

2.3 '-더-'

2.3.1.1 國語의 先語末語尾 '-더-'에 대하여는 中世國語에서 現代國語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資料에 걸쳐 꽤 많은 論議가 展開되어 왔다. 그 結果 이 形態의 意味로 '過去', '回想', '報告' 등 觀點의 差異에 따라 몇몇 概念이 浮刻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이 形態의 本性이 그리 쉽사리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무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濟州方言에서는 그 對應形態가 '-라---아/어---데-'등으로 나타난다. '-라-'는 繫辭 '이' 다음에, '-아/어-'는 動詞의 語幹 形態素나, 相形態 '-암시/엄시-, -아시/어시-' 등의 다음에, 그리고, '-데-'는 合서體의 形態 '-옵-' 다음에 나타난다". '-데-'는 發生的으로 '-더- + -이-'로 分析될 것 같다. '-이-'는 中世國語의 恭遜法 語尾 '-이-'에 遡及될 것으로 보인다."

- 1) 語幹形態素 '오-'(來)의 경우는 '-라-'와 '-아-'가 隨意的으로 交替한다. 그러나, 年老層에서는 '-라-'가 일반적이다.
가이 어느제 오라니? (그 해 언제 오더냐?)
가이 7싸 오라라. (그 해 아까 오더라.)
- 2) 여기에는 다소 疑問이 없지도 않다. 이를테면, '갑네다', '갑네까'와 '갑데다', '갑데가'를 比較할 때, '갑네다'와 '갑데다'의 '네', '데'는 각각 發生的으로 '느+이', '더+이'와 같이 分析되어, 이 '-이-'가 公히 中世國語의 '-이-'에 遡及되는 데에 無理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갑네까', '갑데가'의 경우에는, 前者의 '-네-'가 '느+이'로, 後者의 '-데-'가 '더+이'로 分析된다고 할 때에, 前者의 '-이-'는 '-잇-'에 遡及하는 데에 無理할 것 같으나, 後者의 '-이-'가 '-잇-'에 遡及한다고 보는 데에는 無理가 따를 것 같다. ('-네-'의 分析에 대해서는 2.2.2.3 참조.) 왜냐하면, '-이-'는 平飯法 語尾 '-다' 앞에,

이 形態素의 基底形은 '-더-'로 把握하고자 한다. 언제나 '음--이'의 사이에서 이들과 共起함으로써 外部의 變化要因으로부터 잘 掩蔽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形態는 中世語를 비롯하여 現代의 餘他方言의 경우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주목이 된다.

이 '-더-'가 어떤 緣由에서 '-라-'나 '-아/어-'로 實現되는지 아직은 疑問이다. 여기서는 定動詞語尾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이들 形態의 意味考察을 中心課題로 한다.

2.3.1.2 이 課題의 解決을 위하여 玄平孝(1974: 89-94)의 試圖가 있었다. 거기에서는 回想의 意味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回想法의 形態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例文들에서 非文이 나타나는 理由가 解明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1) a. 가인 그 때 서울더러 가라. (그 애는 그때 서울로 가더라.)
b. *난 그 때 서울더러 가라.
- 2) a. 가인 좀 착해여라. (그 애 참 착하더라.)
b. *난 좀 미련해여라.
- 3) a. *가이 일 하영 허난 지쳐라.
b. 나도 일 하영 허난 지쳐라. (나도 일 많이 하니까 지치더

'-잇-'은 疑問法 語尾 '-가/고' 앞에 나타난다고 할 때 (安乘驥 1967: 208), '갑데가'는 마땅히 '갑데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實現되지 않는다.

- 3) 基底形 '-더-'는 그 自體로도 實現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것은 '-아/어-'와 자유로이 交替되는데, 일부 젊은 層의 發話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改新派의 影響인 듯하다.
가이 밥 먹더냐? (먹어나)
가이가 뜨리더라. (뜨려라)
나가 언제 뜨리더냐? (뜨려니)

라.)

4) a. *가이 혼자 집이 시난 무슨와라.

b. 나 혼자 집이 시난 무슨와라. (나 혼자 집에 있으니까 무섭
더라.)

이들 예의 모든 (a)는 主語가 三人稱이고, 모든 (b)는 主語가 一人稱이다. (1)(2)에서는 (b)가 非文이고, (3)(4)에서는 (a)가 非文이 된다. 만일 '-더-'가 回想의 意味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非文은 正常的인 文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남이 '가는 것'은 回想하면서 자기가 '가는 것'은 回想되지 않을 리가 없으며, 우리가 느끼기만 한다면,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回想 못할 理由가 없겠기 때문이다. 남의 '지친 것'이나 '무서운 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것을 回想 못하진 않을 것이다. '-더-'를 回想의 形態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위의 非文들을 排除하지 못하는 데에, 根本的인 難點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2.1 筆者는 위에서 '느끼기만 하면', 또는 '느낄 수만 있다면'이라는 漠然한 表現을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느낌'이란 本稿에서는 '知覺'이란 말로 解釋할 수 있다. 말하자면, 例文(1-4)의 非文들은 話者が 回想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話者が 知覺할 수 없는데에 起因된다고 보는 것이 이 論議의 態度이다. 그렇다고 回想의 意味를 否認하려는 것은 아니다. 回想만으로 未洽하다고 보는 것이다.

2.3.2.2 現代心理學에서는 知覺을 '우리 環境 속에 있는 刺激의 패턴을 構成하고 解釋하는 課程'이라고 定義한다. 그리고, 對象과 事象의 知覺은 時間과 空間의 틀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形態心理學에 의하면, '知覺은 感覺資料를 모아서 全體的 패턴, 즉, 形態

(Gestalten)로 만든다.'고 한다. (Hilgard, 1979: 153-154)

우리들의 目的을 위하여 이 內容을 整理해 보면,

(a) 時間과 空間의 場 속에 존재하는 對象과 事象들을,

(b) 우리의 感覺器官이 受容하고,

(c) 이 受容된 感覺資料를 全體의 패턴으로 構成하고 解釋한다.

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c)의 主體는 물론 大腦가 된다.

2.3.2.3 이상과 같은 知覺의 概念을 토대로 하여 本方言의 資料들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는 外界에 存在하는 事物自體를 知覺한다.

5) a. 쫓안 보난 그거 영수네 물이라라. (찾고 보니 그거 영수네
말이더라.)

b. 들언 보난 그 사름도 우리 권당이라라. (듣고 보니 그 사
람도 우리 친척이더라.)

6) a. 가인 중학생이라라. (그 앤 중학이더라.)

b. 느도 중학생이라라.

c. 나도 중학생이라라.

(5a)의 知覺對象은 '그거'이고, 거기서 얻어낸 情報은 '영수네 물'이다. 이 情報은 視覺을 통하여 受容되었다. '쫓안 보난'에서 이를 確認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5b)의 知覺對象은 '그 사름'이고, 그에 대하여 알아낸 情報은 '우리 권당'이다. '들언 보난'에서 聽覺을 통한 受容임을 알 수 있다. 外部世界에 관한 대부분의 情報은 이 두 經路를 통하여 受容된다고 한다. (6a)의 '가이'가 '중학생'이란 情報도 이 두 經路中 어느 하나나 또는 동시에 두 經路를 통하여 受容된다.

(6b)는 어색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知覺上의 問題에 起因된 것이 아니다. 知覺의 면에서 본다면, 二人稱은 없다. 거기에는 知覺의 主體와, 客體 즉 對象만이 존재한다. 二人稱의 경우도 三人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知覺의 對象이 된다. (6b)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發話狀況에 起因된다. 聽者인 '느'가 自身의 身分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知覺時點과 發話時點의 時間的 거리가 멀 때에는 이 文은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知覺當時의 聽者自身의 身分을 發話時點에서 記憶해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6c)의 경우는 다르다. 나는 나 自身의 身分을 나의 知覺을 통하여 意識하지는 않는다. 知覺 이전에 나는 벌써 나의 身分을 알고 있다. 따라서 (6c)와 같은 發話는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나도 학생이었어'가 적절할 것이다. 나에 관한 情報가 나의 視覺이나 聽覺에 의하여 受容되기도 한다.

7) a. 성적표 보난 나가 일등이라라.

b. 선생신디 들어 보난 나가 꼴찌라라.

이들 例文이 適格文이 되는 理由는 나의 成績에 대한 情報가 知覺에 의하여 認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外界現象의 정지된 모습, 곧, 靜態에 대해서도 知覺한다.

8) a. 그 산 춤 높아라. (그 산 참 높더라.)

b. 그 집은 춤 시끄러워라.

9) a. 가이 춤 착해여라. (그 애 참 착하더라.)

b. 허는 거 보난 느 춤 착해여라. (하는 거 보니까 너 참 착하더라.)

c. *나도 춤 미련해여라.

(8a)의 '산이 높다.'는 情報는 視覺을 통하여, 그리고, (8b)의 '그 집이 시끄럽다.'는 聽覺을 통하여 受容된다. (9ab)의 경우는 聽覺도 작용하겠지만 주로 視覺에 의하여 受容되다고 할 수 있다. (9c)가 非文이 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自身이 '미련하다'는 것을 意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령 意識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感覺器官을 통하여 受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話者 自身에 관한 情報가 知覺에 의하여 受容 될 수 있다.

10) a. 가이 춤 지레 커라. (그 에 참 키크더라.)

b. 느 가이영 걸어가는 거 보난 춤 지레 커라. (니 그 에랑 걸어가는 거 보니까 참 키 크더라.)

c. 가이영 7찌 사 보난 나가 커라. (그 에랑 함께 서 보니까 내가 크더라.)

이 例에서 (a)는 主語가 三人稱, (b)는 二人稱, (c)는 一人稱인데, (a,b)가 適格文인 것과 마찬가지로 (c)도 適格文이다. 話者 自身의 키가 '그 에'보다 크다는 것을 視覺을 통하여 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外界의 움직이는 모습, 즉, 動相에 대해서도 知覺한다.

11) a. 가인 그 때 집더레 가라. (너는 그 때 집으로 가더라.)

b. 는 그 때 집더레 가라.

c. *난 그 때 집더레 가라.

- 12) a. 가이도 늑신디 욱 잘 들어라. (그 애도 남한테 욱 잘 듣더라)
b. 옛들으난 느도 가이신디 욱 하영 들어라. (옛들으니까 너도 그 애한테 욱 많이 듣더라.)
c. *나도 늑신디 욱 하영 들어라. (*나도 남한테 욱 많이 듣더라.)

(11ab)의 '그 애'와 '너'가 '간다'는 情報는 話者의 視覺을 통하여, 그리고, (12ab)의 정보는 그의 聽覺을 통하여 受容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가능하다.

- 13) 가인 늑신디 욱 하영 들어헨 굴아라.

이것을 굳이 표준어로 옮겨본다면 '그 애는 남한테 욱 많이 듣더라고 말하더라.'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話者가 있다 ('늑'까지 話者로 보면 세 사람이지만). (13)의 話者(S₁)과 S₁에게 말을 한 話者(S₂)이다. '들어헨'의 '-어-'는 S₂의 知覺을 나타내고, '굴아라'의 '-아-'는 S₁의 知覺을 나타낸다. 이것은 聽覺만의 경우이지만 視覺과 聽覺이 共起될 수도 있다.

- 14) 가인 집더래 돌아헨 굴아라.

'그 앤 집으로 달리더라고 말하더라.'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아-'는 S₂의 知覺, 뒤의 '-아-'는 S₁의 知覺을 나타낸다.

(11)(12)의 (b)와 같이 主語가 二人稱일 때에는 發話가 어색해지는 수가 있다.

- 15) ?는 그싸 밥 먹어라. (너 아까 밥 먹더라.)
- 16) ?는 그싸 나 불러라. (너 아까 나 부르더라.)
- 17) ?는 그싸 울어라. (너 아까 울더라.)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例가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知覺上의 문제가 아니라, 發話狀況의 문제이다. '먹는다, 부른다, 운다'고 하는 行爲를 聽者인 '너'가 잘 모르는 경우라야 하는데, '아까'한 자기의 行爲를 聽者가 모른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드문 일에 속한다. 만일 '그싸'를 '그 때'로 交替한다면, 이러한 어색함은 解消될 것이다. 자기 自身の 行爲는 自身이 意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知覺에 의하지 않는다(意識과 知覺의 관계에 대해서는 2.3.3.3 참조). 어떤 行爲를 한다는 것은 곧 行爲者 自身이 미리 그것을 計劃하고 實踐하는 것이 된다. 그는 자기의 行爲를 知覺에 先行하여 意識하고 있다. (11c)가 非文이 되는 이유이다. (12c)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듣는 데에 열중하고 있으면, 듣는다는 것 자체도 意識하지 못하지만, 설명 意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知覺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外部世界의 情報가 視覺과 聽覺에 의하여 受容되는 경우를 論議하였다. 여기서는 우리의 味覺과 嗅覺, 그리고 皮膚感覺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18) 그 감저 참 돌아라. (그 고구마 참 달더라.)
- 19) 이 민네기 참 상긔혜여라. (이 미나리 참 향긋하더라.)
- 20) 그 방 참 돛아라. (그 방 참 따뜻하더라.)
- 21) 그 주세 참 아파라. (그 주사 참 아프더라.)

(18)의 '고구마가 달다.'는 情報는 味覺을 통하여, (19)의 '미나리가 향긋하다.'는 情報는 嗅覺을 통하여, 그리고 (20)(21)의 情報들은 皮膚感覺을 통하여 受容된다. 이들 感覺語는 원칙적으로 人間에 대하여는 使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比喩로는 가능하다.

22) a. 그 사람 참 싱거와라. (그 사람 참 싱겁더라.)

b. 느 참 싱거와라.

c. *나 참 싱거와라.

23) a. 그 사람 너미 차라. (그 사람 너무 차더라.)

b. 느 너미 차라.

c. *나 너미 차라.

(22)의 '싱겁다'는 味覺語이고, (23)의 '차다'('춥-'+'-아-'>'차-')는 皮膚感覺어지만, 사람에게 比喩的인 意味로 適用되었을 때에는, 그 情報가 視覺이나 聽覺을 통하여 受容될 것이다. (22)(23)의 (c)가 非文이 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情報를 知覺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形態素 '-더-'는 話者가 外部의 世界를 知覺하는 경우에 正常的으로 사용되었다. 主語는 二人稱과 三人稱이었다. 話者自身에 대한 情報도 그의 知覺에 의하여 受容될 때에는 一人稱主語도 가능하였다 (例文 7, 10c). 우리는 여기서 形態素 '-더-'의 意味가 話者の 知覺과 어떠한 關聯이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아직도 檢討해야 할 資料가 남아 있긴 하지만, 話者の 知覺을 '-더-'의 한 意味實質로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2.3.3.1 外部世界の刺激을 受容한다는 點에서 위에 든 다섯 가지 感覺은 동일한 待遇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이 點에서 皮膚感覺은 餘他の 感覺과 差異를 드러낸다. 視覺·聽覺·味覺·嗅覺의 경우는, 外界의 刺激體가 主語가 되지만, 皮膚感覺의 경우에는 外界의 刺激體가 主語가 되기도 하고 (例 20, 21 참조), 刺激을 받는 身體部位가 主語가 되기도 한다.

24) ㄱ싼 동어리가 ㄱ라와라. (아까는 동이 가렵더라.)

25) ㄱ싼 발바닥이 ㄱ지라와라. (아까는 발바닥이 간지럽더라.)

이들 例文에 또 하나의 主語를 제공한다면, 一人稱은 가능하지만, 二·三人稱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話者는 自己自身の 가려운 것, 간지러운 것은 知覺할 수 있으나, 二人稱, 三人稱인 他人의 이러한 感覺은 知覺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皮膚感覺 외에 體性感覺의 경우, 이를테면, '아프다, 지치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무렵다(마렵다)'들도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26) a. 난 (머리가) 아파라. (나는 머리가 아프더라.)

b. * 는 (머리가) 아파라.

c. * 자인 (머리가) 아파라.

만일 이 例에서 (b)(c)가 適格文이 되려면,

27) a. * 난 머리가 아팠 해여라. (난 머리가 아파서 하더라.)

b. 는 머리가 아팠 해여라.

c. 자인 머리가 아팠 해여라.

와 같이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위에서 論議되었던 例文 (11)(12)와 같은 結果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27)의 '헤어라'의 '허-'(爲)는 아프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몸부림을 친다든지 하는 行爲를 말하는데, 이것을 話者가 聽覺이나 視覺을 통하여 受容하게 되겠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話者는 他人의 體性感覺을 직접 受容할 수는 없다. 다만, 그 體性感覺의 反應이 겉으로 드러낼 때에 한하여 간접적으로 知覺할 수 있을 뿐이다. (26bc)의 非文과 (27bc)의 適格文은 바로 이러한 事情의 反影으로 보인다.

2.3.3.2 우리는 情緒가 무엇이나 하는 質問에 對答하기는 어렵지만, 日常生活에서 經驗하는 즐거움, 분노, 공포, 슬픔, 미움, 기쁨 등의 心理狀態가 情緒라는 것은 알 수 있다. 情緒를 나타내는 문장을 검토해 보기로하자.

28) a. 난 지빠라. (나는 기쁘더라.)

b. *는 지빠라.

c. *가인 지빠라.

29) a. 난 그 때 춤 뭉수와라. (나는 그 때 참 무섭더라.)

b. 는 그 때 춤 뭉수와라.

c. 자이도 그 때 춤 뭉수와라.

여기서 우리가 갖는 疑問은, 敘述語 '지쁘다'와 '뭉수다'가 똑같이 情緒를 나타내는 語彙들인데, 어떠한 緣由로 前者는 二·三人稱 主語를 拒否하고 後者는 이를 容認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主語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28abc)의 主語는 情緒를 일으키는 主體인 데에 반하여, (29)에서는, (a)의 主語는 그 主體지만, (bc)의 主語는 情緒

誘發의 原因인 刺激體이다. 만일, (28abc)와 (29a)에 刺激體를, 그리고 (29bc)에 情緒의 主體를 投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0) a. 난 집이 가는 게 지뻐라. (난 집에 가는 것이 기쁘더라.)

b. *는 집이 가는 게 지뻐라.

c. *가인 집이 가는 게 지뻐라.

31) a. 난 그 때 베염이 춤 무스와라. (난 그 때 뱀이 참 무섭더라.)

b₁. 난 그 때 는 춤 무스와라. (난 그 때 뱀 참 무섭더라.)

b₂. *는 그 때 는 춤 무스와라.⁴⁾

b₃. *가인 그 때 는 춤 무스와라.

c₁. 난 그 때 자이 춤 무스와라. (난 그 때 제 참 무섭더라.)

c₂. *는 그 때 자이 춤 무스와라.

c₃. *가인 그 때 자이 춤 무스와라.

(30)의 (abc)와 (31)의 (b₁, b₂, b₃), (c₁, c₂, c₃)를 각각 묶어 놓고,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여기서 한 가지 共通된 事實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情緒를 일으키는 主體는 언제나 一人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話者는 自身の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情緒는 意識할 수 있지만, 二人稱이나 三人稱인 他人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情緒는 意識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30)(31)의 非文들이 適格文이 되기

4) (31a₂)는 보기에 따라서는 正常文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앞의 '는'도 뒤의 '는'과 마찬가지로 情緒誘發의 原因인 刺激體라야 한다. 이 文의 變形인 (33a)에서는 반대로 뒤의 '는'이 앞의 '는'과 마찬가지로 情緒를 일으키는 主體가 된다. 同一人이 情緒를 일으키는 主體이면서 동시에 그 情緒誘發의 原因으로 作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變形되어야 할 것이다.

32) a. 는 집이 가는 게 지뵈 해여라. (너는 집에 가는 것이 기뻐서 하더라.)

b. 가인 집이 가는 게 지뵈 해여라.

33) a. 는 그 때 는 춤 무스완 해여라.

b. 가인 그 때 는 춤 무스완 해여라.

34) a. 는 그 때 자이 춤 무스완 해여라.

b. 가인 그 때 자이 춤 무스완 해여라.

이들 例에서 앞의 主語는 모두 情緒를 일으키는 主體이다. '해여라'의 '하-'(爲)는 그의 마음 속에 일어난 어떤 情緒의 外現的 反應이다. 話者는 이러한 反應을 視覺이나 聽覺을 통하여 受容할 수 있다. 이것이 이들 例文이 適格文이 된 緣由일 것이다.

自身의 情緒經驗을 自身은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體驗이다. 지금의 論議는 이런 前提下에서 進行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目的을 위하여, 情緒의 意識에 대한 心理學的 見解를 잠시 살핀다.

現代心理學的 情緒理論에 의하면, 情緒에 대한 意識的 經驗은, 記憶에 의한 情報과 知覺에 의한 情報, 그리고, 身體變化에 대한 情報 등 세 가지 要因의 統合에서 생긴다고 한다. 즉, 記憶 속에 저장된 情報과 環境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知覺은 現在의 狀態를 解釋하는 데 사용되고, 이 解釋은 身體의 變化에서 오는 피드백과 相互作用해서 情緒狀態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統合에 直接 關係된 腦中樞는, 視床下部와 어떤 邊緣系의 部分으로 본다. 여기서 나오는 神經衝擊은 腦幹에 있는 神經核으로 가고, 이것은 自律神經系의 機能을 조절하게 되는데, 自律神經系는 직접적으로 筋肉과 內部

器官에 작용해서 情緒의 特徵인 몇가지 身體變化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情緒의 經驗은 外部의 入力에 의하여 처음에 시작될 수 있지만, 그러나, 自律神經系가 거의 즉각적으로 작동되어서 身體變化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오는 피드백이 더해져서 情緒經驗이 된다고 한다. (Hilgard 1979, 396)

2.3.3.3 心理學에서는 두 가지 意識의 基本的 樣式을 구별한다. 하나는 受動的, 受容的 狀態이고, 다른 하나는 積極的, 生産的 精神活動이다. 感覺과 審美的 經驗은 여러가지 空想과 類似-神秘經驗과 함께 첫째 樣式에 속하고, 意識의 積極的 役割은 計劃을 實踐하고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취하는 着手 및 調停活動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Hilgard 1979, 191ff)

우리의 目的을 위하여 이러한 見解를 受容할 때, 지금까지의 論議에서 우리의 關心을 모아온 '知覺'이나 '情緒의 意識'은, '受容的 意識'이라는 意識의 한 樣式에 抽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3.2.3과 2.3.3.1에서는 話者의 知覺을 形態素 '-더-'의 한 意味實質으로 보았고, 2.3.3.2에서는 情緒에 대한 話者의 意識이 '-더-'의 意味와 關係됨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兩義的인 觀點은, '話者의 受容的 意識'을 形態素 '-더-'의 意味實質로 봄으로써 解消되며, 우리의 記述은 한결 簡單해질 수 있을 것이다.

例文 (11)(12)에서 (c)가 모두 非文이었다. 그 敘述語의 語幹形態素 '가-'와 '듣-'이 話者 自身の 行動이므로, 그가 意識하지 못할 리 없는데도 이들이 非文이 되는 理由는, 그 意識이 受動的, 受容的인 것이 아니라, 積極的, 生産的 精神活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例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

35) *나 오늘 옥계에서 가이 보아라. (*나 오늘 학교에서 그 애 보더라.)

36) *나도 밥 먹어라. (*나도 밥 먹더라.)

우리가 굳이 '-더-'의 사용을 고집하면서, 이 예들의 意味에 가까운 適格文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例文이 될 것이다.

37) 나 오늘 옥계에서 가이 보아져라. (나 오늘 학교에서 그 애 보이더라.)

38) 나도 밥 먹어져라. (나도 밥 먹히더라.)

(35)(36)을 이 例文들과 비교해 보면, 語幹形態素 '보-'와 '보아지-', '먹-'과 '먹어지-'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35)(36)이 非文이고 (37)(38)이 適格文이 되는 이유는, '보-', '먹-'이 話者의 積極的 精神活動인 데에 반하여 '보아지-', '먹어지-'가 話者의 受動的 意識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意識의 區分은 서로 切斷되어 있다기보다, 意識이라는 線分上的 兩極端을 指示하는 概念으로 보고, 그 中間段階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⁵⁾

39) a. *나도 하영 울어라. (*나도 많이 울더라.)

b. 나도 하영 울어져라.⁶⁾

5) 이러한 觀點은 心理學에 의하여 支持를 받는다. (Hilgard 1979, 192ff.)

6) 이 文의 翻譯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울어지-'에 對應되는 적절한 말이 標準語에는 없는 것 같다. '울게 되-' 정도가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울어져라'는

- 40) a. *나도 얼얼 박박 떨어라. (*나도 추워서 와들 와들 떨더라.)
b. 나도 얼얼 박박 떨어져라. (나도 추워서 와들 와들 떨리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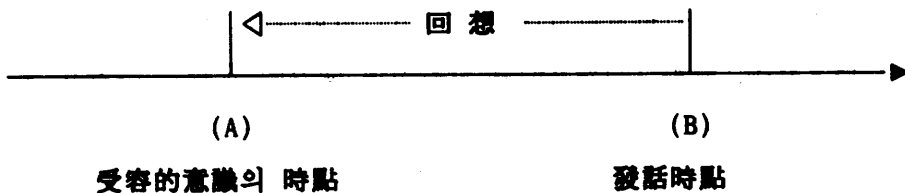
우리의 상식으로는, (39a) (40a)의 語幹形態素 '을-'과 '떨-'을, 話者의 積極的인 精神活動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形態素 '-더-'와 결합될 때에 非文으로 나타나고, '을어지-', '떨어지-'로 變形되었을 때 비로소, '-더-'와 더불어 適格文이 되는 것을 보면, 語幹形態素 '을-', '떨-'도 (35)(36)의 '보-', '떡-'과 함께 同系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2.3.4.1 우리는 위에서, 形態素 '-더-'의 意味가 話者의 知覺과 話者의 情緒意識에 關聯되어 있음을 確認하였고, 이 두 範疇를 話者의 受容的 意識에 抽象하여 이를 '-더-'의 意味實質으로 봄으로써 記述의 簡素化를 꾀했을 뿐 아니라, 위의 두 範疇에 포함될 것 같지 않은 몇 가지 例文을 해명해 보았다. 그러나, 話者의 受容的 意識이 곧 形態素 '-더-'의 意味는 아니다. 그 意味의 한 要素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形態素 '-더-'의 또 하나의 意味實質으로는 '話者의 回想'을 들 수 있다. 이것을 '-더-'의 意味의 全部인 것처럼 보아온 종래의 見解가 未洽하다고 본 것이 本稿의 前提였다. 다소 성급할지는 모르나, 結論부터 말한다면, 本稿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의 回想'을 形態素 '-더-'의 意味로 본다.

'을게 되더라' 정도로 翻譯됨직하다.

2.3.4.2 여기서 말하는 '回想'은 두 개의 時點을 前提로 한다. 하나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의 時點이고, 다른 하나는 話者의 發話時點이다.



< 圖 1 >

이 때에 發話時點은 現在이고, 意識의 時點은 過去가 되는데, <圖1>의 경우, 時點 (B)에서 時點 (A)의 話者의 受容的 意識을 回想하여 말할 때에 '-더-'의 構文은 成立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論議해야 할 課題는 두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하나는 時點 (A)와 (B)가 포개어졌을 때, 즉, 受容的 意識과 동시에 發話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受容的 意識과 發話가 時差을 두고 發生하는 경우이다.

- 41) 이건 창수네 쇠여. (이건 창수네 소야.)
- 42) 이건 나 책이여. (이건 내 책이야.)
- 43) 그 괴기 참 크다. (그 고기 참 크다.)
- 44) 이 구들 참 돏다. (이 방 참 따뜻하다.)
- 45) 자인 집더래 감져. (저 앤 집으로 가고 있다.)
- 46) 자인 아방신디 육들엄져. (저 앤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있다.)

이 例文들은 모두 話者의 受容的 意識과 同時에 이루어진 發話이다.

우리는 눈 앞에 展開되는 어떤 對象 自體에 대하여 意識할 수 있다. (41)(42)가 그 例이다. 그 對象의 정지된 모습, 즉 靜相에 대해서도 意識할 수 있는데, (43)(44)가 그 例이다. 그 對象의 움직이는 모습, 즉, 動相에 대한 意識의 경우, 그 例는 (45)(46)이 된다. 發話時는 언제나 現在이므로 이 例文들의 時制를 굳이 말한다면 現在이다.

이 例文들은, 時點 (A)와 (B)를 分離하여 受容的 意識과 時差을 두고 發話할 때, '-더-'의 構文으로 變形된다.

- 41') 그건 창수네 쇠라라.
- 42') 그건 나 책이라라.
- 43') 그 괴기 춤 커라.
- 44') 이 구들 춤 도아라.
- 45') 자인 집더래 감서라.
- 46') 자인 아방신디 욱들엄서라.

(41)(42)의 主語 '이건'이 (41')(42')에서 '그건'으로 交替된 것은 文의 어색함을 덜기 위한 것이다. 形態素 '-더-'가 繫辭 '-이-' 다음에 '-라-'로, 動詞의 語幹形態素나 相形態 다음에 '-아/어-'로 實現된다. (45')(46')의 '감서라', '욕들엄서라'는 모두 語幹에 '-암/엄서라'가 결합된 것이다. 이 때 '-암/엄서라'는 '-암시/엄시--어--라' > '-암/어서라' > '-암/엄서라'의 過程을 밟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圖 1>의 時點 (A)와 (B)가 겹쳐지는 또 한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은 例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47) 가인 흑게 갖저. (그 앤 학교에 갔다.)
- 48) 가인 밥 먹었저. (그 앤 밥 먹었다.)
- 49) 가인 지레 하영 컷저. (그 앤 키 많이 컸다.)
- 50) 이 구들은 춤 dot저. (이 방은 참 따뜻했다.)

濟州方言에서는 結果相의 形態로 ‘-안/언-’, ‘-아시/어시-’가 指目된다.” 위의 例文에 보이는 ‘-앗/엇-’은, ‘-아시/어시-’가 後行하는 子音系語尾 ‘-저’의 影響으로 末母音 i가 탈락되어 나타난 異形態이다. (金完鎮, 1975)

結果相이란 어떤 動作이나 狀態의 變化가 일어난 結果의 狀況을 말한다. 結果의 狀況이므로 언제나 그 原因이 되는 狀況이 前提가 되는 데, 일반적으로 그 原因的 狀況은 動的인 데에 반하여, 그 結果의 狀況은 靜的인 것으로 보인다. 結果의 狀況이 아무리 그 原因的 狀況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現在의 狀況이므로, 例文 (47-50)의 時制를 굳이 따진다면 現在가 될 것이다.

이들 例文도 時點 (A)와 (B)를 분리시켜 受容의 意識과 時差을 두고 發話할 때에 ‘-더-’의 構文으로 變形된다.

- 47') 가인 흑게 가서라. (그 앤 학교 갔더라.)
- 48') 가인 밥 먹어서라. (그 앤 밥 먹었더라.)
- 49') 가인 지레 하영 커서라. (그 앤 키 많이 컸더라.)
- 50') 그 구들은 춤 dot아서라. (그 방은 참 따뜻했더라.)

7) 玄平孝 (1974)에서는 ‘-안/언-’을 完了相, ‘아시/어시’를 完了存續相의 形態로 보나, 筆者는 이들을 同一形態素의 異形態로 보고, 結果相으로 처리하였다. (상세한 것은 後述. 拙稿, 1987:190f 참조.)

이 例文의 敘述語들은 語幹形態素('가-· 먹-· 크-· 듯-')와 結果相 ('-아시/어시-'), 樣態要素 '-더-'의 異形態('-어-'), 그리고 平敘法 語尾('- 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結果相의 形態 '-아시/어시-'와 '-더-'의 異形態 '-어-'가 결합되어, '아시/어시+어 >아/어서 >아/어서'가 產出된다.

이들 例文에서, 話者의 回想內容은 그가 전에 經驗한 受容的 意識이고, 그 意識의 內容은 主語의 어떤 狀態이다. 물론 이러한 狀態는 主語의 動作이나, 어떤 狀態變動의 結果이지만, 그 주의는 動作이나 狀態變動에 있지 않고, 그 結果인 狀態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의 한 傍證은 例文(47')의 兩義性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主語인 '가이'의 出發地點이 집이라면, 話者가 어디를 가 보았느냐에 따라 이 文은 상이한 두 개의 意味를 갖게 된다. 그가 만일 집에 가 보았다면, 이 文은 '집에 그 애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고, 그가 학교에 가 보았다면, '그 애가 학교에 있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동일한 動作이 그 結果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빚는다. 話者가 意識한 內容이 그 主語의 '간다'는 動作에 重點이 있다면 이러한 模糊性은 들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3.4.3 形態素 '-더-'는 위에서 논의한 바 있는 樣態要素 '-크-'와도 結合하는 일이 있다. '-크-'는 名詞形態語尾이므로 繫辭가 後行하며, 따라서, '-더-'는 '-라-'로 실현된다. 동일한 樣態範疇의 形態素끼리의 結合이라는 데에서 특히 우리의 注目を 끄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話者의 受容的 意識과 發話가 동시에 일어날 때와 그 두 事態가 時差를 두고 발생할 때를 구분하여 考察해 볼 수 있다.

51) 가이 춤 착혀키여. (그 애 참 착하겠다.)

- 52) 그 승냥 쿠승히키여. (그 승냥 구수하겠다.)
- 53) 가이 하영 배고프키여. (그 애 많이 배고프겠다.)
- 54) 가이도 다친 거 보난 춤 아프키여. (그 애도 다친 걸 보니까 참 아프겠다.)
- 55) 가이도 아방 오난 지쁘키여. (그 애도 아버지가 오니 기쁘겠다.)
- 56) 암만 남제라도 밤이 이디 시민 무스우키여. (암만 남자라도 밤에 여기에 있으면 무섭겠다.)
- 57) a. 가이도 공뽀 잘 허키여. (그 애도 공부 잘 하겠다.)
 b. 느도 공뽀 잘 허키여.
 c. 나도 공뽀 잘 허키여.
- 58) a. 가이도 괴영 허당 매맞이키여. (그애도 그렇게 하다가 매 맞겠다.)
 b. 느도 괴영 허당 매맞이키여.
 c. 나도 괴영 허당 매맞이키여.

形態素 '-크-'의 意味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論議되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2.1.3.1 f). 그러나 우리의 目的을 위하여 잠깐 言及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위의 例文에 있어서 '-크-'에 先行하는 語幹 形態素들은 모두 蓋然的 狀況에 놓여 있는 어떤 狀態 아니면 動作이다. '-크-'의 意味는 이러한 蓋然的인 狀況에서 話者が 갖는 實然化의 確信이다. 그런데, 위의 語幹 形態素들 중에는 話者の 自意性이 그 意味實質으로서 내포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例文 (57c)의 '허-'는 前者에 속하고, 餘他の 것은 後者에 속한다. 다만, (58c)의 '매맞-'은 이런 意味에서 兩義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話者の 受容的 意識과 時差를 두고 發話 할 때에, 위의 例文들은

‘-더-’의 構文으로 變形된다.

51') 가이 춤 착허 크라라.

52') 그 승농 쿠승허크라라.

53') 가이 하영 베고프크라라.

54') 가이도 다친 거 보난 춤 아프크라라.

55') 가이도 아방 오난 지쁘크라라.

56') 암만 남제라도 밤이 이디 시민 므스우크라라.

57') a. 가이도 공뷔 잘 허크라라.

b. 느도 공뷔 잘 허크라라.

c. *나도 공뷔 잘 허크라라.

58') a. 가이도 괴영 허당 매맞이크라라.

b. 느도 괴영 허당 매맞이크라라.

c. 나도 괴영 허당 매맞이크라라. (?)

(57'c)가 非文이 되는 이유는 그 敘述動詞의 語幹形態素 ‘허-’에 話者의 自意性이 그 意味實質으로서 內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의 意識의 한 樣式인 積極的, 生産的 精神活動의 경우에 ‘-더-’의 構文은 非文이 되는데(2.3.3.3 참조), 이 ‘허-’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58'c)의 경우에도, 그 語幹形態素 ‘매맞-’에 話者의 自意가 內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非文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는 適格文이 될 것이다.

(53'-56')의 敘述語에서 形態素 ‘-크-’를 삭제하면, (이 경우에는 ‘-더-’가 ‘-아/어-’로 실현되겠지만) 非文이 된다. 他人의 體性感覺이나 情緒를 話者가 直接 意識할 수 없기 때문이다(2.3.3.1, 2.3.3.2 참조). 그러나, 아무리 他人의 體性感覺 또는 情緒라 할지라도, 話者

는想像을 통하여, 이에 대한 어떤 蓋然的 判斷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蓋然的 狀況에서 實然化的 確信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文例 (53-56) 은 適格文이 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되는 疑問은, 文例 (53-56)이 어떻게 해서 (53'-56')으로 變形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53'-56')이 '-더-'의 構文으로서 적절한 文章이 되는 이유는, 그 敘述語에 '-크-'가 介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問題의 軸점은, 樣態要素 '-크-'의 의미로 지적된 '話者'가 갖는 實然化的 確信'의 '確信'을, 위에서 언급된 意識의 두가지 樣式中,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것인데, 필자가 접할 수 있었던 心理學 著書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쾌한 解明을 얻지 못 하였다. 그러나, 意識의 두 樣式中 受容的 意識을 形態素 '-더-'의 한 意味實質으로 보아 온 지금까지의 論議가 어느정도 妥當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話者의 '確信' 또는 '믿음'을 意識의 또한 樣式인 積極的, 生産的인 精神活動으로 보아야 한다는 決定的인 反應도 얻지 못한 現段階에서는, (53'-56')이 適格文이 되는 이유를, 話者의 '確信' 또는 '믿음'을 그의 受容的 意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데서 구하는 것이 理에 契合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똑같이 形態素 '-더-'의 後接을 不許하는 (57'c)의 語幹 形態素 '허-'와 (53'-56')의 '베고프- . 아프- . 지쁘- . 무습-'이 다 形態素 '-크-'의 後接을 許容하면서도 (57c, 53-56 참조), 그 뒤에 形態素 '-더-'가 오게 되면, 前者인 '허-'의 경우에는 非文이 되고, 後者の 語幹 形態素들에 있어서는 適格文이 되는데, 그 根本的인 原因은 形態素 '-크-'에 있다기 보다 그 語幹 形態素들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主語의 人稱도 관련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前者의 '허-'는 비록 '-크-'와 결합하더라도 '-더-'의 後接에 있

어서 不適要因이 그냥 존속되지만, 後者の 語幹 形態素들은 '-크-'와 의 結合에서 그러한 要因이 適格要因으로 轉化되었다고 보게 된다. 後者에 있어서, 이러한 要因이 轉化한 事情은 이미 위에서 지적되었다. 前者의 경우, '허-'는 話者의 積極的, 生産的 活動에 속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話者의 自意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록 '-크-'와 結合이 되더라도 그 意味實質은 그대로 存續되어 계속 '-더-' 結合의 不適合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57'c)의 '허-'는 話者 自身の 行動이므로 '-더-'가 結合될 수 없다. '허-'가 語幹으로 存續하는 한, '-더-'의 構文이 適格文이 되기 위해서는 그 主語가 二人稱이나 三人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결합된 樣態要素 '-크-'는 그러한 主語 轉換 (一人稱 → 二·三人稱)의 機能을 擔當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敘述語가 體性感覺이나 情緒를 나타내는 '베고프- 지브-'들의 경우, '-크-'가 결합됨으로써 '話者'의 確信이라는 主語 轉換 (二·三人稱 → 一人稱)이 발생하여, 文 (53'-56')이 適格한 '-더-'의 構文이 되는 것과는 對照的이라 할 것이다.

2.3.5.1 지금까지 우리는 形態素 '-더-'의 意味를 생각해 보았다. '話者의 受容的 意識의 回想'을 그 意味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論議는 사실상 結論 段階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提起될 수 있는 한두 가지 疑念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가 제기하는 첫째 疑問은, 意識의 두 가지 樣式中 하나인 話者의 積極的 精神活動도 그의 意識인 다음에야 그가 回想하지 못할 리가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를 擔當하는 言語形式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 59) a. 가이 밥 먹읍데가? (그 애 밥 먹던가요?)
b. ㅇ, ㄱ싸 먹어라. (그래, 아까 먹더라.)
60) a. 삼춘은 밥 먹읍데가? (삼춘계선 진지 잡수셨습니까?)
b. ㅇ, ㄱ싸 먹과라. (그래, 아까 먹었다.)

(60a)의 主語는 三人稱이 아니라 二人稱이다. 따라서 (60b)의 主語는 一人稱이 된다.⁸⁾ (59a)와 (60a)의 敍述語가 똑같이 '먹읍데가'인데, 그 대답인 (b)에 있어서는 (59)의 경우 '먹어라', (60)의 경우 '먹과라'로 나타난다. 만일 이를 相互 交替한다면 모두 非文이 되고 만다. (59b)는 主語가 三人稱이므로 '먹어라'의 '-어-'를 '話者의 受容의 意識의 回想'의 意味로 해석하는 데에는 疑問이 없을 것이나, (60b)의 '-과-'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主語가 一人稱이므로 '-과-'에 前接하는 語幹形態素 '먹-'은 話者의 積極的 精神活動에 속하는 것으로, '-과-'의 意味는 이러한 話者의 意識의 回想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例文 (11c)(12c)등의 非文도 그 敍述動詞의 先語末語尾 '-아/어'를 '-과-'로 代置할 경우 適格文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⁹⁾

2.3.5.2 의문이 제기될지 모르는 또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2.3.4.2에서 <圖 1>의 時點 (A)와 (B)가 서로 겹쳤을 경우와 서로 떨어졌을 경우를 구분하여 論議한 바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除外된 '-더-'의 構文이 있다.

8) 文例(60ab)의 翻譯文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더-'가 나타나지 않는다.

9) 이 '-과-'는 또 다른 問題를 제기하므로, 다음 章 이후에서 상세하게 論議될 것임.

61) 가이 늑신디 욱 잘 헤어라. (그 이 남한테 욱 잘 하더라.)

62) 가이도 아실 잘 딱려라. (그 예도 동생을 잘 때리더라.)

이 예문은 時點 (A)와 (B)가 분리되어서, 말하자면 話者의 受容的意識과 時差을 두고 發話되는 경우다. 여기서 우리는 話者의 受容的意識과 그 發話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狀況도 想定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의 發話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의 發話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생각할 지도 모른다.

63) 가이 늑신디 욱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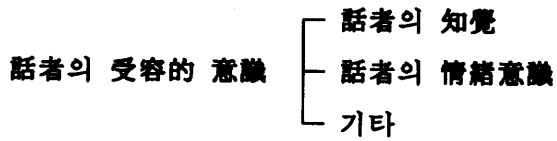
64) 가이도 아실 잘 딱린다.

그러나, 이 예문들은 앞의 (61) (62)의 경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61) (62)의 경우, 話者의 受容的意識이란 具體적으로 話者의 知覺인데, 이러한 知覺은 對象이 일정한 時間과 空間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이'가 욱하거나 때리는 事態가 話者의 感覺領域內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63)(64)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가이'가 욱하거나 때리는 動作은 그의 習慣에 속하는 것으로 일정한 時間과 場所의 制約에서 벗어나 있다(2.2 참조).

2.3.6 우리는 이상에서 形態素 '-더-'의 意味를, 考察하였다. 心理學에서는 人間 意識의 두 가지 基本的 樣式을 구분한다. 그 하나는 受動的, 受容的 狀態이고, 다른 하나는 積極的, 生産的 精神活動이다. '-더-'는 前者의 樣式과 관련된다.

1. 回想法 形態로 취급하여 온 종래의 見解에 대한 懷疑가 이 論議의 전제였다. 이 形態素의 意味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의 回想'으

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타에는 '싸와지-, 울어지-, 먹어지-, 보아지-, 알아지-' 등과 같은 受動的 意味의 語幹形態素들이 포함되었다.

2. '話者の 積極的 精神活動의 回想'의 경우에는 先語末語尾 '-과 -'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상세히 논의된다.

2.4 ‘-과-’와 ‘-노/누-’

2.4.1.1 위의 語尾가 學界에서 本格的으로 學論된 일은, 筆者의 寡聞의 탓인지는 모르나, 아직 없는 것 같다. 李崇寧(1957: §71)에서 平敍法의 ‘-라’와 결합된 ‘-고라’로 소개된 바 있으며, 拙稿 (1983a: 237)에서 소위 回想法語尾 ‘-더-’의 意味的인 對立 形態로 언급되었던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한다(2.3.5.1 참조).

話者에 따라서 간혹 ‘-ㄱ-’ 또는 ‘-고-’로도 任意交替되는 이 先語 末語尾 ‘-과-’는 動詞語幹에 직접 연결되며, 그 뒤에는 平敍法語尾 ‘-라’만이 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1) 나만 뜯어 밥 먹과라. (나만 먼저 밥 먹 -.〃)
- 2) 난 이제사 오과라. (나는 이제야 오 -.)
- 3) 주물아 가니 일을 돈 혜연 오과텐 함명.... (玄容駿, 1983: 30)
(저물어 가니까 일을 모두 하고서 오-라고 하면서....)
- 4) 그이가 ... 그냥 광주 강 살ㄱ텐함여. (玄容駿, 1983: 401) (그
이가 ...그냥 광주 가서 살-라고 하더군.)
- 5) 글공비 갓단 오고텐 함연.... (玄容駿, 1983: 727) (공부하러
갔다가 오-라고 해서....)

-
- 1) ‘-과라’를 어떻게 翻譯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았노라/-
었노라’로 번역하는 것 (李崇寧 1957: §71)이 근사해 보이나,
여기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위의 예 (1-3)에서 우리는 '-과-'를 確認할 수 있고, 文 (4)에서는 '-ㄱ-' , 文 (5)에서는 '-고-'를 確認하게 된다. 예문 (3-5)의 것들은 모두 間接引用文에 나타나 있는데, '-과-, -ㄱ-, -고-'들에 後接된 '-텐'은 主敍法의 '-라'와 引用添辭 '인'이 縮約된 形態이다.

2.4.1.2 주지하는 바와 같이 後期中世國語 資料에서도 先語末語尾로서 '-과-'가 발견된다. 이것도 動詞語幹에 직접으로 연결되며, 뒤에는 主敍法의 '-라'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前者와의 사이에 謙讓法의 '-습-'이, 그리고 後者와의 사이에 恭遜法의 '-이-'가 개입되는 예들이 더러 보이나, 이들 形態가 濟州方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그 分布가 이 方言의 그것과 아주 恰似함을 알 수 있다.

이 中世國語의 '-과-'에 대한 論議도 아직 本格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文法概論書나 敍法에 대한 일반적인 論議들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感想法(意圖法의 一種, 李崇寧 1981: §272), 또는 意圖法 (安秉禧 1967: 215)의 語尾, 意味上 확정법 (기정법)이면서 二・三人稱法의 '-으니-'와 恰을 이루는 一人稱法의 語尾 (허웅 1975: 882), 確認法의 語尾 (高永根 1981: 34-36) 등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동일한 形態素의 意味 把握에 偏差가 너무 현격해 보인다. 이 語尾 (語末의 '-라-'와 결합된 것이지만)에 대한 辭典의 解釋도 각기 달라서, 一人稱下의 感歎法 語尾 '-도다'로 풀이하기도 하고 (劉昌惇 1964), 또 '-았노라/-었노라'로도 풀이하였다. (李熙昇 1982, 南光祐 1975)

起源的으로 同一하였을 이 方言의 '-과-'와 中世國語의 그것이 각기 獨自의인 變化를 입어, 中世國語의 경우는 오늘날 그 자취가 사라졌지만, 이 方言에서는 아직도 存續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方言의 '-과-'에 共通性和 相異性이 共存하고 있

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性質을 統辭·意味論的으로 해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本稿는 濟州方言의 ‘-과-’에 局限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2.4.2.1 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濟州方言의 ‘-과-’는 그 前接要素가 動詞語幹이고, 그 後接要素는 平敍法의 ‘-라’이다. 그런데, 그 動詞語幹은 動作動詞에 국한되는 듯하다.” 文 (1-5)가 그러하며, 가령,

6) a. *그 때 난 못습과라.

b. *나도 그 말 들으난 지쁘과라.

7) a. *그 때 난 느보다 크과라.

b. 나고 고생허멍 크과라. (나도 고생하면서 자라 -.)

이들 예에서 文 (6ab)가 모두 非文이 되는데, 敍述動詞 ‘못습-’ (‘무습-’), ‘지쁘-’ (‘기쁘-’)가 狀態動詞라는 데에 기인되는 것 같다. 文 (7ab)에서 그 敍述語가 공히 ‘크-’인데도 前者가 非文이 되고 後者가 適格文이 되는 것은, 前者의 ‘크-’는 狀態動詞이고, 後者의 ‘크-’는 成長의 意味를 지닌 動作動詞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動作動詞의 경우, 이 語尾 ‘-과-’와의 結合은 자유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뒤에 助動詞 ‘지-’가 오면 ‘-과-’의 結合은 불가능해 진다.

-
- 2) 中世國語에서는 상태동사와의 結合의 例로 ‘비쁘르과이다’ (初老下: 33b), ‘즐겁과라’ (法華 2 : 137b)가 지적되었다. (高永根 1981: 35)

- 8) a. 나도 가이 보과라.
b. *나도 가이 보아 지과라.
9) a. 난 밥 하영 먹과라.
b. *난 밥 하영 먹어 지과라.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助動詞 '지-'가 갖고 있는 意味實質과 有關해 보인다.

2.4.2.2 이 '-과-'의 前接語幹이 動作動詞일 뿐만 아니라, 그 動詞의 主語가 언제나 話者自身이다.

- 10) a. 나도 하영 먹과라.
b. *느도 하영 먹과라.
c. *자이도 하영 먹과라.
11) a. 나 어제 영수 만나과라.
b. *느 어제 영수 만나과라.
c. *자이 어제 영수 만나과라.

文 (10,11)에서 語尾 '-과-'의 前接語幹이 動作動詞인데도 (b,c)가 모두 非文이 되는 것은, 그 主語 '느' ('너')와 '자이' ('저 아이')가 각각 二. 三人稱이기 때문인 듯하다. 文 (10a)와 (11a)가 모두 適格文이 되는 것은 主語가 一人稱명사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 3) '지-'를 助動詞로 보는 것을 宜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 先行動詞와의 結合이 자유스러운 것을 보면, 複合動詞로 보기 보다 助動詞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보아 (見) 지-, 먹어 지-, 울어 지-, 웃어 지-, 들어 (聽) 지-' 등

고 그것이 꼭 人稱代名詞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가령,

- 12) 아방은 점심 먼저 먹과라. 느네만 먹으라. (아빠는 점심 먼저 먹-. 너희만 먹어라.)

文 (12)의 主語인 '아방'은 兩義的인데, 그것이 話者自身이면 適格文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非文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이 語尾 '-과-'는 一人稱의 主語(또는 그 相當語)와 호응하게 된다. 그러나, 一人稱主語라는 것은,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語尾 '-과-'의 出現을 위한 必要條件이지 充分條件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를 一人稱語尾로만 규정해 버릴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2.4.2.3 語尾 '-과-'는 語末語尾 '-라'하고만 결합한다. 이것은 '-과-'가 平敘文에만 나타나고 疑問文에는 나타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疑問文에는 이것에 대응되는 語尾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 13) a. 아버지도 그 사람 만납데가?

b. ㅇ, 만나과라.

- 14) a. 오늘은 무슨 일 험데가?

b. 콩밭디 검질 메과라. (콩밭에 김 메-.)

文(13ab)의 문답에서 (a)의 敘述語 '만납데가'는 '만나-(으)ㅁ-데-가'로 분석이 되는데 '-(으)ㅁ-'이 ㅎ서體의 語尾이므로, 그 (b)의 '만나과라'의 '-과-'에 대응되는 語尾는 '-데-'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文 (14ab)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데-'는 起源的으로

'-더-' + '-이-'이지만, 소위 回想法 '-더-'의 異形態로 처리될 수 있을 것같다(2.3.1.1 참조).

이 '-과-'가 語末의 '-라'하고만 결합한다는 사실은, 또한 그것이 ㅎ라體의 文章에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13, 14)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語尾 '-과-'는 年長者가 年少者에게 말하는 ㅎ라體의 문장에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이다. 理論上으로는 年少者들 상호간의 對話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같이 보인다.

15) a. 느 밥 먹었디아?

b. ㅇ, 먹과라.

16) a. 너 밥 먹었나?

b. 응,, 먹었저.

b'. 응, 먹어서.

문(15a)와 (16b)의 문답은 모두 平待의 그것인데, 그 對話內容이 동일하다. 그러나 本島 靑少年들의 對話에서는 (16)이 일반적이고, (15)는 좀처럼 듣기가 어렵다. 이 語尾 '-과-'는 주로 老年層의 말에서 들어볼 수 있다. 이것은 이 語尾가 머지 않은 장래에 消滅될 것임을 豫告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間接引用文에서는 거의 年齡層에 관계 없이 쓰이고 있다.

17) a. 가이 언제 오과텐 굴아니? (그 애 언제 오-고 말하더냐?)

b. 어제 오과텐 굴아라.

4) 文 (15a)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묻는 말이고, (15b)는 文 (1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묻는 말에 대한 어른들의 대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18) a. 가이 밥 먹과텐 굴아냐?

b. 응, 먹과텐 헤여라.

文(17,18)의 a,b의 問答은 젊은이들의 對話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과-'의 存在가 아직은 確固함을 느끼게 된다. 未久에 이 語尾는 없어지게 될 운명이지만, 間接引用文에서는 상당한 기간 殘存하게 될지 모른다.

2.4.2.4 이상에서 우리는 語尾 '-과-'의 出現과 관계되는 몇 가지 事實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要約하여 보면,

첫째, 이 語尾는 動作動詞의 語幹하고만 결합하고,

둘째, 그 敘述語의 主語는 意味上 반드시 話者自身이어야 하며,

셋째, 이 語尾에 後行하는 語末語尾는 '-라'인데, 이것은 呼拉體의 平敘法語尾이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特徵的 事實들이 이 語尾自體의 本性和 어떻게 關聯되어 있으며, 도대체 이 語尾의 正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2.4.3.1 '-과-'의 出現을 위해서는 그 文章의 主語가 話者 自身이고, 그 敘述語가 動作動詞라야 한다고 하는 말은, 곧, 이 '-과-'가 話者の 情報獲得樣式과 有關한 것임을 暗示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文(14ab)를 상기해 볼 필요를 느낀다. 文(14a)의 敘述語 '헛대가'의 '-데-'는 '-더-'의 變異形態로서 文(14b)의 敘述語 '매과라'의 '-과-'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더-'는 話者の 情報獲得

樣式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回想法의 '-더-'에 대하여는 줄고(1983a)에서 이미 論議된 바 있으나(2.3 참조), 問題의 '-과-'가 話者의 情報獲得樣式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話者가 어떤 事實을 陳述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情報을 남에게 提供하는 行爲가 된다. 이 경우 話者는 우선 그 情報의 所有者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가 그 情報을 어떻게 獲得하느냐 하는 것이다.

情報을 어떻게 獲得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情報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情報는 대체로 두 가지 類型으로 크게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特定한 時間과 場所에서 일어나는 事件에 관한 情報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정한 時間이나 場所라는 特定脈絡을 超越한 事實이나 規則들에 관한 情報이다. '너는 그때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前者의 情報을 요구하는 것이고, '해는 어느 쪽에서 뜨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後者の 情報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前者는 外界에 具體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知覺이 可能한 반면에, 後者は 抽象的 普遍的인 一般原理에 속하는 것으로 思惟作用의 所産이다. 그러나, 後者は 前者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情報는 後者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情報는 具體적인 狀況 속에서 우리가 자주 目擊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論議의 便宜을 위하여 前者를 '脈絡的 情報', 그리고 後者를 '超脈絡的 情報'라 하기로 한다.⁵⁾

- 5) 이러한 區分은 認知心理學의 支持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Wessells (1984:331f)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체로 揮話的 知識(episodic knowledge)과 意味的 知識(semantic knowledge)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前者는 脈絡的

그런데, 이러한, 脈絡 속의 具體的 情報과 超脈絡의 一般原理的 情報의 區分은, 이 方言의 言語資料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可能한 듯하다(2.2, 2.3 참조). 가령,

- 19) 가인 ㄱ싸 집더래 가아라.
- 20) 만길인 ㄱ싸 아시영 싸왓서라.
- 21) 가인 창수네 집이 잘 간다.
- 22) 만길인 아시영 주주 싸운다.

에서, 文(19,20)의 敘述語 '가아라'와 '싸왓서라'는 각각 '가-아-라', '싸오-앗시-어-라'로 분석할 수 있는데, 先語末語尾 '-아-'와 '-어-'는 形態素 '-더-'의 變異形態이다. 文(21,22)의 '간다', '싸운다'는 각각 '가-ㄴ-다', '싸우-ㄴ-다'로 또한 분석이 가능한데, 여기 '-ㄴ-'은 形態素 '-느-'의 變異形態이다. 形態素 '-더-'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을 하나의 意味實質로 하는데, 그 意識의 典型은 知覺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形態素 '-느-'는 話者의 判斷의 한 樣式인 '實然判斷'을 그 意味實質로 갖고 있다.

文(19)는 '가이'('그 애')가 'ㄱ싸'('아까') '집더래'('집으로')가 는 것을 話者가 目擊(知覺)하고서 그것을 陳述하는 것이고, 文(20)은 '만길이'가 아까 '아시영'('아우랑') 싸우고 있는 것을 目擊하고, 이 사실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가이'와 '만길'의 行動은 特定한 時間과 特定한 場所(이것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 情報은 話者가 知覺함으로써 얻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들의 行動은 脈絡的 情報인데, 이것은 話者의 知覺(受容的 意

情報과, 그리고 後者는 超脈絡的 情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識)을 통하여 얻게 된다. 이와같이, 脈絡的 情報은 語尾 '-더-'와 有關한 것이다.

한편, 文(21)은 '가이'가 '창수네 집'에 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음을 話者가 判斷한 것이고, 文(22)도 '만길'이 아우랑 싸우는 것이 그의 버릇이라는 話者 自身の 判斷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가이'와 '만길'의 行動은 外的인 狀況에 具體的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話者가 이 情報을 얻기 위하여 知覺作用을 할 수는 없다. 話者는 오로지 思惟를 통하여 動作主의 그러한 行動이 그의 特性化된 習慣임을 判斷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判斷 내지 思惟의 根據는 話者가 獲得한 脈絡的 情報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行動은 超脈絡的 情報로서 話者는 이것을 外部에서 受容한 것이 아니라, 그의 内部에서 얻은 것이다. 이 超脈絡的 情報은 語尾 '-느-'와 有關함을 알 수 있다.⁶⁾

2.4.3.2 지금까지 우리는 情報의 두 가지 유형인 脈絡的 情報과 超脈絡的 情報을 疎略하게나마 살펴본 셈인데, 우리의 關心은 後者보다는 前者에 있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脈絡的 情報은 超脈絡的인 情報와는 달리 주로 知覺을 통하여 獲得하게 된다. 그러나 脈絡的인 모든 情報가 다 知覺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23.a) 창순 집더래 가아라. (창수는 집으로 가더라.)

- 6) 모든 超脈絡的 情報가 다 '-느-'하고만 관계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러한 情報은 話者의 推測등으로도 存在하므로 어미 '-크-'나, '-을 거' 등과도 관계된다. (2.1.3.1 - 2.1.3.3 참조)

- b) 느도 집더래 가아라. (너도 집으로 가더라.)
- c) *나도 집더래 가아라.
- 24. a) 창순 어제 장의 가서라. (창순 어제 장에 갔더라.)
- b) 느도 어제 장의 가서라.
- c) *나도 어제 장의 가서라.

이들 예문에서 (23)의 '가아라'는 '가-아-라'로 분석되고, (24)의 '가서라'는 '가-아시-어-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의 '-아/어-'는 이른바 回想法 形態素 '-더-'의 變異形態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더-'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 (知覺도 여기에 포함됨)을 하나의 意味實質로 갖고 있다. 따라서, (23)의 '가아라'는 '가는 것을 話者가 目擊했다'는 뜻이 되고, (24)의 '가서라'는 '가 있는 것을 話者가 目擊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23c)와 (24c)가 非文으로 나타나는 것이 注目된다. '창수'가 집으로 가는 사실이나, 그가 장에 가 있다는 사실은 脈絡的 情報임이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집으로 가는 일이나, 장에 가 있다는 것도 똑같이 脈絡的 情報인 것이다. 위에서도 살폈던 바와 같이, 이러한 脈絡的 情報은 우리의 受容的 意識에 의하여 獲得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回想法의 '-아/어-'를 期待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事實을 文 (23ab)와 文 (24ab)에서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3c)와 (24c)가 非文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가 집으로 가는 行動이나, '내'가 장에 가는 사실이 脈絡的 情報임이 확실하고, 또 위의 '-아/어-'의 意味實質이 '話者의 受容的 意識'임이 분명하다면, 이 問題에 대한 解決方法은, '脈絡的 情報라고 모두 話者의 受容的 意識에 의하여 獲得되는 것은 아니라'고 想定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말하자면, 脈絡的 情報 가운데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

에 의하여 獲得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23c)와 (24c)가 非文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집으로 가는 行動이나, '내'가 장에 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話者)의 受容的 意識에 의하여 獲得되는 것이 아닌 때문이라고 解釋하게 된다.

여기서 몇가지 疑問이 제기된다.

첫째, 脈絡的 情報은 話者의 受容的 意識에 의하여 獲得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가?

둘째, 話者의 受容的 意識에 의하여 獲得될 수 없는 脈絡的 情報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째, 話者는 자기의 受容的 意識에 의하여 獲得할 수 없는 情報를 어떻게 獲得하는가?

네째, 話者는 이런 情報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文 (23, 24)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脈絡的 情報은 그 주체가 話者 自身일 때에는 그의 受容的 意識에 의하여 獲得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充分한 條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때에 敘述動詞가 반드시 動作動詞라야 한다.

25) 난 느보다 커라. (나는 너보다 크다.)

26) 나도 배고파라. (...배고프더라.)

27) *난 밥 먹어라. (...먹더라.)

28) *난 오늘 일 해여라. (...일하더라.)

(25-28)의 情報은 모두 脈絡的인 것들이고, 또 그 主語가 모두 一人稱인데도, (25, 26)은 適格文이 되고 (27, 28)은 非文이 되는 이유는 敘述動詞가 前者의 경우에는 狀態動詞이고, 後者의 경우에는 動作動詞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主語가 一人稱이고 敘述動詞가 動作動詞일때, 脈絡的 情報은 話者의 受容的 意識으로 獲得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더-'의 構文은 非文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條件이 語尾 '-과-'의 出現條件에 부합된다는 事實이다(2.4.2.1, 2.4.2.2 참조).

甲이 길을 가다가 乙을 만났다. 이 光景을 丙이 目擊하였다. 話者가 丙일 때에는 '甲이 乙을 만나라.'('甲이 乙을 만나더라.')라고 말하게 되고, 甲이 話者일 때에는 '나가 乙을 만나과라.'라고 말하게 된다. 만일 話者가 丙일 때에 '*甲이 乙을 만나과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話者가 甲일 때에 '*나가 乙을 만나더라.'도 非文이 된다. '甲이 乙을 만난다.'는 同一한 情報가 話者 丙에게는 受容的 意識이 되지만, 話者가 行動主인 甲 自身일 때에는, 그가 바로 情報源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知覺하기 以前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自己 行動에 대한 意識은, 受動的·受容的 意識이 아니라, 能動的·積極的 意識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話者가 갖는 이러한 積極的 意識이 바로 '-과-'의 意味實質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語尾 '-더-'와 '-과-'의 意味差異는 脈絡的 情報의 어떤 類型에 起因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情報의 話者에 따른 意識의 樣式에 起因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話者에 따른 意識의 樣式'이란 말은 '話者의 受容的 意識'과 '話者의 積極的 意識'을 말하는 것으로, 前者는 '-더-'의 意味實質, 後者는 '-과-'의 意味實質이 되는 것이다.

'話者의 積極的 意識'이란, 話者가 計劃을 세우고 目標을 指向하여 나아가는 意識으로서, '話者의 受動的·受容的 意識'과는 概念上 分明히 區別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 두 意識 사이의 區別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一直線上的 兩極端을 이루는 것으로, 그 中間의 인 段階를 排除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령, 이 方言을 전연 모르는 사

맡아계.

29) 나도 느네 성한티 맞()라.

30) 나도 울()라.

31) 나도 웃()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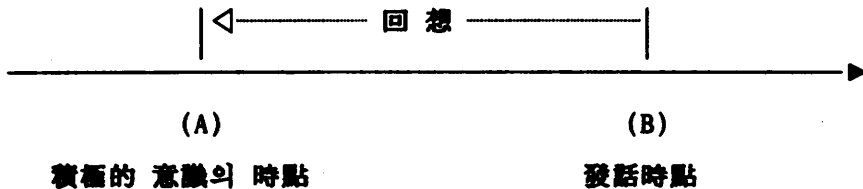
(29-31)과 같은 例文을 제시하고, ()속에 '-과-'나 '-더-'중 어느 하나를 넣어 適格文을 만들라고 요구했을 때, 위에서와 같은 '-과-', '-더-'의 意味實質에 대한 說明만을 듣고 자신있게 ()를 채울 수 있을까? 話者인 내가 누구에게 맞는 일이나, 또는 웃고 우는 일이 분명히 意識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受容的 意識에 속하는 것인지, 積極的 意識에 속하는 것인지 일론 判斷이 서지 않는다. 물론, 이들 例文의 主語가 一人稱이고, 그 敘述動詞가 動作動詞이므로, 우리는 자신하고 '-과-'를 선택함으로써 適格文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과-'의 意味實質로서의 '話者の 積極的 意識'이 그리 精緻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단계로서는 그대로 수용해 두기로 한다.⁷⁾

2.4.4.1 지금까지 우리는 先語素語尾 '-과-'의 特性을 統辭的·意味적인 側面에서 考察해본 셈이다. 이 語尾는 主語가 一人稱이고 敘述動詞가 動作動詞일때 나타나며, 그 意味實質은 '話者の 積極的 意識'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語尾의 意味가 이것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 語尾가 갖는 또 하나의 意味實質로는 '話者の 回想'을 들 수가 있다. 흔히 語尾 '-더-'를 回想法語尾라고 하지만, 이

7) 心理學에서도, 意識의 두가지 樣式을 受動的, 受容的인 것과 積極的인 것으로 나누지만, 이 兩者 사이의 區分이 그리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Hilgard, 洪大植역 1984:207)

‘-과-’도 똑같은 理由에서 回想法語尾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더-’가 갖는 意味實質이 ‘回想’의 意味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回想法語尾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도 똑 같은 理由에서 回想法語尾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結論부터 말하면, 이 語尾가 갖는 진정한 意味는 ‘話者의 積極的 意識의 回想’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立場이다.

여기서 말하는 回想이란 두개의 時點을 前提로 한다.



< 圖 1 >

하나는 ‘話者의 積極的 意識’의 時點이고, 다른 하나는 發話時點이다. 여기서 發話時點은 현재이고 積極的 意識의 時點은 과거가 되는데, <圖 1>의 경우, 時點 (B)에서 時點 (A)의 ‘話者의 積極的 意識’을 回想하여 말할 때, ‘-과-’의 構文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時點 (A)가 ‘話者의 受容的 意識’일 때 時點 (B)에서 時點 (A)의 話者의 受容的 意識을 回想하여 말함으로써 ‘-더-’의 構文이 성립되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2.3.4.2 참조).

- 32) a. 나 7싸 창수 보과라.
b. 가이 갯갯더래 가아라.

發話時點인 現在에서 '나'는 'ㄱ싸' ('아까') 일어난 두가지 意識을 回想하고 있는데, 하나는 '창수'를 본다는 積極的 意識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갯갯더래' ('바닷가로') 가는 情報을 受容하는 意識이다.

2.4.4.2 語尾 '-과-'의 意味를 '話者의 積極的 意識의 回想'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課題가 두 가지 나타난다.⁸⁾ 그 하나는 時點 (A)와 (B)가 포개졌을 경우, 즉 積極的 意識과 동시에 發話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A)와 (B)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즉 話者의 積極的 意識과 發話가 時差를 두고 일어나는 경우이다.

後者の 경우와 관련지워서 다음과 같은 例文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33) a. 난 오늘 검질 메과라. (나는 오늘 김 메-.)
 b. 활망은(당신은) 오늘 검질 메과텐 ㄱ라라. (...말하더라.)
 34) a. 난 오늘 검질 메엇저.
 b. 영숙인 (이녀은) 오늘 검질 메과텐 ㄱ라라.

文 (33a)와 (34a)는 똑 같은 意味內容인데, 話者에 따라 前者는 '메과라', 後者는 '메엇저'로 표현되었다.⁹⁾ (33a)는 주로 年老層에서 흔히 들어 볼 수 있는 말이고, (34a)는 주로 젊은 層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33a)와 (34a)에서 '-과-' . '-엇-'¹⁰⁾, '-라' . '-저'가 각각 對應되고 있는데, 後者보다 先語末語尾인 前者가 우리의 關心의 對象이

8) '-더-'의 경우에 대해서는 2.3.4.2 참조.

9) 이러한 차이는 話者의 年齡層에 따른 것이다. (2.4.2.3 참조)

10) 先語末語尾 '-앗/엇-'은 '-아시/어시-'등과 함께 相形態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後述. 줄고 (1987) 참조.

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34a)의 경우도 間接引用文이 될 때에는 '-엇-'이 '-과-'로 交替된다는 것이다. (33a)의 話者가 '할망'(할머니)일 때에, 그 間接引用文은 (33b)이고, (34a)의 話者가 '영숙이'일 때에 그 間接引用文은 (34b)가 된다. 이들 例文의 '당신'과 '이녀'은, 再歸代名詞로서 '할망'이나 '영숙이'와 각각 동일인이 되거나, 아니면, 人稱代名詞로서 전혀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文 (33b)와 (34b)의 文脈으로 봐서 前者만이 可能하고, 後者는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둘 다 '-과-'의 構文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33)의 (a)(b)는 모두 '-과-'의 구문인데, (34)의 (a)(b)는 하나는 '-엇-', 하나는 '-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現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추측하건대, 語尾 '-과-'가 語尾 '-엇-'에 驅逐되는 現象이 아닌가 한다. 文 (33)이 老年層의 말이고 (34)가 젊은 階層의 말이고 보면, 지금부터 2·30년 전이나, 3·40년 전에 지금의 젊은 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의 老年層은 아주 젊었을 그때에는, (34a)와 같은 發話는 전혀 없었고, 間接引用文이든 아니든 간에 (33ab)에서와 같이, 모두 '-과-'의 構文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던 것이 時間이 가고 時代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世代가 등장하게 되자, 二·三人稱主語 構文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相範疇의 形態들이 間接引用文이 아닌 一般構文에서 이 語尾 '-과-'를 驅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間接引用文에 등장하는 形態가 古形이고 기타 일반구

11) (33a)의 '할망은'이나 (34b)의 '이녀은'이, 설명 省略된다 하더라도, 省略되기 前과 意味가 마찬가지다.

12) 왜 하필이면 相範疇의 形態들인 '-앗/엇-'들에 의하여 交替되는지는 疑問이 생긴다. 이 方言의 活用體系 全體에 대한 理解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술 참조.

문에 등장하는 것은 新形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推測을 뒷받침해 주는 國語資料를 찾아볼 수 있다. 現代 中央語의 경우, 命令法語尾는 '-으라'와 '-아/어라' 두 가지가 있는데, 前者는 間接引用文에 나타나고, 後者는 直接引用文이나, 非引用의 構文에 나타난다. 國語史는 前者가 後者보다 時代的으로 先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積極的 意識의 時點과 發話時點이 동일한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發話가 일어나는가? 다음과 같은 例文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35) a. 난 집더래 가누라.

b. 할망은 (당신은) 집더래 가누텐 7라라.

36) a. 난 집더래 감چه.

b. 영숙인 (이녀은) 집더래 가누텐 7라라.

文 (35a)에서 '가누라'의 '-누-'가 주목된다. 이 語尾는 主語가 一人稱이고 敘述動詞가 動作動詞일 때에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語尾 '-과-'의 出現條件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가 相形態 '-앗/엇-'들에 의하여 驅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누-'도 역시 相形態 '-암/엄'들에 의하여 驅逐되고 있어서, 그 운명도 비슷하다. (35a)는 老年層의 말이고 (36a)는 젊은이들의 말인데, 그 意味內容은 같다. (36a)의 '감چه'는 '가-암ㅅ-거'로 분석되므로, (35a)의 語尾 '-누-'에 對應되는 形態는 '-암ㅅ-'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암ㅅ-'이 (36b)의 間接引用文에서는 '-누-'로 돌아가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예문 (34a)의 語尾 '-엇-'이 (34b)의 間接引用文에서 '-과-'로 돌아가는 現象과 平行的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

였던 '-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선 時代에는, 文 (35ab)에서와 같이 間接引用文이든 아니든 모두 '-누-'構文만이 있었던 것인데, 時代의 변천에 따라, 相範囑의 形態들이 間接引用文이 아닌 一般構文에서 이 語尾 '-누-'를 驅逐하고 새로 登場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間接引用文에 나타나는 '-누-'가 古形이고, 一般構文의 것은 新形으로 보게 된다.

2.4.5 이상에서 우리는 濟州方言의 先語末語尾 '-과-'의 正體把握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1. 語尾 '-과-'는 그 先行要素가 動詞語幹이며 後行要素는 語末語尾 '-라'뿐이다. 반드시 主語가 一人稱이고 敘述動詞가 動作動詞일 때만 나타난다.

2. 語尾 '-과-'의 意味는 情報 獲得의 樣式과 有關하다. 情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超脈絡的 情報이고, 다른 하나는 脈絡的 情報이다. 前者는 주로 語尾 '-느-'와 관계되고, 後者는 주로 語尾 '-더-'와 관계된다. 後者인 脈絡的 情報의 獲得은 우리의 意識과 관계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樣式이 있다. 하나는 受容的 意識이고, 다른 하나는 積極的 意識이다. 前者는 '-더-'와 有關하고, 後者는 語尾 '-과-'와 관계된다. 말하자면, 話者의 積極的 意識을 '-과-'가 하나의 意味實質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語尾 '-과-'가 갖는 또 하나의 意味實質은 話者의 回想이다. 따라서, '話者의 積極的 意識의 回想'을 語尾 '-과-'의 意味로 보게 된다.

4. 語尾 '-과-'가 '話者의 回想'을 한 意味實質로 갖는다고 할 때에, 그 積極的 意識의 時點과 發話時가 想定된다. 이 두 時點이 時

13) 화자에 따라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노/누-'로 실현된다.

차가 있을 때 回想이 이루어지고, '-과-'構文도 성립된다. 여기에 한 가지 疑問이 제기 되는데, 그렇다면 두 時點이 일치될 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경우 語尾 '-노/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 語尾 '-노/누-'도 '-과-'와 마찬가지로 그 先行要素가 動詞語幹이며 後行要素는 語末語尾 '-라'뿐이다. 主語가 一人稱이고 그 敘述動詞가 動作動詞일때 나타난다는 점도 '-과-'와 동일하다.

6. 語尾 '-과-'와 '-노/누-'는 공히 특히 젊은 世代의 發話에서 相範疇의 形態들에 의하여 驅逐되고 있다. 그러나 間接引用文에서는 健在해 있음을 본다.

7. 왜 하필이면 相形態들에 의하여 語尾 '-과-'와 '-노/누-'가 驅逐되는지 그 원인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8. 語尾 '-과-'가 갖는 意味實質인 '話者의 積極的 意識'이라는 것과 '話者의 意圖'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相範疇

3.0 序論에서 ‘-음’·‘-암/엄-’·‘-암시/엄시-’, ‘-안/언-’·‘-아시/어시-’·‘-대-’ 등의 형태가 相範疇의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 형태의 의미가 밝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相範疇에 해당됨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의 중심 과제가 된다. 종래에는 이것들을 時制 내지는 相의 형태로 파악되었었다. 여기서도 상의 형태로 파악되지만 그 의미 내용이 동일하는 않다.

동일한 문맥 속에서 임의로 교체되는 두 형태의 의미가 동일하다거나, 또는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그 分布가 相補的인 두 형태는 동일형태소로 볼수 있다고 할 때에, ‘-음’·‘-암/엄-’·‘-암시/엄시-’와 ‘-안/언-’·‘-아시/어시-’·‘-대-’는 각각 單一形態素의 異形態로 보아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론에서는 전자를 제일류, 후자를 제이류라 하여 相範疇의 下位分類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그 의미파악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제일류에서 가장 생산적인 형태는 ‘-암/엄-’·‘-암시/엄시-’이고, 제이류의 그것은 ‘-안/언-’·‘-아시/어시-’이다. 3.1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意味·統辭的인 고찰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방언의 相的 特性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제주방언의 상범주의 전반적인 체계 파악은 3.2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는 양태범주와의 친근성도 드러날 것이다.

3.1 代表的인 相形態

3.1.1.1 이 方言의 先語末語尾 가운데에 相範疇를 담당하는 形態들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李崇寧 (1957)은 이 方言에 대한 全面的인 考察을 한 最初의 業績이지만, 특히 相範疇에 대하여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 論議가 時相(tense-aspect)的인 것이어서 相(aspect) 單一的 解釋을 시도하는 우리와는 다소 다르지만, 이 方言의 相에 대한 分명한 指摘은 看過할 수 없다.

玄平孝(1974)에 이르러 이 方言의 相範疇¹⁾는 본격적으로 論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論調가 모두 妥當하다고 여겨지진 않지만,²⁾ 종래에 時制 (小倉進平, 1931; 金榮教, 1956-57) 내지 時相的인 範疇로 把握되어 온 形態들을 오로지 相 單一 範疇로 把握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한다.

3.1.1.2 그러나, 이 分野에 대한 지금까지의 論議들을 돌이켜볼 때, 아직도 그 初期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相範疇에 드는 것으로 보이는 形態들 중에는 아직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相形態로 인정되는 것들조차도 그 形態分析이 論議 水準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本稿는 특히 後者를 중심으로 하여 論議될 것이다. 이것은 拙稿 (1976)가 안고 있는 未盡했던 생각

1) 玄平孝(1974)는 Aktionsart의 概念을 따르고 있다. 用語에 대한 檢討는 Comrie(1976: 6-7 註)와, 그리고 그의 意見에 全적으로 同意하는 것은 아니지만 Lyons(1977: 705-506) 참조.

2) 玄平孝(1974)의 相形態素 分析에 대한 다른 見解는 拙稿 (1976) 참조.

에 대한 反省의 意圖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相形態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들의 形態·統辭的 分布와 그 意味들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3.1.2.1 이 方言의 相形態로 지적되는 것들 가운데에 先語末語尾 '-암/엄-'이 있다.

- 1) 느 어디 감디? (너 어디 가-?)
- 2) 느 집이 감디아? (너 집에 가-?)
- 3) 느 무시거 먹엄디? (너 무엇 먹-?)
- 4) 느 밥 먹엄디아? (너 밥 먹-?)

이 '-암/엄-'의 先接形態는 다른 相形態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動詞 語幹이지만, 이들의 後接形態는 반드시 '-디, -디아'라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디, -디아'는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主語가 二人稱인 呼拉體의 疑問法 語尾이다. '-디'와 '-디아'의 交替는 疑問法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 說明疑問에 '-디', 判定疑問에 '-디아'가 나타난다 (拙稿, 1975: 165-169).

이 '-암/엄-'의 '-디, -디아'와의 結束은 확고한 것이어서 좀처럼 離脫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암/엄-'의 實現條件도 그것과 同一하다 할 수 있다.⁴⁾ 말하자면, 이 先語末語尾 '-암/엄-'도, 첫째, 主語가 二人

- 3) 標準語로의 翻譯이 잘 되지 않는다. '-고 있-'으로 翻譯하여 무방한 경우가 많긴 하나, 文 (9)와 같은 것은 오히려 '-ㄴ / 는-'으로의 翻譯이 더 적합하다.
- 4) 理論적으로 보면 그 逆方向의 解釋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나, 이러한 疑問은 본고의 論議過程에서 해소될 것이다. 가령 相形

稱이고, 둘째, 恭遜法이 ㅎ라體이며, 셋째, 文章의 종류가 疑問文일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文(1-4)의 相的 狀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의 條件들만을 달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相形態들이 主語의 人稱과 恭遜法, 敍法들의 制約을 받는 것이라면 이러한 質問은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먼저 이 중에서 어느 한 條件만 달리할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세 條件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5) 자이 어디 감시니? (저에 어디 가-?)
- 6) 나 무시거 먹엄시니?
- 7) 지 어디 감서?
- 8) 삼춘 (二人稱)은 어디 감수과?
- 9) 느 밥 잘 먹엄꺼.
- 10) 느 밥 먹엄시라.

이 例文들 (5-10)의 相的 狀況은 文(1-4)의 그것과 같다. 文(5)는 文(1)의 主語를 人稱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文(6)은 文(3)의 主語만 一人稱으로 바뀐 것이데,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할 지 모르나, 이러한 狀況이 없는 것도 아니다. 文(7,8)은 文(1)의 恭遜法 等級만 ㅎ어體, ㅎ서體로 바뀐 곳이고, 文(9,10)은 文(4)의 疑問法을 平敍法과 命令法으로 바뀌어 본 것이다. 文(9)의 '잘'은 문장의 어색함을 덜기 위하여 삽입했다.

그런데, 같은 相的 狀況의 實現樣相이 위의 '-암/엄-'과 다름을 본

態 '-안/언-'도 그 出現條件이 '-암/엄-'의 그것과 같은데, 이것도 이 形態들이 語尾 '-디, -디아'하고만 결합하는 데에서 起因된다.

다. 文(6)의 '떡엄시니'와 文(10)의 '떡엄시라'를 비교하면, 이것들은 각각 '떡-엄시-니'와 '떡-엄시-라'로 분석할 수 있다. 文(5)의 '감시니'는 '가-암시-니'로 분석될 것이다. 이 때의 '-암시/엄시-'를 '-암/엄-'과 더불어 單一形態素의 相異한 實現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암시/엄시-'의 '시'는 원래 語幹形態素 '이시/시-'(有)였던 것으로, 文法形態에 녹아 들어 온 뒤에도 그 본래의 特性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語幹形態 '이시/시-'의 交替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다.

- 11) a. 느네 아방 이시냐? (너희 아버지 계시냐?)
b. 느네 아방 시냐?
- 12) a. 느탕 이디 이시라. (너는 여기 있어라.)
b. 느탕 이디 시라.

한편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는 制約을 받아, '이시-'의 경우에는 '잇-'으로 나타나지만, '시-'의 경우는 實現이 불가능하다.

- 13) a. 느네 아방 잇고?
b. *느네 아방 시고?

이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語幹末의 'ㅣ'母音脫落이 義務的이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北濟州郡地域方言에서는 文(13b)의 경우 '잇고'로 나타난다. (김완진, 1975: 8f)

'-암시/엄시-'의 '시'의 경우도 後接語尾의 制約을 받아서, 뒤에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가 오면 '시',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가 오

면 母音 'ㅣ'가 탈락되어 'ㅅ'만 남는다. 文 (10,12)의 命令法語尾 '-으라'나, 文 (5,6,11)의 疑問法語尾 '-으니', '-으냐'들이 모두 母音系인 것이다.

文(9)의 '먹엄저'는 '먹-엄시-저'로 분석된다(拙稿, 1976: 526 註6). 子音系語尾 '-저-'앞에서 '시'의 'ㅣ'母音이 탈락된 현상인데, 語幹形態 '시-'에서 'ㅣ'母音脫落이 불가능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子音系語尾 '-구냥'의 경우도 보면,

14) 이거 나 책이로구냥. (이거 내 책이로구나.)

15) 자인 이제사 밥 먹엄구냥. (저 애는 이제야 밥 먹고 있구나.)

文 (14)와 (15)의 비교에서 '먹엄구냥'이 '먹-엄ㅅ-구냥'으로 분석될 수 있다. 위의 平敍法의 '-저'와 同音異意語的인 '意圖'의 '-저'가 있다.

16) 느랑 춘춘이 오라. 나랑 몬저 감시저.⁵⁾ (너는 천천히 오나라. 나

는 먼저 가고 있겠다.)

이 때의 '감시저'는 물론 '가-암시-저'로 분석될 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감켜'로도 나타나 '가-암ㅅ-저'의 分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子音系語尾 앞에서의 '시'의 母音脫落이 必然義務的인 것이냐 하는 데에 疑念을 품게도 되지만, 相形態素 把握이 主課業인 本稿로서는 일단 論外로 한다. 다만, 文(15)의 '먹엄구냥'이 '*먹

5) 이 때의 '-저'도 子音系語尾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암시-'의 'ㅣ'가 脫落되지 않은 것은 疑問으로 남는다.

일시구낭'으로 나타난다든지, 文 (9)의 '먹엄꺼'가 '먹엄시저'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文 (7,8)의 '감서'와 '감수파'는 각각 '가-암시-어'와 '가-암시-우-파'로 분석된다. ㅎ어體의 平敍法語尾로는 繫辭의 경우 '-라'와 動詞의 경우 '-아/어'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疑問法語尾로도 쓰이지만, 특히 '-아/어'는 命令法語尾로도 나타난다.

17) 가인 요새 밥 하영 먹어. (그 이는 요새 밥 많이 먹네.)

18) 가인 요새 밥 하영 먹어 ?

19) 출된 건 엇주마는 하영 먹어 ! (차된건 없지마는 많이 먹게 나!)

(7)의 '가-암시-어'의 '-어'는 바로 (18)의 '먹어'의 그것과 같다. '감서'는 '가-암시-어'→'가-암서'→'감서'의 過程을 밟아 나타난 것이다.

ㅎ서體의 경우에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20) 이건 자이 책이우파 ? (책입니까)

21) 이건 자이 책이우다. (책입니다)

'-우-'는 ㅎ서體의 形態이고, '-파'는 그 疑問法의 語尾이다. (8)의 '가-암시-우-파'의 '우-파'이다. '감수파'는 '가-암시-우-파'→'감슈파'→'감수파'의 過程을 밟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엄-'의 3가지 條件 (즉, 二人稱主語, ㅎ라體, 疑問法)을 把握하고, 이 중 어느 한 條件이 달라질 경우, '-암/엄-'이 나타내는 相對 狀況이 어떻게 表現되는가를 고찰한 셈이다. 이 때의

形態는 '-암시/엄시-', '-암ㅅ/엄ㅅ-'임을 확인하였다. 後者는 語末의 '-저'와 결합될 경우 '-암ㅈ/엄ㅈ'로 表記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위의 '-암/엄-'의 3 가지 條件 중에서 둘 이상을 달리 했을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22) 지도 이젠 늙엄서. (자네도 이젠 늙어가고 있네.)

23) 삼춘(2人稱)은 먼저 밥 먹엄ㅅ서 !

24) 자인 이제사 밥 먹엄ㅈ.

25) 나 먼저 밥 먹엄ㅈ.

26) 자이 어디 감서 ?

27) 가이 그디서 무시거 해엄수과 ?

28) 난 집이 감서.

29) 자인 이제사 밥 먹엄수다.

文 (22-27)는 어느 한 條件만을 그대로 고정해 두고, 다른 두 條件을 달리하여 본 것인데, 文(22, 23)은 二人稱主語가, 文 (24, 25)는 ㅎ라體가, 그리고 文 (26, 27)는 疑問法이 고정된 것이다. 文 (28, 29)는 세 條件을 다 달리해 본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암시/엄시-'가 분석될 수 있다. 다만, 文 (23)의 '먹엄ㅅ서'는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가령, "삼춘은 먼저 밥 먹읍서 !"의 '먹읍서'와 비교해 보면, '먹-엄ㅅ-읍서'로 분석됨을 알 수 있다. 이 '-읍ㅅ'는 다시 '-읍-서'로의 분석이 가능한데, 전자는 ㅎ서體의 語尾, 그리고 후자는 命令法語尾이다.

'-암/엄-'으로 실현되는 形態素를 잠정적으로 α 라고 한다면, 이 α 는 主語가 二人稱인 ㅎ라體의 疑問文에서는 '-암/엄-', 그리고 餘他的 統辭論的 條件에서는 '-암시/엄시-'로 실현된다. 이들 形態는 音

韻論的 制約도 받아서, 先接하는 語幹 母音의 性質에 따라 '아/어'의 交替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後者의 경우 後接하는 語尾가 子音系이면 末母音 'ㅣ'가 탈락되었다. 이것은 語幹形態素 '이시-'(有)의 屬性이었다.

3.1.2.2 앞에서 論議한 α 와는 다른 또하나의 相的 形態素는 '-안/언-'으로 실현된다.

- 30) 느 어디 잔디? (너 어디 잤니?)
- 31) 느 난간에서 잔디아? (너 빗마루에서 잤니?)
- 32) 느 누겔 뜯런디? (너 누굴 때렸니?)
- 33) 느가 아실 뜯런디아? (내가 아우를 때렸니?)

이 形態도 '-암/엄-'과 마찬가지로 主語가 二人稱인 ㅎ라體의 疑問法語尾 '-디, -디아'하고만 共起하므로, 그 特性이 그대로 '-안/언-'의 實現條件이 된다. 말하자면, 先語末語尾 '-안/언-'은 主語가 二人稱이고 恭遜法이 ㅎ라體인 疑問文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 形態素도 위의 條件을 달리하였을 때에, 역시 相異한 實現樣相을 보인다.

- 34) 느 참 잘 굴았저. (너 참 잘 말했다.)
- 35) 느 식은 밥이라도 먹어시라! (*너 찬 밥이라도 먹었어라!)*⁶⁾

6) '-아시/어시-'가 標準語의 '-았/었-'과 用法上 비슷해 보이나, 命令法語尾를 後接할 수 있다는 점에서 標準語의 그것과 다른 면을 보이고 있음이 注目된다. 文(42, 4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6) 진 무시거 먹어서? (자넨 뭐 먹었나?)

37) 삼춘(2人稱)은 무시거 먹음데가 ? (아저씨께서는 무엇을 잡수
셨

옵니까?)

38) 가이 어디 가시니? (그 애 어디 갔니?)

39) 자이 무시거 먹어시니? (저 애 뭐 먹었니?)

文 (34-39)는 위의 '-안/언-'의 相的 狀況과 같다. 다만, '-안/언-'의 세 條件 중 한 가지씩만 달리해 본 것이다. 文 (34, 35)는 飯法만을 달리하여, 疑問法을 平飯法(34)과 命令法(35)으로 바꾼 것이고, 文 (36, 37)은 恭遜法만을 달리하여, 허라體를 허여體(36)와 흥서體(37)로, 그리고 文 (38, 39)는 主語를 三人稱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이들 例文의 飯述語들에서 '-아시/어시-' 또는 '-앗/엇-'을 분석해내는 일은, 앞에서 행한 '-암시/엄시-', '-암ㅅ/엄ㅅ-'의 그것을 回想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文(37)의 '먹음데가'의 경우가 심상치 않다. 理論적으로는 '먹어수파'가 기대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될 경우 아무래도 어색하다. '먹음데가'는 '먹-음-데-가'로 분석되는데, 이 때의 '-데-'는 원래 回想法의 意味로 把握되었던 것이다(2.3.1.1 참조). 그러나 여기서는 '-아시/어시-'들과 同一한 意味를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위에서 우리는 '-안/언-'이 實現되는 세 條件 중 어느 한 條件만을 달리했을 경우, '-아시/어시-', '-앗/엇-'과, 아주 特異하게는 '-데-'가 분석되어 나타남을 보았다. 이들 條件 중 둘 이상을 달리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樣相이 드러난다.

40) 지도 이젠 늙어서. (자네도 이젠 늙었네.)

- 41) 삼촌(二人稱)도 이젠 늙어수다. (아저씨께서도 이젠 늙으셨 습니다.)
- 42) 지탕 먼저 가서! (자네는 먼저 가-)
- 43) 삼촌이탕 먼저 가십서! (아저씨께서는 먼저 가-.)
- 44) 난 먼저 밥 먹었저. (나는 먼저 밥 먹었다.)
- 45) 가인 흑게 갖저. (그 애는 학교 갔다.)
- 46) 자인 무시거 먹어서? (저 애는 무어 먹었는가?)
- 47) 자인 무시거 먹어수과? (저 애는 무어 먹었습니까?)
- 48) 난 먼저 밥 먹어서. (나는 먼저 밥 먹었네.)
- 49) 자이도 먼저 밥 먹어수다. (저 애도 먼저 밥 먹었습니다.)

문 (40-43)은 主語가 二人稱이라는 條件만을 고정하고 다른 두 條件을 변경해 본 것으로, 文 (40)은 ㅎ어體의 平敘法, 文(41)은 ㅎ서體의 平敘法 문장이고, 文 (42)는 ㅎ어體의 命令法, 文 (43)은 ㅎ서體의 命令法 문장이다. 文 (44,45)는 恭遜法의 ㅎ라體만 고정하고 主語의 人稱과 敘法을 달리한 것이다. 文 (44)는 主語가 一人稱인 平敘法, 文(45)는 主語가 三人稱인 平敘法 문장이다. 命令法이 성립되지 않음은 主語의 人稱으로 보아 당연하다. 文 (46,47)은 疑問法만 고정 한 것으로, 文 (46)은 三人稱 ㅎ라體, 文 (47)은 三人稱 ㅎ서體의 예 이다. 文(48, 49)는 상술한 세 條件을 모두 달리해 본 것인데, 主語가 一, 또는 三人稱인 ㅎ어體 또는 ㅎ서體의 平敘文들이다.

이상의 예(40-49)들을 살펴볼 때에 ‘-아시/어시-’와 ‘-앗/엇-’을 분석해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 의를 환기해 둘 것은 文 (47)이다. 위에서 살핀 文(37)과 비교해보 면, 主語의 人稱에 차이가 있을 뿐이나, 敘述語 構成이 상당히 다르 다. 이 경우에 ‘먹음데가’로 交替되어도 무방하긴 하지만, 意味가 동

일한 것은 아니다. (2.3.1.1 참조)

‘-안/언-’으로 실현되는 形態素를 잠정적으로 β 라고 한다면, 이 β 는 主語가 二人稱인 ㅎ라體의 疑問文에서 ‘-안/언-’으로, 그리고 餘他の 統辭的 條件에서는 ‘-아시/어시-’로 나타나는데, 특히 後者の 경우 後接語尾가 子音系이면 末母音 ‘ㅣ’가 탈락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α 의 경우와 平行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主語가 二人稱인 ㅎ서體의 疑問文에서 ‘-데-’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할 뿐이다.

앞으로, 위에서 고찰했던 形態素 α 의 基本形을 ‘암시’로, 그리고 形態素 β 의 기본형을 ‘아시’로 잡고자 한다.

3.1.2.3 두 개의 形態가 意味上 同一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점은 틀림 없다 할 때에, 이들 形態의 分布가 相補的이면 單一形態素의 異形態들임을 우리는 일단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암/엄-’, ‘-암시/엄시-’ (또는 ‘-암ㅅ/엄ㅅ-’)와, ‘-안/언-’, ‘-아시/어시-’ (또는 ‘-앗/앗-’), ‘-데-’들은 각각 同一形態素의 異形態들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러한 우리들의 見解를 반대하고, 가령 ‘-암/엄-’과 ‘-암시/엄시-’가 각기 다른 形態素이고, ‘-안/언-’과 ‘-아시/어시-’가 다른 形態素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의 疑問은 풀 길이 없다.

7) ‘-암시/엄시-’가 ‘-암/엄-’의 環境에 나타나는 수가 있다.

는 어디 살암시니?

고성 살암수다.

느도 이 동네 살암시냐?

예, 이 동네 살암수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살암디’, ‘살암디아’ 아니면, ‘살구’, ‘살과’가 보다 일반적이다. ‘-암시/엄시-’의 勢力이, 制約을 심히 받고 있는 ‘-암/엄-’보다 강해서, 그 領域을 넘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拙稿, 1975: 177-183)

- 50) a. 는 무시거 먹엌디?
b. 진 무시거 먹엌서?
c. 삼춘(二人稱)은 무시거 먹엌수과?
51) a. 는 무시거 먹엌디?
b. 진 무시거 먹어서?
c. 삼춘(二人稱)은 무시거 먹음데가?

文 (50, 51)은 각각 義理法 等分の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같은 문장이라는 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터인데, 만일 文 (50)에서 '-엌-'과 '-엌시-'의 意味가 다르고, 文 (51)에서 '-언-'과 '-어시-', '-데-'

의 意味가 다르다면, 이들의 意味上 差異는 무엇인가? '-데-'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回想法의 形態로도 把握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이다.

3.1.3.1 우리는 지금까지 '-암/엄-'과 '-암시/엄시-'(또는 '-암ㅅ/엄ㅅ-'), 그리고, '-안/언-'과 '-아시/어시-'(또는 '앗/엇-')이 각각 單一形態素임을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논의는 이것들이 相形態라는 假定下에서 출발되었음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들 形態의 意味를 把握해 봄으로써, 그 單一性を 解明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前提的 假說을 입증해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위에서 제시된 例文들 가운데에는 標準語로의 翻譯이 잘 안되는 것이 있었다. 例文 (1-29)들은 대부분 '-고 있다'로 翻譯이 가능할 듯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自動的인 것만은 아니다. 例文(30-49)들은 '-앗/엇-'으로 翻譯됨직하지만 文 (35, 42, 43)들에서는 전혀 翻譯이

될 수 없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52) 자인 책 익엄쎌. (저 애는 책 읽고 있다.)
- 53) 그 사람은 애기 보암수다. (그 사람은 애 보고 있습니다.)
- 54) 자인 낭기 올람쎌. (저 애는 나무에 오르고 있다.)
- 55) 아버지가 집이서 지드렘수다.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 56) 빨래 (서답) 잘 몰람수다. (빨래 잘 마르고 있습니다.)
- 57) 느 무사 가일 뜰디? (너 왜 그 열 때리고 있니?)

이들 例文에서는 '-암/엄-', '-암시/엄시-'가 모두 '-고 있-'로 翻譯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 58) 자인 새 옷 입엄쎌. (저 애는 새 옷 입고 있다.)
- 59) 느네 아신 새 신 신엄쎌. (너의 아우는 새 신 신고 있다.)
- 60) 느네 어명은 짐 지엄쎌. (너의 어머니는 짐을 지고 있다.)

이들 例文에서 翻譯文의 '-고 있-'은 進行과 狀態⁸⁾를 나타내는 데

- 8) 油谷幸利(1978)에 의하면, '-고 있-'은 進行相과 結果狀態相이라는 두가지 相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전자는 相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 a. 최 동원이는 잠옷을 입고 누웠다.
- a'. 최 동원이는 잠옷을 입고 있다.
- b. 병주는 빨간 구두를 신고 앉았다.
- b'. 병주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있다'는 '누웠다', '앉았다'와 마찬가지로 本動詞다.

에 반하여 이 方言의 '-암ㅅ/엄ㅅ-'은 모두 進行의 意味만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다.

61) 이디 신 돈 나 아삼쨌. (여기 있는 돈 내가 갖-.)

62) 주는 돈이난 말암쨌. (주는 돈이니까 말-.)

이들 例文의 敘述語를 만일 '갖고 있다', '말고 있다'(여기서는 '말-'보다 '받-'으로 翻譯하는 것이 더 가까운 듯함)로 翻譯한다면 전연 다른 뜻이 되고 만다. '앗암쨌', '말암쨌'는 動作을 나타내는 데에 반해 '갖고 있다', '말고 있다'는 狀態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 方言에 가까운 翻譯을 시도한다면 '갖는다', '받는다'가 될 것이다.

같은 動詞라 할지라도 文脈에 따라 '-고 있-'으로 翻譯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63) 그 사름 저디 감쨌. (그 사람 저기 가고 있다.)

64) 그 사름 채에서 느림쨌. (그 사람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여기서 '감쨌', '느림쨌'는 '가고 있다', '내리고 있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行動의 進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65) 난 먼저 (몬여) 감쨌. (*나는 먼저 가고 있다.)

66) 난 먼저 (몬여) 느림쨌. (*나는 먼저 내리고 있다.)

의 경우는, '가는' 行動을 하면서, 또는 배나 차에서 '내리는' 行動을

하면서 發話한 것인데, '-고 있다'로의 翻譯은 어색하다. 굳이 翻譯을 한다면, '간다', '내린다'가 되겠지만 意味가 같지 않다.

'-고 있다'로의 翻譯이 안 되기는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7) 나 먼저 누웠찌. (*나 먼저 눕고 있다.)

68) 나 이디 앉았찌. (*나 여기 앉고 있다.)

69) 멍질이 브디엄찌. (*멍질이 가깝고 있다.)

70) 방이 돛암시나 보라. (*방이 따뜻하고 있는지 보아라.)

文(67,68)의 翻譯에서 '눕고 있다', '앉고 있다'는 '누워 있다', '앉아 있다'로 할 경우 意味가 통하겠지만, '누웠찌', '앉았찌'와는 意味가 상당히 멀어지게 된다. 전자인 '누워 있다'등은 狀態를 나타내지 마는, 후자인 '누웠찌'등은 그 狀態에 이르는 動作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굳이 翻譯을 한다면 '눕는다', '앉는다'로 할 수밖에 없는데, 意味가 동일하지 않다. 文(69,70)의 '브디엄찌'와 '돛암시나'는 각각 '가까와지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는지'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 翻譯이 될 것이다.*

이상의 例文(52-70)을 살펴볼 때, 文(69,70)과 같은 특이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고 있다' 또는 '-ㄴ다'로 翻譯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意味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9) 狀態動詞의 경우 '-암시-'는 狀態의 持續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이 방 참 돛암수다.”

따라서, 文(70)이 狀態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은 文脈的인 影響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줄고, 1976: 例文 38, 39 참조)

- 10) 이 方言의 '-암시-'를 '-고 있-' 또는 '-ㄴ /는-'으로 翻譯한 예는 李崇寧(1957: §57)에서도 볼 수 있다.

3.1.3.2 한편, '-아시/어시-'의 경우는 대부분 '-았/었-'으로 翻譯될 수 있었다. 그러나 文(35, 42, 43)의 '먹어시라', '가서', '가십시오'는 翻譯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命令形인데, 標準語에서 '-았/었-' 다음에 命令形語尾 '-아라/어라'가 붙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方言의 '-아시/어시-'가 '-았/었-'으로 翻譯이 된다고 하더라도, 意味의 同一性은 보장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文(35, 42, 43)의 것들을 억지로 翻譯한다면 '먹어 있어라', '가 있게나', '가 계십시오' 꼴이 될 법한데, '먹어 있어라'는 말도 되지 않으며, '가 있게나', '가 계십시오'가 말이 되긴 하지만, 意味가 달라지고 만다. 이러한 翻譯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더 적합할 것이다.

71) 지랑 먼저 강 이서! (자네는 먼저 가 있게나!)

72) 삼춘이랑 먼저 강 이십시오! (아저씨는 먼저 가 계십시오!)

이와 같이 '-암시/엄시-'나 '-아시/어시-'는 標準語에서 그 對當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事實은 이들 形態素들에 대한 意味把握이 그 自體 獨自의인 作業이라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3.1.4.1 最近에 와서 國語의 相範疇에 대한 研究는 특히 標準語의 경우에 두드러진데, 動詞語幹의 意味實質을 相의 意味領域에 관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공통된 樣相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本稿는, 종래에 이 方言의 相(aspect)形態 (또는 Aktionsart 形態)로 指目되어 온 敍上の 形態들에 대하여, 그 意味를 把握함으로써 相의 文法範疇를 확인하려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입장을 달리한다. 따라서, 動詞의 語幹形態들에서는 이러한 作業에 필요한 道具的 機能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에서,

73) 자이 춤 잘 추엄수다.

74) 이 방 춤 dot암수다.

文(73)의 '추엄수다' (←추-엄시-우-다)는 動作의 進行樣相을, 그리고 文(74)의 'dot암수다' (←dot-암시-우-다)는 어떤 靜的인 狀態를 나타낸다 하여, 前者를 進行相이라 한다면, 後者를 狀態相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動詞語幹의 語彙的 意味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語幹形態의 意味를 제거한 純正한 '암시'의 意味가 우리의 關心의 對象이 된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分析해 내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3.1.4.2 우리가 形態素 '암시'의 意味를 把握하기 위하여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質問인 것 같다. 가령, 다음과 같은 例文에서,

75) 만길인 흑게 감쳐.

76) 만길인 흑게 갖저.

敘述語 '감쳐'와 '갖저'의 차이는 '암시'와 '아시'의 그것인데, '갖저'에는 어떤 完了의 意味가 있어 보이고, '감쳐'에는 完了되지 않은 動作의 意味가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총리에는 '아시'는 動作 (또는 狀態의 變化)이 完了된 形態를 나타내고, '암시'는 未完了의 動作을 나타내는 形態素로 把握해 온 것 같다¹¹⁾(拙稿, 1976: 531-533). 사실

11) 玄平孝(1974)에서는 '암시'의 意味를 '動作의 未完了의 狀態가

대부분의 語幹形態素들에서 이러한 區分은 꽤 有效히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例에서는 事情이 다르다.

77) 요세엔 날씨가 돛암찌.

78) 가이도 그건 알암찌.

이 例文의 '돛암찌'와 '알암찌'는 결코 어떤 未完了의 意味를 나타낸다고 보기가 어렵다.¹²⁾ '암시'의 意味를 把握함에 있어서, 이러한 資料를 度外視하고 敍上の 定義에 執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암시'의 意味把握에 있어서, 우리가 범한 根本的 過誤는 그것을 '아시'의 意味에 對比시켜 考察한 데에 있지 아니한가 한다. '아시'의 意味를 '動作의 完了된 狀態'로 把握하고 나서, 그것에 對立되는 概念으로 '未完了'를 想定하고, 이를 '암시'의 意味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形態素 把握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對比시켜 보는 作業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암시'의 意味把握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을 수용한 것은 (그것을 의식했든 못 했든 간에) 무리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다만 그 對比의 軸으로 '아시'를 선택한 데에서, 우리가 바라는 意味가 浮現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存續되어 나감'으로, 그리고 '아시'의 意味를 '動作의 完了된 狀態가 存續되어 나가고 있는 樣相'으로 파악하였다.

'.....狀態가 存續되어 나감'이라는 句節이 더 붙었다는 差異는 있으나 '암시'와 '아시'의 意味를 相互對比하는 觀點에서 파악하려고 한 點은 拙稿 (1976)의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다.

- 12) 拙稿(1976)는 이러한 點을 重視하여 敍上の '암시'와 意味가 다른 또하나의 形態素 '암시'를 設定한 바 있으나, 說得力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암시'의 對比의 軸으로 '아시' 대신 形態素 '느'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論議되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2.2.4.2, 2.2.4.3 參照). 다만 우리의 目的을 위하여 잠시 言及하기로 한다.

이 形態素는 標準語의 '느'와 기원적으로 동일하였을 것이나, 形態와 分布, 意味 面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形態素의 異形態는 '-느'와 '-ㄴ-' 등이 있는데, 전자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느냐'), 그리고 후자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 나타난다 ('-ㄴ다'). 動作動詞은 물론, 狀態動詞하고도 결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對象에 대하여 判斷을 할 때에는, 이미 얻은 經驗을 비롯한 여러가지 心的 要因이 作用하는데, 이 경우 判斷作用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蓋然判斷으로 이것은 'ㄹ'에 의하여 표현된다. 다른 하나는 蓋然的 狀況에서의 實然化의 確信인데, 이것은 '크'에 의하여 표현되며(2.1.3.2, 2.1.3.3 참조), 그리고 또 實然的 判斷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느'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와같이 判斷의 質로 보면 서로 對立되어 있으나, 이들 形態素는 모두 어떤 事實에 대한 判斷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는 點에서 共通的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이 갖는 또 하나의 共通的 特徵은 눈 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分명한 事實의 敘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고 있는 '창수'를 보고 "창순 흑게 갈 거여."나, "창순 흑게 가키여."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순 흑게 간다."라고도 하지 않는다. '창수'가 학교에 가는 것이 明白한 事實이므로, '갈 거여'나 '가키여'는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간다'가 不可能할 理由는 없어 보인다. 사실, 標準語의 경우에는 아주 適格한 表現이 된다.

‘느’의 用法은 여기에서 이 方言과 標準語의 分岐點을 만난 셈인데, 이 方言에서는 이 경우에 “창순 흑게 감켜.”가 알맞은 表現이다.¹³⁾

그러면, ‘느’와 ‘암시’의 根本的 差異는 무엇인가? 具體的인 場面을 생각해 보자. 수영코치가 학생들에게 水泳法을 가르치고 있다.

물 속이 들어가민. (물 속에 들어가면.)

79) 팔은 이영 늘린다. (팔은 이렇게 늘린다.)

80) 목은 영 든다. (목은 이렇게 쳐든다.)

81) 다린 이추록 움직인다. (다리는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말하면서 水泳方法을 설명한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학생들은 물속에 들어가 실제로 演習을 한다. 이 때에 학생들이 수영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2) 만영인 팔을 이추록 늘림켜. (만영인 팔을 이렇게 늘리고 있다.)

83) 정석인 목을 아니 들엄켜. (정석인 목을 아니 든다.)

84) 영숙인 다릴 우상하게 움직엄켜. (영숙인 다릴 이상하게 움직인다.)

만일 우리가 文(79-81)의 ‘늘린다’, ‘든다’, ‘움직인다’를 文(82-84)의 ‘늘림켜’, ‘들엄켜’, ‘움직엄켜’로 각기 차례대로 代替할 경우, 모두 不適當한 表現이 된다. 그 逆일 경우에도 순수한 濟州方言에서는

13) 이 方言에서도 改新派의 영향으로 일부 젊은 層에서는 ‘느’가 사용되고 있으나, 5, 60代 이상의 老年層에서는 ‘암시’가 일반적이다.

適合하지 않다.

文(79-81)과 文(82-84)를 차례로 비교할 때에 統辭構造上 相異한 面이 있기는 하나, '암시'가 전자에 不可能하고 '느'가 후자에 不適合한것은 窮極的으로 이 두 形態素의 意味差異에 起因되는 것으로 보인다. 文(79-81)은 水泳法에 대한 설명으로서, 觀念的이고 抽象的인 原理의 陳述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話者의 內面世界의 陳述인 데에 반하여, 文(82-84)는 外界에 나타난 情報의 陳述이다. 이것은 어떤 特定한 時間的·空間的 狀況 속에 實演된 세계이다. 물론 言語로 表現된 이상 아무리 客觀世界라 하더라도 話者의 內面化는 不可避한 것이며, 더 根本的으로는 客觀世界라는 것도 認識主觀의 投影이라는 前提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外界情報의 受容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內面世界의 敘述인 文(79-81)의 狀況과 스스로 구별된다.

動詞語幹 '놀리-', '들-', '움직이-'들이 '느'와 結合됨으로써 抽象的이고 一般的인 原理가 浮刻되는 것은, '느'가 判斷의 樣相을 나타내는 形態素이고, 또 判斷이 곧 抽象的 思惟作用의 所産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는 느낌이 든다. 反面에 이들 動詞語幹이 '암시'와 結合할 경우에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 動作이 客觀世界에 具體的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암시'의 作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特定한 時間的 空間的 狀況 속에 어떤 動作이나 狀態를 實演하는 性質을 '實演性'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實演性을 '암시'의 意味로 볼 수 있지 아니한가 한다.

동일한 動詞語幹이 '느'와 결합되면 一般的 原理가 드러나고, '암시'와 결합되면 具體的 狀況이 實演된다는 事實은, 標準語와는 달리가 方言의 特異한 現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85) 철순 바당에 감چه.

86) 철순 바닷에 주주 감쳐.

87) 철순 바닷에 주주 간다.

文(85)는 '철수'가 바다에 가는 것을 보면서 發話한 것인데, '감쳐'는 일반적으로 '간다'로 交替되지 않는다. 文(86)의 경우는 '철수'가 바다에 가는 것을 몇 차례 目擊하고서야 가능한 發話이다. 文(87)은 '철수'가 바다에 자주 다니는 것을 익히 알고서 話者는 그의 行動에 대하여 實然的 判斷을 한 것이다. 文(85, 86)의 경우는 '철수'의 個別的인 行動을 把握하는 感覺的 知覺을 나타내고 있고, 文(87)은 '철수'의 行動에 대한 普遍的인 把握을 指示하고 있다. 認識에 있어서 전자는 受容的 多樣性的 側面이라면, 후자는 能動的 統一化的 側面이라고 할 수 있다. 話者는 전자의 경우 知覺作用을 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思惟作用을 하였다. 知人度로 보면 文(87)의 話者가 文(85, 86)의 話者보다 훨씬 높다 할 것이다.

'암시'와 '느'의 이러한 相異點은 狀態動詞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88) 이 방 촌 듯암쳐.

89) 이 방 듯나.

文(89)가 話者의 思惟內容의 陳述이라면, 文(88)은 그의 知覺內容의 陳述이다. 전자는 '이 방'의 溫度에 대한 普遍的 性向의 把握이고, 후자는 '이 방'의 어느 특정한 狀況을 把握한 것이다. 이 例文이 主人과 客의 對話라면, 말만 듣고도 文(88)은 客의 發話이고 文(89)는 主人의 發話임을 알 수 있다.

狀態動詞가 客觀世界에 實演되었을 경우에 靜的 狀態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암시'가 狀態動詞와 결합할 경우에는 靜的 狀態만이 아니라 狀態의 어떤 變化를 나타내기도 한다. "방이 돛암시나 보라."와 같은 경우에는 '돛아 감시나'로 표현하여 狀態의 變化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靜的 狀態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 狀態의 變化를 나타내느냐는 文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같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암시'와 '느'의 差異는 드러난다.

90) 가이도 이녀이 잘못헌 증은 알암께.

91) 가이도 이녀이 잘못헌 증은 안다.

'가이'가 자기 잘못을 안다는 點에서는 文(90)이나 文(91)이 모두 같으나, 전자의 경우는 個別的이고 具體的인 앞이고, 후자는 一般的 抽象的인 앞이다. 전자에서 話者는 主語인 '가이'가 자기 잘못을 아는 具體的인 事實을 知覺한 경우인 데 반하여, 후자에서는 話者가 主語인 '가이'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을 여러 번 目擊했던 經驗을 土臺로 하여 思惟한 結果 내린 判斷의 陳述이다. 文(90)에서 話者는 行爲者의 個別的 行動을 아는 데에 반하여 文(91)에서는 話者가 그이 行動에 대하여 普遍的인 把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시'를 '느'와 비교하면서, 그 意味를 考察해 온 셈이다. '암시'의 意味를 '實演性'으로 把握함으로써 종래의 未完了의 意味로 보고 고찰해 온 發話들은 물론, 종래의 觀點으로는 把握되기 어려웠던 '알암께'나 '돛암께'의 경우도 별 무리 없이 해명된다고 믿는다.

3.1.4.3 '암시'와 '느'의 意味的 相異는 形態素 '더'와의 共起與否에 의해서도 確認된다고 본다.

92) 창순 흑게 감서라. (창수는 학교 가고 있더라.)

93) 7판 우리 팬이 이겹서라. (아까는 우리 편이 이기고 있더라.)

文(92)의 '감서라'는 '가-암시-어-라'로, 文(93)의 '이겹서라'는 '이기-엄시-어-라'로 분석되는데, 여기의 '-어-'는 形態素 '더'의 異形態이다. 흔히 回想法 形態로 把握되어 온 이 '더'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을 그 한 意味實質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意識의 典型은 話者의 知覺이라 할 수 있는데, 主語가 二·三人稱 (話者가 아닌 他人)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2.3.2.1 - 2.3.2.3 참조). 그런데 이 '더'가 '느'와는 共起하지 않으면서 '암시'와는 자연스럽게 結合됨이 주목된다. 이것은 분명 '느'의 內的 思惟性和 '암시'의 外的 實演性의 意味實質의 差異에 根本的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와 '더'의 結合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것 같다.

94) 창순 흑게 가서라. (창수는 학교 갔더라.)

95) 우리 팬이 이겨서라. (우리 편이 이겼더라.)

文(94)의 '가서라'는 '가-아시-어-라'로, 그리고 文(95)의 '이겨서라'는 '이기-어시-어-라'로 분석되는데, '아시'가 實演性의 形態素로 把握함으로써 後續하는 '더'와의 結合이 合理的으로 說明된다고 본다. 이들 例文은 모두 話者가 직접으로 知覺한 事實을 진술한 것인데, 文(94)는 兩意性을 지니고 있다. 즉 話者가 '창수'의 집을 가 보았다면, '그가 집에 없었다'는 말이 되고, 또 話者가 학교에 갔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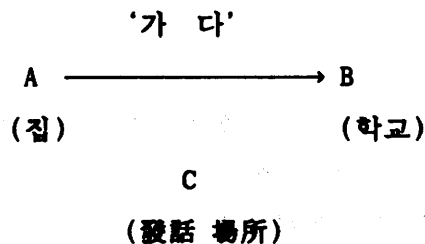
‘그를 학교에서 만났다’는 뜻이 된다. 文 (95)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긴 狀況을 話者가 직접 目擊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文 (94, 95)는 知覺時와 發話時를 달리했을 경우이나, 이 두 時點이 일치하게 되면, 그 發話는 다음과 같아진다.

94') 창순 흑게 갖저.

95') 우리 펜이 이것저.

이들 例文의 ‘-앗/엇-’은 물론 形態素 ‘아시’의 異形態들인데, 이 ‘아시’에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實演性을 그 意味實質로서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客觀世界에 具體적으로 實現되어진 內容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종래에는 ‘動作이 完了된 狀態’라고 把握해 왔다. 사실 文(95, 95')의 意味를 생각할 때에, ‘우리 펜이 이기고 난’ 狀態가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文 (94)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兩意的인데, 文 (94')는 그렇지 않다. 가령,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主語인 ‘창수’가 자기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에 갔다면,



文(94)의 경우는 話者의 知覺 場所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發話場所는 C또는 A일 수는 있으나, B일 수는 없다. 이것은 ‘가다’의

意味 때문이다. 話者의 知覺場所가 A, B 중 어디냐에 따라서 文(94)의 意味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文(94')의 경우에는 知覺場所가 A에 국한되며, 發話場所는 A, C 어디에나 무난하지만, 역시 B일 수는 없다. 文(94, 94')의 差異는 결국 B에서의 話者의 知覺이 가능한지 與否에 달려 있는데, '더'의 意味와 有關하다.

그런데, 知覺場所가 B일 경우 (물론 文(94)에 한하지만)에는 '가는' 動作의 完了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知覺場所가 A일 경우에는 '창수'가 집에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을 뿐, '가는' 動作이 完了되었다는 뜻은 保障하고 있지 않다. 知覺場所가 B일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철수'가 知覺時에 거기에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가는' 動作의 結果的 狀況으로서 '집에는 없고' '학교에는 있게 된' 것이다. 후자의 경우 完了는 剩餘的이라 할 것이다. 文(95, 95')도 우리가 이기고 난 結果的 狀況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形態素 '아시'는 '結果性'을 또 하나의 意味實質로 갖고 있는 것이다.

3.1.4.4 위의 考察에서 우리는 '아시'의 意味實質로 [+實演性]과 [+結果性]을 確認할 수 있었다. 몇 가지 例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96) 자인 문도에 앉았저. (저 에는 출입구에 앉아 있다.)
- 97) 가인 예기 업었저. (그 에는 아기 업고 있다.)
- 98) 이 방 ㄷ았저. (이 방 따뜻했다.)
- 99) 성만인 출 비단 다쳤저. (성만인 풀 베다가 다쳤다.)
- 100) 가인 어제 서울 갔저. (그 에는 어제 서울 갔다.)

文 (96-100)은 모두 知覺作用과 發話가 同時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앗/엇-'이 있다고 어떤 時制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굳이 時制를 말한다면, 現在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剩餘的이다.

文 (96, 97)의 '앗앗저', '업엇저'가 結果的 狀況을 나타내고 있음은 별다른 疑問이 없을 것 같다. 다만, 結果的 狀況이므로 언제나 그 原因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問題로 提起될 것 같다. 文 (96)에서는 '앗는' 動作이, 그리고 文 (97)에서는 '업는' 行爲가 그 原因으로서 前提가 된다. 文 (98)의 'dot엇저'의 경우도 'dot-'(溫)이 흔히 狀態動詞로 지적되는 것이지만, 狀態의 變化¹⁴⁾가 그 원인이 된다(文, 70 참조). 요컨대, 動的 狀況이 그 원인으로 전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文(99)의 '다쳐저'도 마찬가지로 '다치는' 動的 狀況이 전제가 된다. 그것이 言語的으로 實現되느냐의 與否, 즉 "*성만인 출 비단 다쳐저."가 非文이 되는 것과는 無關한 것 같다. 文 (100)의 '갓저'도 '가는' 動的 狀況을 전제로 한 結果的 狀況인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時間의 副詞 '어제'가 '아시'와 전혀 直接的인 關係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시'는 어디까지나 結果的 狀況, 즉 '그 애가 여기 없다'는 意味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제'는 그런 狀況의 前提가 되는 '가는' 動的 狀況의 時間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갓저'는 위에서도 考察한 바와 같이 '가는' 動的 狀況이 完了되었다는 보장도 하지 않는다.

3.1.5.1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形態素 '암시'와 '아시'가 갖는 주된 意味는 '特定한 時間, 特定한 空間에 實演된 狀況'으로 파악

14) 여기서 '動作'이니 '行爲'니 '狀態의 變化'니 하는 用語는 例示的인 것에 불과하다. '흐르다', '끓다' 등도 포함해서 이것들을 모두 '動的 狀況'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Lyons, 1977: 483)

된다. 전자는 動詞語幹 자체의 意味가 實演되는 狀況을 나타내며, 후자는 '動詞語幹의 意味가 實演된 結果的 狀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경우 '結果的 狀況'이라는 것도 물론 특정한 時間·空間에 實演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란 요컨대 特定の 時空에 實演되는 動的인 狀況들과 그 結果的 狀況들이 點綴되어 나타나는 現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現象이 文法的으로 表現된 것이 곧 相인 것이다. 바로 그 動的 狀況의 實演는 '암시'의 기능이고, 그 結果的 狀況의 實演는 '아시'의 기능이다. 그러나 여기서 留意할 점은, 후자의 경우 '아시'의 意味는 '結果的 狀況의 實演'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動的 狀況의 實演이라고 해서 '암시'의 의미를 그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動的 狀況이란 語幹形態素의 意味에 속하므로 결국 '암시'의 意味는 그 語幹의 意味를 實演하는 機能만을 그것의 意味로 보게 된다. 이러한 意味의 特性을 고려하여 '암시'를 '實演相', 그리고 '아시'를 '結果實演相'이라 한 적이 있다 (拙稿, 1987: 206). 지금도 이러한 見解에 異論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從來에 '結果相'이라는 用語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結果實演相'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受容하여 단지 '結果相'이라고만 부르고자 한다.■

3.1.5.2 '實演相'이니 '結果相'이니 하는 用語가 종래의 未完了

- 15) In the perfect of result, a present state is referred to as being the result of some past situation: this is one of the clearest manifestations of the present relevance of a past situation. thus one of the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John has arrived* and *John arrived* is that the former indicates persistence of the result of John's arrival, i.e. that he is still here, whereas the second does not. (Comrie, 1976: 56)

相이니 完了相이니 하던 것과 거리가 있으나, 이 두 形態素의 意味追究過程에서 드러난 論理가 許容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相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

相(aspect)라는 用語가 원래 슬라브系 言語들에서의 perfective와 imperfective의 對立을 지시한 데서 유래된 것이지만,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慣習적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對立들에¹⁶⁾ 擴張되어 상당히 폭넓은 意味領域을 갖게 된 것으로 지적된다. 종래에 完了性의 有無에 의한 對立으로 지적되어 온 資料들이 結果性의 有無에 의한 對立으로 把握되었다고 해서, 전자를 相的 形態素로 보면서, 후자를 이 範疇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암시’와 ‘아시’는 이와 같은 對立을 보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시’를 共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것은 起源의으로 語幹形態素 ‘이시-’(有)였던 것이지만(3.1.2.1 참조), 文法化되어 相範疇에 한 意味實質로 녹아들면서, 形態적으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意味의으로도 달라져서, ‘實演性’의 意味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시-’(有)와 ‘實演性’의 意味的 類似性(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있는 狀況만 實演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狀況도 實演된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물론 發生論的 觀點이다.

3.1.6 이상에서 本稿는 濟州方言의 相的 形態素 ‘암시’와 ‘아시’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1. 形態素 ‘암시’는 主語가 二人稱인 ㅎ라體의 疑問文에서 ‘-암/

16) Lyons(1977:705)는 이러한 對立의 土臺로 duration, instantaneity, frequency, initiation, completion 등의 概念을 지적하고 있다.

엄-', 그리고 餘他的 統辭的 條件에서는 '-암시/엄시-'로 실현된다. 이들 形態는 音韻論的 制約도 받아서 先接語幹의 母音에 따라 '아/어'로 交替됨은 물론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後接語尾가 子音으로 시작되면 末母音 'ㅣ'가 탈락된다. 이것은 語幹形態素 '이시-'의 屬性이다.

形態素 '아시'도 위의 '-암/엄-'과 같은 條件에서 '-안/언-'으로, 그리고 '-암시/엄시-'와 같은 條件에서 '-아시/어시-'로 실현된다. 末母音 'ㅣ'의 脫落現象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主語가 二人稱인 呼서體의 疑問文에서 '-더-'로 실현됨이 特異하다. 이것은 소위 回想法의 形態였다.

2. '암시'는 標準語로는 흔히 '-고 있-' 또는 '-느/ㄴ-'으로 翻譯될 수 있지만, 意味가 동일하달 수는 없다. '아시'는 대체로 '-았/었-'으로 翻譯되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암시', '아시'는 모두 命令法語尾 '-으라'와 結合이 가능하다.

3. 形態素 '암시'와 '아시'는 '實演性'을 意味實質로 갖고 있다. 여기서 '實演'이란 特定の 時間에 客觀世界에 具體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狀況은 知覺이 가능하다.

'암시'와 '아시'는 후자가 '結果性'을 意味實質로 갖고 있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전자와 구별된다.

4. 몇 가지 問題點이 제기될 수 있다. 위에서 지적된 '더'를 단순히 補充法에 의한 形態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이 方言의 相形態素는 이것 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 논의될 것이다.

3. 2 相體系

3.2.1.1 濟州方言의 相形態로는 앞장에서 살핀 바와 같은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 등이 혼히 지적되어 왔다 (玄平孝 1974:11-55, 拙稿 1976, 1987). 이것들이 이 방언의 相形態라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의 意味·統辭的 對立에 의한 복잡한 相體系가 이 形態들만으로 충분히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들 形態만으로는 이 體系에 看過하기 어려운 空白들이 있음을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空白이 어떻게 補充되며, 그 보충되는 形態들은 正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論議의 주된 關心事가 된다. 한편, 이 相體系의 表現을 위해서는 剩餘的이라고 할 수 있는 名詞形의 '옴'과 같은 形態도 있어서 위의 '암/엄', '암시/엄시'와 任意交替되는 현상도 보이므로, 이 방언의 相體系는 자못 복잡한 樣相을 띄고 있다 할 것이다.

3.2.1.2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위에 제시된 形態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들이 나타내는 相體系를 우선 검토하고 난 다음, 둘째, 이것과 名詞形의 '옴'에 의한 體系를 比較考察하고, 셋째, 이들 形態가 담당하지 못하는 空白들은 어떤 形態들에 의하여 補充되고 있으며, 넷째, 여기에 보충되는 形態들은 그 正體가 무엇인지 알아 봄으로써 이 方言의 相範疇의 本質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3.2.2.1 우리는 文法範疇를 意味的으로 關聯되는 形態素들의 集合이라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거기에 포함되는 形態들은

그저 되는 대로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關係를 갖고 어떤 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濟州方言의 相繼時로 흔히 지적되는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들도 서로 無關하게 떨어져 있는 孤立的인 存在가 아니라, 意味·統辭·音韻論的인 관련 아래 體系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體系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意味論的 觀點의 下位類를 '類', 그리고 統辭論的 觀點의 下位類를 '型'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圖表를 작성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類 型 形態 技法			하 라 體		하 여 體		하 서 體	
			疑問	平敍	疑問	平敍	疑問	平敍
I	가	암/엄	2					
	나	암시/엄시	(2)·3	1·3	2·3	1·3	2·3	1·3
II	가	안/언	2					
	나	아시/어시	3	1·3	2·3	1·3	?·3	1·3

1) 1, 2, 3 數字는 人稱을 나타냄.

2) ()는 해당 人稱의 主語와 잘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임.

native speaker들은 이에 대하여 肯定과 否定의 엇갈린 반응을 보임.

< 圖 表 1 >

3.2.2.2 이들 形態는 종래에 時制의 그것으로 認識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가령, 過去時制로 파악되었던 '아시'의 경우를 보면,

1) 창순 어제 서울 갔저.” (창수는 어제 서울 갔다.)

이 例가 분명히 非文은 아니지마는, ‘창수’가 서울 갔다가 와서 話者의 곁에 있다면 適格한 文章이 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 例文의 意味는 “창수가 어제 서울 가서 그 결과 지금 여기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相의 形態로 파악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進行相’이니 ‘完了相’이니 하는 데에는 疑念을 떨칠 수가 없다. 가령,

2) 창순 학교 갔저. (창수는 학교 갔다.)

‘창수’ 친구가 그의 집을 찾아 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2)와 같은 말을 했다 하자. 이 경우, 그 말에는 “창수가 학교에 도착했다.”는 意味가 전혀 없다. 말하자면, 이 말은 ‘간다’는 動作의 完了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이 範疇의 形態들의 주된 의미는 ‘特定한 時間, 特定한 空間에 實演된 狀況’으로 파악된다. 第一類의 것들은 ‘動詞語幹 자체의 意味가 實演되는 狀況’을 나타내며, 第二類의 것들은 ‘動詞語幹의 意味가 實演된 結果的 狀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結果的 狀況’이란 것도 물론 特定한 時間·空間에 實演되는 것이다.

- 1) ‘아시’는 母音系語尾(‘-으나’, ‘-으민’) 앞에서는 ‘-아시/어시-’로 실현되나, 子音系語尾(‘-저’, ‘-고’) 앞에서는 ‘-앗/엇-’으로 실현된다. 상세한 것은 金完鎮(1975:8f)와 拙稿(1987:187-188), 또는 3.1.2.1 참조.
- 2) 젊은 層에서는 흔히 ‘혹게’로 發音하는데, 老年層에서 ‘헝귀’로 發音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

- 3) 자인 무시거 먹엿시니? (저 애는 무엇을 먹고 있니?)
- 4) 자인 밥 먹엿제⁴⁾. (저 애는 밥을 먹고 있다.)
- 5) 자인 밥 먹어시냐? (저 애는 밥 먹었니?)
- 6) 그여, 밥 먹엇저. (그래, 밥 먹었다.)

이들 예에서 文(3,4)의 第一類 形態 ‘엄시, 엄스’은 語幹 ‘먹-’을 實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文(3,4)의 話者가 發話할 때에 ‘자이’는 먹는 行爲를 實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文(5,6)의 第二類 形態 ‘어시, 어스’은 먹는 行爲가 實演된 結果的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文(5)의 경우 話者는 ‘자이’가 밥을 먹고 지금 배가 불러 있는지, 아니면 밥을 먹지 않고 있어서 話者 自身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해야 할 形便에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해, 文(6)의 話者는 ‘자이’가 밥을 먹고서 지금 배가 불러 있을 것이라는 陳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文(5,6)은 ‘자이’가 처한 ‘지금’의 狀況에 대한 對話인 것이다. ‘먹는 行爲’와 ‘그 結果的 狀況’ 중에서 위의 第二類의 主意는 後者の 것으로 파악하려는 立場이다. 이 경우 前者인 ‘먹는 行爲’는 후자에 含意된 原因으로서 副次的인 意味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은 意味的 特性을 고려하여 위의 第一類를 ‘語幹實演相’, 또는 第二類의 의미와 관련을 지워 ‘原因實演相’, 그리고 第二類를 ‘結果實演相’이라 할 만하다. 拙稿(1987:206)에서는 전자를 ‘實演相’, 후자를 ‘結果實演相’이라 한 적도 있으나, 전자인

- 3) 이해를 돕기 위하여 翻譯을 하지마는, 意味의 同一性を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拙稿(1987:194-197) 또는 3.1.3.1과 3.1.3.2 참조.
- 4) ‘먹엿제’는 形態音素論的으로는 ‘먹엄스저’로 표기해야 옳을 것이다. ‘엄스’은 ‘엄시’가 子音系語尾 앞에서 末母音이 脫落된 것임.

‘實演相’과 균형을 고려하여 후자를 다만 ‘結果相’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사실 종래의 ‘結果相’이라는 用語도 여기서 말하는 結果實演相의 意味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敍上の 形態들의 意味에 관한 상세한 論議는 3.1.3.1 - 3.1.5.2 참조)

3.2.3.0 <圖表 1>에서 第一·二類 共に (가)型の 形態에 비하여 (나)型的 그것들이 훨씬 勢力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型은 主語가 二人稱인 ㅎ라體의 疑問文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데에 비하여, (나)型은 (가)型이 나타나는 統辭的 環境을 제외한 ㅎ라體와 ㅎ여體, ㅎ서體의 거의 모든 環境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第一類의 (나)型이 (가)型的 環境에 더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주로 젊은 층의 發話에서)과, 第二類의 (나)型이 ㅎ서體의 疑問文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실은 留意할 필요가 있다.

3.2.3.1 이제 이들 形態의 分布를 그 例文을 통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 7) 는 어드레 감디?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 8) 는 무시거 먹엎디? (너는 무엇을 먹고 있니?)
- 9) 자인 어드레 감시니? (저 애는 어디로 가고 있니?)
- 10) 자인 무시거 먹엎시니? (저 애는 무엇을 먹고 있니?)
- 12) 나 느네 집더레 감췌. (나 너의 집으로 가고 있다.)
- 13) 자인 이제사 밥 먹엎췌. (저 애는 이제야 밥 먹고 있다.)

이 例들은 모두 ㅎ라體의 文章이다. 文 (7,9)의 ‘감디’와 ‘감시니’는 각각 ‘가-암-디’, ‘가-암시-니’로 분석되고, 文(12,13)의 ‘감췌’와

‘떡엄씨’는 각각 ‘가-암사-저’, ‘떡-엄사-저’로 분석된다. (7,9)가 똑같은 疑問文인데도 主語가 二人稱이면 (가)型 ‘암/엄’이, 그리고 三人稱이면 (나)型 ‘암시/엄시’가 나타남을 본다. 만일, 이를 엮바꾸어서 二人稱 主語에 (나)型, 그리고 三人稱 主語에 (가)型으로 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7') 는 어드레 감시니?

9') *자인 어드레 감디?

(7')의 경우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9')의 경우는 전혀 不可能하다. 平敘文인 (12,13)에서는 (나)型이 나타난다. 다만 ‘암시/엄시’의 末母音 ‘ㅣ’가 子音系屬尾 ‘저’ 앞에서 탈락되어 있음이 특이할 뿐이다. 이 경우에도 (나)型은 (가)型으로 잦아드는 일이 없다.

한편 呼여體와 呼서體의 경우에는 平敘文은 물론 疑問文에 있어서도 (가)型이 나타나는 일은 없다.

- 14) 진 어디 살암서? (자네는 어디 살고 있는가?)
- 15) 진 무사 웃엄서? (자넨 왜 웃는가?)
- 16) 자인 어디 살암서? (저 애는 어디 살고 있는가?)
- 17) 자인 무사 웃엄서?
- 18) 나 지네 집더래 감서. (나 자네 집으로 가고 있네.)
- 19) 그 사람은 잘 살암서.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네.)

이들 呼여體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암서’와 ‘-엄서’는 각각 ‘암시-어’, ‘엄시-어’로 분석할 수 있다. ‘암시-어’ > ‘암서’ > ‘암서’와 같은

過程을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 ㅎ라體의 경우와는 달리 (14,15)와 같이 二人稱 疑問文에도 (나)型으로 一貫되어 있음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러한 특징적인 現象은 ㅎ서體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20) 삼촌(2인칭)은 무시거 떡엄수파?

21) 애긴 줌잡수파? (애기는 잠자고 있습니까?)

22) 난 이제사 밥 떡엄수다.

23) 가인 애기영 줌잡수다. (그 애는 애기랑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 例文의 '-암수-'와 '-엄수-'는 각각 '암시-우', '엄시-우'로 分析이 가능하다. 여기서 '우'는 ㅎ서體의 形態인데, 이 경우에도 '암시-우' > '암슈' > '암수'의 過程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ㅎ여體와 ㅎ서體에서는 敍法이나 主語의 人稱에 관계없이 (나)型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런데, ㅎ라體에서는 疑問文에 한하여, 그것도 主語가 二人稱인 경우에만은 (가)型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 (가)型이 나타나는 統辭的 環境에서, (나)型의 形態가 일부의 話者들에게서 制限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은 또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지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

3.2.3.2 第二類도 第一類과 대체로 비슷한 樣相을 보이나, 그렇다고 同一한 것은 아니다.

24) 는 그 때 어디서 살안디? (너는 그 때 어디서 살았니?)

25) 느도 밥 떡연디아? (너도 밥 먹었니?)

26) 자인 누게영 싸와시니? (저 애는 누구랑 싸웠니?)

27) 가이도 밥 먹어시냐?

28) 난 모녀 밥 먹었저. (나는 먼저 밥 먹었다.)

29) 가인 아시영 싸왔저. (그 애는 아우랑 싸웠다.)

하라體의 文들이다. (26)의 '싸와시니'는 '싸오-아시-니'로, 그리고 (28, 29)의 '먹었저'와 '싸왔저'는 각각 '먹-어스-저', '싸오-아스-저'로 分析된다. (24-27)은 모두 疑問文인데, 相形態가 二人稱 主語인 경우 '안/언', 三人稱 主語인 경우 '아시/어시'로 나타남을 본다. 第一類의 '암/엄' 對 '암시/엄시'와 平行的임을 발견할 수 있다.⁵⁾ 그러나 이를 서로 바꾸었을 경우,

25') *느도 밥 먹어시냐?

27') *가이도 밥 먹언디아?

양쪽 다 非文이 되고 만다. (27')에서 三人稱 主語가 (가)型인 '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第一類의 경우 같은 統辭的 條件에서 (가)型이 허락되지 않은 것과 같은 現象이다(文 9' 참조). 그러나 문(25')에서 二人稱 主語가 (나)型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第一類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나)型인 '암시'가 일부 話者들에게서 용인되는 것과 對照的이라 할 것이다(文 7' 참조). 한편, 平敍文인 (28, 29)에는 (나)型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人稱에 관계 없이 (나)型만이 나타난다.⁶⁾

5) '암/엄': '암시/엄시'에 平行的으로, '안/언'에 對立되는 '*안시/*언시'를 기대할 지 모르나, 現實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6) 第一類, 第二類에 관계없이 平敍文에서는 (나)型으로 일관된다.

主語가 二人稱인 경우도 혼하지는 않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

하어體와 흡서體의 경우는 飯法과 主語의 人稱에 관계 없이 (나)型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例外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30) 저사람(二人稱)은 밥 먹어서? (자네는 밥 먹었는가?)

31) 가인 어드레 가서? (그 애는 어디로 갔는가?)

32) 난 점심 벌써 먹어서. (나는 점심 벌써 먹었네.)

33) 그 사람도 살아서. (그 사람도 살았네.)

34) *삼촌(二人稱)은 밥 먹어수파?

35) 가인 밥 먹어수파? (그 애는 밥 먹었습니까?)

36) 난 점심 벌써 먹어수다. (저는 점심 벌써 먹었습니다.)

37) 그 사람도 살아수다.

(30-33)은 하어體, (34-37)은 흡서體의 例들이다. 우리는 이들 예문에서 (나)型의 '아시/어시'를 그리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統辭的 環境에서는 이 (나)型이 절대로 (가)型으로 交替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34)가 非文이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主語가 二人稱인 흡서體의 疑問文에서 (나)型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論議는 뒤로 미루어 둔다. (3.2.5.1 참조)

우리는 지금까지 <圖表1>에 보이는 濟州方言의 相體系를 그 例文을 통하여 고찰해 본 셈이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第一·第二類에 관계없이 (가)型은 主語가 二人稱인 하라體의

다.

는 날 췌겨져. (넌 나를 속이고 있다.)

느도 불었져. (너도 불었다.)

疑問文에 나타나고, 餘他的 統辭的 條件에서는 (나)型이 나타난다.

둘째: 이처럼 (가)型和 (나)型은 그 分布가 排他的이나, 第一類의 경우 話者에 따라서 (가)의 環境에 (나)가 더러 나타나는 일이 있다.

셋째: (나)型이 나타날 것이 期待되는 環境인데도, 第二類의 경우 主語가 二人稱인 複合體의 疑問文에서만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2.3.3 第一類의 (가)(나)型和 第二類의 (가)(나)型이 意味가 각각 같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사실 이들 (가)(나)型들의 意味가 각각 다르다는 主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玄平孝, 1974: 11-55), 또 起源的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共時的으로 그 分布나 用法들을 고찰해 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面을 발견하게 된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이 (가)型和 (나)型은 第一類, 第二類를 막론하고 그 分布가 排他的이라는 사실이다(특히 3.1.2.3 참조). 第一類의 (나)型이 (가)의 環境에 더러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 定着與否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 形態가 사용되는 文脈이다.

창수와 영식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창수 누님을 만났다.

38) 누님: (창수에게) 느 어디 감디?

39) 창수: 흑게 감수다.

40) 누님: (영식이를 가리키며) 자인 어디 감시니?

41) 창수: 가이도 나영 흑게 감수다.

(38)의 主語가 二人稱, (40)의 主語가 三人稱인데, 相의 形態가 前者에는 '암', 後者에는 '암시'로 나타났다. 對話의 場面으로 보아, '누님'의 물음인 (38)과 (40)의 相的 意味가 달라질 수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창수'의 對答에서도 확인된다고 본다. 여기에(39, 41)는 다같이 암시'가 나타나는데, 한 쌍의 質問과 對答에는 原則적으로 같은 相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3.2.4.1 同一한 文脈에서 자유롭게 交替되는 形態들의 意味는 서로 같다고 할 때에, 위에서 고찰한 바 있는 第一類의 形態들과 任意 交替가 가능한 名詞形語尾 '음'이 相形態로 일단 주목을 받게 된다. 例文을 통하여 고찰해 보면,

- 42) a. 는 어드레 감구? (7)
- b. 는 어드레 감이니?
- 43) a. 는 무시거 먹음구? (8)
- b. 는 무시거 먹음이니?
- 44) a. ?자인 무시거 먹음구?
- b. 자인 무시거 먹음이니? (10)
- 45) 나 느네 집더레 감이여. (12)
- 46) 자인 이제사 밥 먹음이여. (13)

이 例들은 ㅎ라體의 疑問文과 平敘文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名詞形의 '음'을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낼 수 있다. 이 예문들이 名詞文이라는 사실은 繫詞 '이'와 疑問添詞 '구'에서 確認할 수 있다." 그런데, 文(42ab)가 文(7)과, 그리고 文(43ab)가 文(8)과 각각 同一文脈에서 任意로 交替할 수 있다. 이것은 名詞形語尾 '음'과 相形態 '암'이 그

- 7) 疑問添詞 '고/구'는 이 方言에서는 名詞文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누게네 물고? (이거 누구네 말이니?)
는 몇살구? (너는 몇 살이니?)

意味가 서로 같다는 것을 前提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것이다. 여기서 二人稱 疑問文인 (42, 43)이 適格文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話者가 동의할 것이나, 그러나, 主語가 三人稱인 文(44)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a)를 適格文으로 보는 이는 드물 것이다. 설명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있게 主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b)의 適格性 與否에 대해서도 엇갈린 대답을 들을 수 있다. 肯定的인 反應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렇다고 그리 親熟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話者들에게는 文(10)의 '먹엄시니', 또는 '먹엄시'가 훨씬 親熟하다.

平敘文(45, 46)이 대부분의 話者들에게 (12, 13)만큼 親熟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45)와 같은 경우를 非文으로 보는 이는 드물 것 같다. 文(46)의 適格性 與否에 대해서는 엇갈린 反應을 보이나 역시 非文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主語가 一人稱인 (45)보다 主語가 三人稱인 (46)에 否定的인 反應이 더 많다는 것은 유의할 만하다.

하어體와 흡서體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한 傾向이 나타난다.

- 47) 진 어디 살이라? (14)
- 48) 진 무사 웃음이라? (15)
- 49) ?자인 어디 살이라? →(16)
- 50) ?자인 무사 웃음이라? →(17)
- 51) 나 지내 집더래 감이라. (18)
- 52) ?그 사람은 잘 살이라. →(19)
- 53) 삼춘(2인칭)은 무시거 먹음이우파? (20)
- 54) ?에긴 좀잠이우파? →(21)
- 55) 난 이제사 밥 먹음이우다. (22)
- 56) ?가인 애기영 좀잠이우다. →(23)

위의 ㅎ여體의 예(47-52)에서, 疑問文(47-50)의 경우 主語가 二人稱인(47,48)은 適格文이라 할 수 있으나, (49,50)은 非文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물론 前者의 경우도 親熟度의 면에서 (14,15)에 비할바는 아니나, 後者의 경우는 親熟度의 문제를 넘어선 適格性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49)는 (16)으로, (50)은 (17)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筆者 뿐만 아니라 여러 提報者들이 공통된 생각이다. 平敍文에 있어서도 相形態 '움'의 構文으로서 主語가 一人稱인(51)은 適格文이라 할 수 있으나, 主語가 三人稱인(52)은 非文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19)로 고쳐져야 적격한 것이 된다.

홑서體의 경우도 비슷한 관찰이 가능하다. (53-56)에서 발견되는 形態 '우'는 文(20-23)에서도 확인되는 홑서體의 그것이다. 疑問文(53)은 二人稱 主語文인데 이것이 適格文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主語가 三人稱인(54)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筆者의 기억으로도 이것은 非文임인 것 같다. 平敍文에 있어서도 主語가 一人稱인(55)은 適格文이라 할 것이나, (56)은 역시 非文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에, 相形態로서의 '움'의 構文은 疑問文에서 三人稱 主語文보다 二人稱 主語文이, 그리고 平敍文에 있어서는 역시 三人稱 主語文보다 一人稱 主語文이 더 適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경향은 ㅎ라體에서보다 ㅎ여體와 홑서體에서 더욱 뚜렷해 보인다.

3.2.4.2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方言에서는 名詞形語尾 '움'이 相의 形態로 쓰여서, 심한 人稱的 制約을 받고는 있지만, 위의 第一類의 形態들과 任意交替되고 있다. 그러면 이들 兩者의 關係는 어떠하며, 名詞形 '움'은 어떠한 緣由로 人稱的 制約을 받는 것일까?

<圖表 2>는 앞서 논의한 바 있는 第一類의 相體系(<圖表 1> 참조)에 形態 '움'에 의한 또 하나의 體系를 對比시켜 놓은 것이다. 사실

第一類의 相體系는 주로 (가)(나)型에 의하여 표현된다. 아래 圖表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가)型에 비하여 (나)型이 그 勢力面에서 훨씬 壓倒的인 것 하나, (가)型도 主語가 二人稱인 呼라體의 疑問文에서 여전히 健在하고 있어서 좀처럼 그 姿勢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話者에 따라서는 바로 이 統辭的 環境에서 (나)型이 등장하는 일이 있어서, 앞으로 (나) 單一體系로의 移行의 실마리를 보이는 듯하나, 지금으로서는 (가), (나)가 共同으로 第一類의 體系를 代表한다 할 것이다.

類	型	形態	敬法	恭遜法		呼라體		呼여體		흥서體	
				疑問	平敬	疑問	平敬	疑問	平敬	疑問	平敬
I	가'	음		2·(3)	1·(3)	2·[3]	1·[3]	2·[3]	1·[3]		
	가	암/엄		2							
	나	암시/엄시		(2)·3	1·3	2·3	1·3	2·3	1·3		ㄹ

1) 1, 2, 3 數字는 人稱을 나타냄.

2) ()는 해당하는 人稱의 主語와 잘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임.

native speaker들은 이에 대하여 肯定과 否定의 엇갈린 反應을 보임. 특히 []의 경우에는 否定的인 反應이 강함.

< 圖表 2 >

이 體系에서 (가')型인 '음'의 存在는 確實히 剩餘的인 것이다. 그러나 濟州方言의 發話現場에서 우리는 '무시거 먹엌디?'에 못지 않게 '무시거 먹음구?'나 '무시거 먹음이니?'도 자주 듣게 된다. 平敘文의 경우도 (나)型과 (가')型の 混用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밥 먹엌찌', '이제사 완찌'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란, '밥 먹음이여'나 '이제사 음이여'도 조금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ㅎ여體(文 14-19: 47, 48, 51)와 ㅎ서體(文 20-23: 53, 55)에서도 같은 事實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問題는 이 (가')型이 三人稱 主語와 呼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원래 (가')型の 構文에는 三人稱 主語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 三人稱인 경우는 (나)型에 이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後者の 경우는, (가')體系와 (가, 나)體系를 비교했을 때 主語가 二人稱인 疑問文과 主語가 一人稱인 平敘文에서 아직도 雙方의 對立이 健在해 보이는데, 유독 三人稱 主語文에서만 그렇게 맥없이 征服되고 말았다는 事實을 合理的으로 說明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보면 前者의 立場에 서는 것이 妥當해 보이니, 이 경우에 있어서도 問題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원래 (가')型인 '음'體系에서는 三人稱 主語文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習性이 여태 存續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이것은 對話에 있어서 話者와 聽者만이 의식되고 第三者는 主語로 의식되지 않는, 그러한 言語生活 時代를 想定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想定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게 되지만, 이를 否認할 만한 根據도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論議는 (가')體系가 (가, 나)體系보다 時代的으로 앞섰음을 前提로 하고 있다. 後者和 같은 강력한 勢力을 가진 體系가 존재하고 있는데 前者와 같은 畸形(?)이 생겨날 리가 없겠기 때문에 이 前提는

妥當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옴’>‘암/엄’의 發達이 國語史的으로 그 妥當性이 인정된다고 본다. 우리는 命令形 語尾 ‘아라/어라’가 ‘으라’에서 ‘으>아/어’의 變化에 따라 이루어진 形態임을 알고 있다. 알타이語系에서 모든 文은 名詞文이었다(李基文, 1972: 20-21)는 事實도 중요한 根據가 된다고 본다.

3.2.5.1 (가’)型이 三人稱 主語文에 더러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은 (가, 나)體系의 類推에 의한 것일 뿐, 원래는 (가’)體系에 三人稱 主語文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때에 (가’)體系보다는 (가, 나)體系가 발달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濟州方言의 現在의 相體系를 擔當하기에는 未洽함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위에서 우리는 例(34)가 非文임을 보았다. 이것은, 第二類의 경우 主語가 二人稱인 疑問文에서 흡서體의 相形態는 ㅎ여體의 그것과는 달리 (나)型인 ‘아시/어시’가 아님을 證言하는 것이다. 例(34)는,

57) 삼춘(二人稱)은 밥 먹음데가? (삼춘계선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야 適格文이 된다. 여기서 ‘먹음데가’는 ‘먹-음-데-가’로 분석된다. ‘옴’은 흡서體의 形態, 그리고 ‘데’는 相의 形態인데, 위의 흡서體의 例文들에서 볼 수 있는 恭遜法의 形態 ‘우’, 相의 形態 ‘아시/어시’와 비교할 때 자못 특이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語順에 있어서 <相-恭遜法> (‘아시-우’)가 <恭遜法-相> (‘옴-데’)로 顛倒된 것도 우리의 주목을 끌 만하다. 恭遜法의 ‘옴’과 ‘우’는 音韻論的 關聯을 지어 볼 수 있겠으나, 相形態 ‘데’와 ‘아시’ 사이에는 어떠한 關聯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막연한 생각이 든다. 아마도 이것은 그 語順과도 關聯을 지워서 해결해야 할 通時論的인 問題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 '데'를 第三의 形態로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 자족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言及해 둘 것은 ㅎ여體의 경우이다.〈圖表1〉에서는 第二類의 경우 二人稱 主語의 疑問文이 ㅎ여體에서 (나)型인 '아시/어시'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이 '데'의 交替形이라 할 수 있는 '아/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58) 저사름(二人稱)은 밥 먹언가? (30)

59) 자네 서울 살암신가? (자네 서울 살고 있는가?)

(58)의 意味는 (30)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먹언가'는 '먹-어-ㄴ가'로 분석된다. 혹시 '먹-언-가'로의 분석을 기대할지 모르나,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다. (59)의 '살암신가'가 '살-암시-ㄴ가'로 분석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때의 'ㄴ가'는 ㅎ여體의 疑問法 語尾이다. 이것은 老年層의 男性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여기에 相形態로 등장하는 '아/어'도 지금으로서는 위의 '데'에 못지 않게 궁급한 存在이나, 이것들의 正體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論議하기로 한다. (3.2.6.2 참조)

3.2.5.2 이 밖에도 우리는 〈圖表 1〉의 (가, 나)型이 濟州方言의 相體系를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文例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間接引用文의 경우인데, 예를 들면,

60) 창 수: 난 이제사 감췌.

61) 어머니: 난 이제사 밥 먹엄서.

62) 창 수: 난 이제사 정심 먹엄수다.

이들 例文을 間接引用文으로 고치면,

60') 창순 (이녀은) 이제사 가노텐 허멍 저래 가라. (창수는 이제야 간다고 하면서 저리 가더라.)

61') 어멍은 이제사 밥 먹누텐 허멍 먹엄서라. (어머니는 이제야 밥 먹는다며 먹고 있더라.)

62') 창순 이제사 정심 먹누텐 7라라. (창수는 이제야 점심 먹는다고 말하더라.)

와 같이 나타난다. 이들 例文의 '가노텐', '먹누텐'은 각각 '가-노-라-인', '먹-누-라-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노/누'는 相形態로서 (60-62)의 '암시/엄시'에 對應되는 것이며, '라'는 원래 이 '노/누'에 後接하는 平敘法의 終結語尾, 그리고 '인'은 소위 引用派詞로서 中央語의 '고'에 對應되는 것이다. 이 例文에 內在하고 있는 間接引用文은 그 主語가 모두 話者 自身인 '창수, 어멍, 창수'인데, 이 '노/누'의 登場은 이 方言의 一般的인 間接引用文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存在라 할 만하다. 같은 第一類의 統辭的 條件에서, 이 경우는 主語가 一人稱인 構文이지만, 가령 主語가 三人稱인 構文을 보면,

63) 창 수: 자인 아시영 싸왓찌. (저 애는 아우랑 싸우고 있다.)

64) 어머니: 그 사람은 혼차 살암서. (그 사람은 혼자 살고있네.)

65) 창 수: 가인 줌잠수다. (그 애는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 例文(63, 64, 65)는 恭遜法의 等分에 따른 ㅎ라體, ㅎ어體, ㅎ서體의 構文인데, 이를 間接引用文으로 고칠 경우,

63') 창수가 가인 아시영 싸왓펜 ㄱ라라.

64') 어멍이 그 사름 혼차 살암펜 ㄱ라라.

65') 창수가 가인 줌잠펜 ㄱ라라.

와 같이 나타난다. 이들 例의 '싸왓펜', '살암펜', '줌잠펜'은 각각 '싸
왓찌-인', '살암찌-인', '줌잠찌-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우리는 恭遜
法의 等級이 中和된 ㅎ라體의 飯述 終結形에 引用添詞가 결합된 形式
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론 音韻縮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만). 이것이 이 方言의 間接引用文에 흔히 볼 수 있는 典型이다.

66) 창수: 는 무시거 먹엌디?

67) 원길: 자인 발더레 감시냐?

68) 창수: 이건 나 책이여.

69) 원길: 가인 집더레 감서라.

우리는 (66-69)의 '먹엌디', '감시냐', '책이여', '감서라'에 引用添詞
'인'을 結合함으로써 어렵치 않게 間接引用文을 만들 수가 있다.

66') 창순 나신더레 무시거 먹엌딘 들어라. (창수는 나더러 무엇
을 먹고 있느냐고 묻더라.)

67') 원길인 자인 발더레 감시넌 들어라. (원길이는 저 에는 발으
로 가고 있느냐고 묻더라.)

68') 창순 그거 이녀 책이엔 ㄱ라라. (창수는 그거 자기 책이라고
말하더라.)

69') 원길인 가이 집더레 감서텐 헤여라. (원길이는 그에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 하더라.)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方式으로 文(60-62)를 變形한다면,

60") *창순 (이녀은) 이제사 감쥔 허멍 저래 가라.

61") *어멍은 이제사 밥 먹엿쥔 허멍 먹엿서라.

62") *창순 이제사 정심 먹엿쥔 허멍 먹엿서라.

에서처럼 非文이 되고 만다. 물론 여기서 間接引用文의 主語가 一人稱 즉, 原話者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역시 (60'-62')라야 適格文이다. (62")의 경우, 만일 '먹엿쥔'을 合書體의 形態를 살려서 '먹엿수덴'(<'먹엿수다'-'인')으로 한다면 許容이 될 법도 하나, 一般的인 表現은 아니다. 이 '노/누'는 分布上 심한 制約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 方言의 相體系 내에서 아직도 확고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非引用의 日常的 發話에서 들어 볼 수 없게 되었지만, 前時代 어느 時期에는 자유스럽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바 있는 命令法語尾 '으라'가 前時代에 사용되다가 '아라/어라'에 물려, 지금은 間接引用文에서 그 餘脈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推測이 무리가 아님을 알게 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第一類의 相體系에서는 (나)型인 '암시/엄시'가 恭遜法의 等分과 敍法과 主語의 人稱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環境에 두루 나타나는 강력한 勢力을 가진 形態이다. 그러나 主語가 二人稱인 合書體의 疑問文인 경우에는 (가)型인 '암/엄'이, 그리고 間接引用文에 있어서도 그 引用文의 主語가 一人稱(原話者)인 合書體 (이 경우에는 恭遜法等分の 對立이 없이 合書體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의 平敍文에서는 '노/누'가 確固하게 自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누'形態를 위의 (가)(나)型에 이어서 (다)型이라 할 만한데, 이 세 形態는 서로 相補的인 關係를 맺으면서

하나의 完成된 相體系를 나타낸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飯上의 (가')型은 剩餘的인 것임이 분명해진다.

3.2.5.3 第二類의 相體系에 있어서 대표적 表現形態는 (가)(나)型인 '안/언'과 '아시/어시'이다.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3.2.3.2 참조) 이것은 第一類의 (가)(나)型에 대체로 平行하는 것이다. 다만, (가)型의 경우 第一類의 '암/엄'에 對應하는 '안/언'을 감안하면, (나)型에 있어서는 第一類의 '암시/엄시'에 對應하는 '*안시/*언시'가 기대되나, '아시/어시'로 나타나는 것이 特異하다 할 것이다.

하라體의 二人稱 疑問文에 (가)型인 '안/언'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같은 條件에서 第一類의 (가)型 '암/엄'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前者의 경우는 자기 位置에 (나)型의 출현이 철저히 排除되는데, 이點 話者에 따라서 後者인 '암/엄'의 자리에 (나)型인 '암시/엄시'가 더러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 할것이다 (문7').

第二類의 (나)型은 그 分布로 보아 第一類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勢力이 강력한 것이다(도표 1 참조). 다만 ㅎ서體의 二人稱 疑問文에서 이 (나)型이 나타나지 못하고 대신 '데'가 나타나며, ㅎ여體의 경우도 話者에 따라서 '아/어'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데, 이것은 매우 奇異한 일로 여겨진다. 여기서 지적할 또 하나의 特異한 事實은 間接引用文(平飯文)의 경우이다. 第一類의 경우에도 主語가 一人稱(原話者)인 間接引用文에 나타나는 相形態가 우리의 期待와는 달리 '노/누'였는데, 第二類에 있어서도 같은 統辭的 條件에서 相形態는 意外로 '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70) 철 수: 난 모녀 밥 먹었저. (난 먼저 밥 먹었다.)

71) 어머니: 난 점심 벌써 먹어서. (나는 점심 벌써 먹었네.)

72) 철 수: 난 ㄱ싸 밥 먹어수다. (저는 아까 밥먹었습니다.)

(70-72)는 ㅎ라體, ㅎ여體, ㅎ서體의 例文인데, 主語가 一人稱임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間接引用文으로 고치면,

70') 철순 (이녀은) 모녀 밥 먹과텐 ㄱ라라. (철수는 자기는 먼저 밥 먹었노라고 말하더라.)

71') 어명은 정심 불씨 먹과텐 ㄱ라라.

72') 철순 ㄱ싸 밥 먹과텐 ㄱ라라.

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間接引用文의 경우 義通法은 等級의 對立이 없이 ㅎ라體로 나타난다. 이들 例의 '먹과텐'은 '먹-과-라-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 '과'가 原發話文의 相形態 '어시'의 交替形이다. 이 '과'는 一人稱主語 構文에만 나타나므로 다음과 같은 例文을 間接引用文으로 고쳤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73) 창 수: 자인 아시영 싸앗저

74) 어머니: 가인 ㄱ싸 밥 먹엇저

75) 만 길: 는 무시거 먹언디?

76) 원 철: 자인 누게영 싸와시니?

이 例文들은 主語가 二人稱과 三人稱인 構文인데, 이를 間接引用文으로 고치면,

73') 창순 자인 아시영 싸앗젠 ㄱ라라.

74') 어명은 가인 ㄱ싸 밥 먹엇젠 헤어라.

75') 만길인 나신더래 무시거 먹언딘 들어라. (만길이는 나더러 무엇을 먹었느냐고 묻더라.)

76') 원철인 자인 누계영 싸와시닌 들어라.

이들 예의 '싸왓젠', '먹엇젠', '먹언딘', '싸와시닌'은 각각 '싸왓저-인', '먹엇저-인', '먹언디-인', '싸와시니-인' 등으로 분석되는데, 이것들은 原發話文의 敘述語에 引用添詞 '인'이 결합된 것으로 相形態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形式이 이 方言의 間接引用文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一般的인 것이다. 그러나 主語가 一人稱인 構文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文(70-72)를 이러한 方式으로 變形하면,

70") *철순 (이녀은) 모녀 밥 먹엇젠 ㄱ라라.

71") *어명은 불씨 정심 먹엇젠 ㄱ라라.

72") *철순 ㄱ싸 밥 먹엇젠 ㄱ라라.

이들 예에 內包된 間接引用文의 主語가 (70")의 경우에는 一人稱임이 분명하지만, (71")(72")에서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만일 그 主語가 二人稱이나 三人稱이라면 適格文이라 할 수 있지만, 이 例文들은 文(70-72)의 變形이므로 그 主語가 一人稱이 분명하기 때문에, 非文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70-72)의 間接引用文은 (70'-72')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과' 形態는 이처럼 ㅎ라體의 一人稱 平敘文이라는 分布上의 심한 制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第一類의 '노/누'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 다른 점은 '과'가 非引用의 發話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70)의 發話를 "난 모녀 밥 먹

과라.”로 變形할 수가 있다. 이러한 發話는 年老한 사람들의 말이므로 만일 年少한 사람의 發話라면 좀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노/누’의 경우도 非引用의 發話에 나타났을 蓋然性은 매우 크다고 본다. 그 경우에 (60)의 發話는 “난 이제사 가노라.”였을 것이다. 中央語에서도 특히 文語에서 이 形態를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과’는 ‘노/누’와 더불어 呼拉體의 一人稱 平敘文이라는 特殊環境 속에 존재하는 形態인데, 非引用의 發話에서는 (나)型인 ‘아시/어시’에 驅逐되는 처지에 몰려 있으나 間接引用文에서는 아직 健在해 있어서 (나)型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第二類의 相體系에서는 (나)型인 ‘아시/어시’가 恭遜法의 等分과 敘法과 主語의 人稱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環境에 두루 나타나는 대표적인 形態라 할 것이다. 그러나 主語가 二人稱인 呼拉體의 疑問文에는 ‘안/언’이, 그리고 역시 主語가 二人稱인 呼서體의 疑問文에는 ‘데’가, 또 主語가 一人稱인 呼拉體의 平敘文에 있어서는 특히 間接引用文에서 ‘과’가 각각 제자리를 排他的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가)(나)型에 이어서 ‘데’(‘아/어’)를 (다)型, 그리고 ‘과’를 (라)型이라 할 만한데, 이 네 類型은 서로 相補的인 關係를 맺으면서 하나의 완성된 體系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2.6.1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濟州方言의 相範疇의 形態들은 그 意味와 統辭的 條件 (그리고 音韻的, 形態的 條件)에 따라 정연한 體系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範疇의 形態들은 그 意味에 따라 크게 두 部類로 나누어지는데, 第一類의 形態들은 動詞語幹의 意味가 特定한 時間·空間에 實演되는 狀況을, 그리고 第二類의 것들은 動詞語幹의 意味가 實演되고 난 結果的 狀況을 나타낸다. 우리는

前者를 ‘實演相’, 後者를 ‘結果相’이라 하였다. 이 形態들은 統辭的 環境에 따라 下位 分類되는데, 第一類는 (가')型和 (가)(나)(다)型으로, 그리고 第二類는 (가)(나)(다)(라)型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類	型	形態	敬法	하 라 體		하 여 體		합 서 體	
				疑問	平敍	疑問	平敍	疑問	平敍
I	가'	음		2·(3)	1·(3)	2·[3]	1·[3]	2·[3]	1·[3]
	가	암/엄		2					
	나	암시/엄시		(2)·3	1·3	2·3	1·3	2·3	1·3
	다	노/누			<1>				
II	가	안/언		2					
	나	아시/어시		3	1·3	2·3	1·3	3	1·3
	다	데(아/어)				(2)		2	
	라	과			(1)<1>				

- 1) 數字 및 (), []에 대해서는 <圖表 2> 참조. II-(다)의 (2), (라)의 (1)는 餘他의 ()와는 달리 肯定的인 反應을 보임.
- 2) < >는 間接引用文에 나타남.

< 圖表 3 >

3.2.6.2 第一類의 (다)型인 '노/누', 第二類의 (다)型 '데' ('아/어'), 그리고 (라)型인 '과'는 모두 그 分布上의 制約이 심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그 正體와 關聯하여 심각한 問題를 일으키고 있다. '노/누'의 意味는 '現在의 能動的, 積極的 意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아/어')는 이른바 回想法의 形態素 '더'⁸⁾의 異形態로 보이는데, '더'의 意味는 단순한 回想이 아니라 '受容的 意識의 回想'으로 파악된다(拙稿 1983, 또는 2.3.2.3f). 回想이란 점에서 '과'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는 '能動的, 積極的 意識의 回想'으로 파악된다. 이 '能動的, 積極的 意識'이라는 實質이 위의 '노/누'의 그것과 共通的이라는 點이 주목된다(줄고 1990, 또는 2.4.4.2). 回想이란 過去意識의 換起라고 볼 때, 그것이야말로 純正한 時制上의 '過去'라 할 만하나, 이들을 단순히 時制形態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것들이 갖는 또 하나의 意味實質인 '受容的 意識'과 '積極的 意識'을 看過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意識이라 하면 이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이 두 形態素는 意味上으로 相補的 關係에 있다 할 것이다. 이들 形態들은 그 意味로 봐서 樣態範疇의 것들이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話者의 認識의 樣式을 表現하고 있기 때문이다.

3.2.6.3 이와 같은 意味를 가진 形態들이 어떻게 이 方言의 相體系에 受容될 수 있느냐가 問題이다. '더'('데', '아/어')가 갖는 意味實質은 '受容的 意識'(그 典型은 知覺임)과 '回想'인데, '더'가 受容的

8) 濟州方言에서는 回想法의 形態素 '더'의 異形態로 '라', '아/어', '데'를 둘 수 있는데, '라'는 繫詞 다음에, '아/어'는 動詞語幹이나 相形態 '암시/어시', '아시/어시' 등의 다음에, 그리고 '데'는 合서體의 '읍' 다음에 나타난다. (拙稿, 1983: 221, 또는 2.3.1.1 참조)

意識을 意味實質로 갖는다는 것은 곧 이 形態들이 知覺이 가능한 文脈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다음에서 '더'의 構文을 살펴 보기로 하자.

77) 느도 아파냐? (너도 아프더냐?)

78) *느도 밥 먹어냐? (*너도 밥 먹더냐?)

79) 저사름(이인칭)도 아판가? (자네도 아프던가?)

80) 저사름(이인칭)도 밥 먹언가? (*자네도 밥 먹던가?)

81) 삼춘(이인칭)도 아팠데가? (삼춘께서도 아프시던가요?)

82) 삼춘(이인칭)도 밥 먹음데가? (*삼춘께서도 진지 잡수시던가요?)

'아프다'는 것은 體性感覺에 의한 知覺이다. 이것은 本人밖에는 느낄 수 없다.(77)(79)(81)들은 聽者에게 그 自身の 體性感覺에 의한 知覺을 묻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適格文이 된다. 標準語의 경우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知覺과 같은 受容的 意識이 아닌 '能動的 意識'은 '더'에 의하여 나타나는 일이 없다. 例(78)이 이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標準語의 경우도 (78, 80, 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本人이 '먹는' 行爲는 知覺에 의하여 受容되는 것이 아니라 能動的인 意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濟州方言의 (80, 82)가 適格文이 되는 理由는 무엇인가?

言語란 歷史的 所産이므로 반드시 여기에는 그럴 만한 來歷이 있을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알아 보기 어려운 일에 속한다. 다만 여기서는 (80)의 '어'와 (82)의 '데'가 濟州方言의 相形態로서 위의 <圖表 3>의 第二類 (다)型임을 確認하는 것에 그치려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 形態의 意味의 變化 (따라서 文法範疇의 轉換)도 뒤따르게 마련이

다. 이 例文들을 標準語로 번역하면, (80)은 '자네도 밥 먹었는가?', (82)는 '삼촌께서도 진지 잡수셨습니까?'로 된다.

3.2.6.4 위에서 形態 '노/누'의 意味는 '現在의 能動的, 積極的 意識', 그리고 '과'의 意味는 '能動的, 積極的 意識의 回想'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能動的 意識'이란 話者 자신의 意識이다. 자기의 먹고 말하고 노는 行爲는 이미 자기의 情報이므로 知覺을 통하여 受容되는것이 아니다. 이 경우의 文章이 '노/누', '과'의 構文이다. 이러한 構文이 一人稱 主語文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60'-62') 과 (70'-72')의 間接引用文이나, (70)의 變形인 "난 모녀 밥 먹과라."가 모두 그 예인 것이다. 그러나 逆으로 一人稱 主語文이 모두 이들 形態의 構文이 되는 것은 아니다. 狀態動詞가 語幹인 경우는 특히 불가능하다. (拙稿 1990:856f, 또는 2.4.2.1 참조)

3.2.6.5 '노/누'가 '現在'라는 意味實質을 갖게 된 因緣으로 相體系의 第一類에 머물게 되었고, '과'와 '더'가 '回想'(過去의 喚起)라는 意味實質로 하여 第二類에 머물게 되었다면, 이것은 實然相이 內包하고 있는 現在性과 結果相이 含意하고 있는 過去性을 토대로 한 이 方言 相體系의 包容性 내지는 融通性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노/누'와 '과'는 自己本有의 實質을 온전히 지키면서 相形態의 구실을 하고 있다면, '더'는 '受容的 意識'이라는 實質을 버리고서야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受容的 意識'을 견지하고 있는 相體系 밖의 '더'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83) 가이 밥 먹엄서라. (그 에 밥 먹고 있더라.)

84) 그 사람 장의 가서라. (그 사람 장에 갔더라.)

(83)과 (84)의 '먹엄서라'와 '가서라'는 각각 '먹-엄시-어-라'와 '가-아시-어-라'로 분석된다. 우리는 여기서 相形態 '-엄시-'와 '-아시-'와 결합된 '-더-'의 이형태 '-어-'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相形態가 아님이 분명하다. '노/누'는 물론 '과'의 경우에는 이러한 構文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들 形態는 '더'와는 달리 자기 本來의 意味資質을 가지고 相體系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들을 相範疇의 形態로만 처리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固有의 意味資質이 相範疇의 意味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範疇가 겹쳐지는 部分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範疇의 親密性을 발견하게 된다.

4. 結 論

4.1.0 말이란 話者と 聽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音聲的 傳達行爲이라고 할 수 있다. 本質적으로 생각할 때, 聽者を 前提하지 아니한 文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른바 感謝法 語尾라는 '-구나'도 恭遜法의 '-요'가 결합되는 것을 보면 역시 이것도 聽者を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은 話者が 聽者에게 무엇을 提供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要求하는 行爲이다. 후자의 경우에 話者は 聽者에게 어떤 音聲的인 行爲를 要求하기도 하고, 기타 다른 行爲를 要求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話者は 聽者에게 情報를 提供하기도 하고, 또 聽者에게 情報를 要求하거나, 傳達되는 情報內容대로 행동할 것을 要求한다. 話者と 聽者 사이에 이루어지는 情報傳達 方法이 文法化되었을 때에 敍法은 성립된다고 본다. 話者が 聽者에게 情報를 傳達하는 법이 文法化된 것이 平敍法이고, 話者が 聽者에게 情報 제공을 要求하는 법이 文法化된 것이 疑問法, 그리고 聽者에게 제공되는 情報 內容대로 행동할 것을 要求하는 것의 文法化가 命令法이라 할 것이다.

4.2.0 情報의 傳達은 情報의 獲得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情報를 어떻게 獲得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問題로 登場하는데, 바로 이 情報 獲得 樣式의 文法化가 樣態範疇인 것이다. 情報를 어떻게 獲得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情報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情報는 대체로 두 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特定한 時間과 場所에서 일어나는 事件에 관한 情報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정한 時間이나 場所라는 特定脈絡을 超越한 事實이나 規則에 관한 情報이다. 전자를 脈絡的 情報, 후자를 超脈絡的 情報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1 超脈絡的 情報을 나타내는 樣態要素에는 '-을 거'와 '-으크', '-느-' 등이 있다. 時間的, 空間的 또는 기타의 理由로 話者가 確認하지 못한 不確實한 狀況의 陳述에 '-을 거'는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不確實한 狀況'이란, 肯定的 判斷을 하면서도 그 否定的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며, 반대로 否定的 判斷을 하면서도 그 肯定的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는 그런 蓋然的인 狀況을 말한다. 따라서 肯定 判斷일 경우에도 그 否定的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또 否定判斷일 경우에도 그 肯定的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을 거'는 바로 이와 같은 蓋然的인 狀況에서 이루어지는 蓋然的인 判斷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判斷을 排除하지 못하는 判斷', 이것이 '-을 거'의 意味라고 보는 것이다.

4.2.2 '-으크'도 話者가 確認하지 못한 不確實한 狀況을 前提로 한다는 점에서는 '-을 거'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으크'는 이러한 不確實한 狀況, 즉 어떤 判斷(肯定的 또는 否定的)이 그와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判斷(否定的 또는 肯定的)의 可能性을 排除하지 못하는 그런 蓋然的 狀況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矛盾的 對立關係에 있는 判斷의 可能性을 排除함으로써 그 判斷을 實然化하는 '話者의 確信'을 나타낸다. 蓋然的인 狀況에서는 蓋然的인 判斷이 보편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에 의하여 實然化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實然化의 確信, 이것을 '-으크'의 意味

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으크'를 포함한 陳述은, 그 陳述前 狀況은 蓋然的이나 陳述後의 價値는 實然判斷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實然判斷과 다른 것은, 후자가 經驗을 통하여 確認된 어떤 事實의 陳述이라면, 전자는 아직 經驗하지 못한 어떤 不確實한 事實에 대한 화자의 確信을 나타낸다는 점이라 하겠다.

4.2.3 樣態範疇의 또 다른 形態素 '-느-'는 '-느--ㄴ--네-' 들의 異形態로 實現된다. '-느-'와 '-ㄴ-'은 음운론적 요인에 의하여 교체되는데, 뒤에 오는 語尾가 모음계('-으냐', '-으니')이면 '-느-'로 실현되나, 자음계('-다')이면 그 말모음이 탈락되어 '-ㄴ-'으로 실현된다. 이 形態素는 어떤 原理나 規則들과 陳述에 나타난다. 이것은 話者의 實然判斷을 나타내는 것이다. 原理나 規則은 超脈絡的 情報에 속하는 것이므로 脈絡的 情報을 나타내는 '-과-'나 '-더-'와 다르지만, 어떤 事實에 대하여 確實하게 알고 행한 陳述이라는 점에서 이것들과 비슷한 점도 있다 할 것이다. 話者가 어떤 事實에 대하여 確實하게 알고 있다면, 實然判斷을 내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에 속한다. 반면에 超脈絡的 情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느-'는 또 '-을 거'나 '-으크'와 같다 하겠으나, 한편 實然性을 그 實質로 하는 '-느-'는 蓋然性을 前提로 하는 後者들과 다르다. 요컨대, 超脈絡的인 情報을 對象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兩者가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것에 대한 判斷의 實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4.2.4 脈絡的 情報을 나타내는 樣態要素로는 '-더-'와 '-과-', '-노/누-'가 있다. 脈絡的 情報의 獲得 樣式은 受動的, 受容的 意識과 積極的, 生産的 精神活動으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더-'에 의하여, 그리고 후자는 '-과-'와 '-노/누-'에 의하여 나타난다. 形態素 '-더-'

는 異形態 '-라---아/어---데-'로 실현된다. '-라-'는 繫辭 '이' 다음에, '-아/어-'는 動詞語幹이나 相形態 '-암시/엄시-', '-아시/어시-' 등의다음에 나타난다. 受容的 意識은 그 전형이 感覺的 知覺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情報의 대부분은 이 意識에 의하여 獲得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計劃하고 實行하는 대부분의 活動은 積極的인 意識에 속하는 것으로 知覺 以前에 우리는 벌써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情報는 形態素 '-과-'와 '-노/누-'에 의하여 나타난다. '-과-'는 이와 같이 '積極的 意識'이라는 意味 實質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누-'와는 같지만, '-더-'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반면에 '-더-'와 '-과-'는 '회상'이라는 意味 實質을 공유하고 있어서 類似한 面을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과-'는 '-노/누-'와 다른 것이다. 話者의 意識과 發話가 時差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話者는 發話時點에서 자기의 意識을 回想하게 된다. 따라서 形態素 '-더-'의 意味는 話者의 受容的 意識의 回想이라 할 수 있으며, 形態素 '-과-'의 意味는 話者의 積極的 意識의 回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누-'는 積極的 意識과 同時에 發話되는 狀況을 나타내므로 이 점이 '-과-'와 다른 것이다.

4.3.0 命題內容이 特定の 時間과 場所에 實演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文法化된 것이 相이라고 생각한다. 濟州方言의 相形態는 實演相의 '-암/엄---암시/엄시-'와 結果相의 '-안/언---아시/어시-'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動詞語幹 자체의 意味가 實演되는 狀況'을 나타내며, 후자는 '動詞語幹의 意味가 實演됨으로써 惹起되는 結果的 狀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濟州方言의 相體系는 意味, 統辭的 요인뿐만 아니라, 音韻, 기타 要因에 의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4.3.1 實演相의 '-암/엄-'과 '-암시/엄시-'는 그 意味上의 차이는 없으나, 분포상 차이를 보인다. '-암/엄-'은 주어가 二人稱인 ㅎ라체의 疑問文에 나타나며, '-암시/엄시-'는 기타의 統辭的 環境에 나타난다. 結果相 '-안/언-'과 '-아시/어시-'도 그 意味上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分布上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암/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主語가 二人稱인 ㅎ라體의 疑問文에만 나타나고, 여타의 環境에서는 후자인 '-아시/어시-'가 나타난다. 다만 主語가 二人稱인 ㅎ서體의 疑問文에는 나타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데-'가 나타나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암시/엄시-'와 '-아시/어시-'는 뒤에 오는 語尾가 子音系일 때에 그 末母音 'ㅣ'가 탈락된다. 이것은 語幹形態素 '이시-'의 屬性으로 樣態要素 '-느-'의 末母音 脫落現象과 유사한 것이다.

4.3.2 濟州方言에서는 名詞形語尾 '-음'이 實演相의 形態로 나타나서 '-암시/엄시-' 등과 任意交替하는 것을 본다. 이 形態는 恭遜法의 等分에는 두루 나타나지만, 一人稱 平敘文과 二人稱 疑問文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도 三人稱인 平敘文과 疑問文의 경우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實演相의 대표적인 形態 '-암/엄-'과 '-암시/엄시-'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것들만으로도 實演相의 體系가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여기에 '-음'이 나타나 이것들과 任意로 交替함은 무슨 연유이며, '-음'의 경우에 三人稱 主語文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암시-'系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음'이 있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음'系에는 원래 三人稱 主語文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習性이 여태 존속하고 있다고 보게 된다. 이것은 對話에 있어서 話者와 聽者만이 의식되고 第三者는 文의 主語로 의식되지 않은 그러한 時代를 상

정하게 된다.

4.3.3 實演相의 '-암시/엄시-'가 期待되는 統辭的 環境에 이 形態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主語가 一人稱인 ㅎ라體의 平敍文에는 자유롭게 나타나면서도, 그 文을 間接引用文으로 變形하면, '-노/누-'로 交替된다. 따라서 이 '-노/누-'는 主語가 一人稱인 間接引用文에서 '-암시/엄시-'를 대신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結果相의 경우도 '-암시/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主語가 一人稱인 間接引用文에는 '-아시/어시-'가 '-과-'로 교체된다. 뿐만아니라 주어가 이 인칭인 ㅎ서체 의문문에도 '-아시/어시-'가 나타나지 못하고 대신 '-데-'가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 더구나 이렇게 相形態들에 대신하여 나타나는 '-노/누-', '-과-', '-데-'들이 모두 樣態範疇의 形態라는 데에 심상치 아니한 문제가 惹起되는 것이다. 단순히 共時的인 觀點에서만 본다면, 이 두 範疇의 親近性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發生的으로 볼 때에는 보다 根本的인 問題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의 課題로 남겨 두기로 한다.

--- 참 고 는 저 ---

- 姜 信 沆(1976), 慶北 安東·率化·寧海 地域의 二重言語生活(成均館
大論文集 20집).
- (1978), 安東方言의 敘述法과 疑問法 (언어학 제3호)
- 康 貞 姬(198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출판부).
- 高 永 根(1965), 現代國語의 敘法體系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제15
호)
- (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敘法 (塔出版社).
- (1986), 敘法과 樣態의 相關關係 (國語學新研究1, 탑출판사).
- 高 在 奭(1986), 濟州島俗談研究 (博士學位論文).
- 金 榮 敦(1956-7),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한글 119, 121, 122).
- (1977),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 김 영 희(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國語學10).
- 金 完 鎮(1975), 音韻的 誘因에 依한 形態素 重加에 대하여(國語
學 3).
- (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 김 차 균(1981), '을'과 '것'의 의미 (한글174·175합병).
- 南 廣 帖(1975), 補訂 古語辭典 (一潮閣).
- 南 基 心(1978),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
- 朴 用 厚(1988), 濟州方言研究, 考察篇 (科學社).
- 徐 正 洙(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가?(언어2-1).
- (1978), 'ㄹ것'에 대하여(國語學6).

- 成 善 徵(1976), '-것-'과 '-을것이-'의 意味 比較(金亨奎教授停年
退任紀念論文集).
- (1979), 經驗과 推定(문법연구4).
- 성 낙 수(1975), 한국어의 회상문 연구(문법연구2).
- (1984), 제주도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박사학위논문).
- 申 昌 淳(1972), 現代韓國語의 用言補助語幹 '것'의 意味와 用法(朝
鮮學報65).
- 安 秉 禧(1967), 韓國語發達史 中(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V, 語文
· 文學史).
- 安秉禧·李玟鎭(1986), 國語文法論(韓國放送大出版部).
- 劉 昌 惇(1964), 李朝語辭典(延世大出版部).
- 李 基 文(1972), 國語史 概說(塔出版社).
- 李 基 用(1978), 言語와 推定(國語學6).
- 李 南 淳(1981), '것'과 'ㄹ것'(冠嶽語文研究6).
- 李 崇 寧(1957), 濟州道方言의 形態論的 研究(東方學志3).
- (1981), 中世國語文法(乙酉文化社).
- 李 庸 周(1972), 意味論概說(서울大出版部).
- 李翹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學研社).
- 李 熙 昇(1982), 국어대사전(민중서림).
- 任 洪 彬(1980), '것'과 相對性(한글170).
- 張 京 姬(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 研究(塔出版社).
- 최 현 배(1971), 우리말본(정음사).
- 허 용(1975), 우리옛말본(셀문화사).
- 玄 容 駿(1983), 韓國口碑文學大系(9-3), 濟州道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玄 平 孝(1974), 濟州道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博士學位論文).
- (1985), 濟州道方言 研究, 論考篇(二友出版社).
- 洪 宗 林(1975),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考察(韓國國語教育研究會論文集 第8輯).
- (1976),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金亨奎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서울大師大國語教育科).
- (1981),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크-'에 대하여(金亨奎博士古稀紀念論叢).
- (1983a), 濟州島方言의 소위 回想法形態에 대하여(국어교육 44·45 合併號).
- (1983b),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느-'에 대한 試考(蘭臺李應百博士回甲紀念論文集).
- (1987), 濟州方言의 아스펙트 形態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8).
- (1989), 濟州方言의 이른바 大過去 形態에 대하여(龔曉李庸周博士回甲紀念論文集).
- (1990), 濟州方言의 先語末語尾 '-과-'에 대하여(基谷姜信沆先生華甲紀念論文集).
- (未刊), 濟州方言의 相體系檢討(金完鎮先生回甲紀念論文集)
- 小倉進平(1924), 朝鮮語의 歴史的 研究 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 價值(南部朝鮮의 方言)
- (1931), 濟州島方言(青丘學叢第五號).
- 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aspect를 中心으로-(朝鮮學報第87輯).

- Bybee, J.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min,Sohn(1975), Retrospection in Korean (어학연구11-1).
- Hilgard,E.R.:홍대식역(1984), 心理學概論(博英社).
- Lyons,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77), Semantics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1), Language,Meaning & Context(Fontana Paperbacks).
- Palmer,F.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stedt,G.J.(1952),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
schaft II, Formenlehre(Helsinki).
- Wessells,M.G.:김경린역(1984), 認知心理學(中央適性出版社).

<ABSTRACT>

A study on the Modality and Aspect of the Che-ju Dialect

Hong, Jong-rim

Department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Language is in essence speech sound by which a speaker gives information to a hearer.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the information to the hearer, the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the speaker.

Modality can be said to be a speaker's information acquisition aspect that is grammatically embodied. The aspect of information acquisition depends on the types of information itself. We have generally two types of information: one is the information about something that occurs at some particular time and space; the other about the truth or a rul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particular time and space. The former can be referred to as 'contextual information', and the latter as

'supra-contextual information'.

'-ulgu', '-uku' and '-nu-' in the Che-ju dialect show supra-contextual information. '-ulgu' gives problematic judgement, '-nu-' expresses assertorial judgement, and '-uku-' shows the speaker's assertorial conviction under the problematic situation. The structures 'Kalguju' and 'Angalguju' are based on '-ulgu': the former is used when the speaker forms the judgement 'Kanda' but the notion 'Anganda' is not excluded, and the latter is used when the speaker forms the judgement 'Anganda' but the notion 'Kanda' is not excluded. On the contrary the structure '-nu-' is possible when the judgement 'Kanda' excludes the notion of 'Anganda' and the judgement 'Anganda' excludes the notion of 'Kanda'. In other words, problematic judgement is the one in which the judgement of contradictory opposition is not perfectly excluded, whereas assertorial judgement is the one in which it is perfectly excluded. Under the problematic situation problematic judgement is generally formed, but assertorial judgement is common under the assertorial situation. But under the problematic situation the speaker can make his judgement assertorial by his conviction and the structure '-uku' is possible.

'-du-', '-kwa-', and '-no/noo-' in the Che-ju dialect communicate contextual information. We can acquire this information in two ways: one is through passive consciousness

and the other is through active consciousness. The prototype of passive consciousness is perception. Most of the information we have is acquired through this consciousness. But most of the human activities that we plan and put into practice belong to the category of active consciousness and we are conscious of them prior to our perception. Passive consciousness is expressed by '-du-' and active consciousness is expressed by '-kwa-', and '-no/noo-' '-kwa-' is the same as '-no/noo-' in that it has active consciousness as its semantic feature but differs from '-du-', which has passive consciousness. '-kwa-' and '-du-' however look similar because both of them have 'retrospection' in common as their semantic feature. As his consciousness always precedes his utterance, a speaker is bound to retrospect his consciousness at the time of his utterance. '-no/noo-' expresses 'the utterance situation as well as active consciousness',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kwa-'.

A proposition can be made real at a particular time and space and 'aspect' is thought to be such a proposition that is embodied by grammatical formatives. The aspect of the Che-ju dialect is divided into realization aspect and result aspect: the former means 'the situation under which the meaning of a verb stem itself is realized', and the latter signifies the resultant situation caused by the materialization of the meaning of the verb stem'. The former is chiefly shown in the form of '-am/um-' and '-amshi/umshi-' and the latter is chiefly shown in

the form of '-an/un-' and '-ashi/ushi-'. The aspect of the Che-ju dialect is very complicated owing to the semantic, syntactic, phonological, and the other factors.

'-am/um-' in realization aspect appears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n plain style with its subject in the second person and '-amshi/umshi-' appears - the other syntactic circumstances. The distribution of '-an/un-' and '-ashi/ushi-' in result aspect is parallel with that of realization aspect. In case of interrogative sentences in honorific style, however, the expected '-ashi/ushi-' doesn't appear and '-de-' makes its appearance instead. The final vowel 'i' in '-amshi/umshi-' and '-ashi/ushi-' is deleted when they are followed by a suffix beginning with a consonant.

In the Che-ju dialect the nominal suffix '-um' is freely replaced by '-am/um-' and '-amshi/umshi-' of realization aspect. This suffix frequently appears in the utterance of the aged but it hardly occurs in an affirmative or interrogative sentence with its subject in the third person. In case of realization aspect, if an affirmative sentence in plain style with its subject in the first person is transformed into an indirect quotation '-no/noo-' occurs instead of '-amshi/umshi-', though '-amshi/umshi-' is expected to occur. In the same way in case of result aspect, '-kwa-' appears instead of '-ashi/ushi-' under the same circumstance. But no little problem is posed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no/noo-', '-kwa-' and the above mentioned '-de-' are all modality formatives. This remains unsolved for further study.